


자기를 바로 보는 거울

고경

2569(2025). 1. 제141호





진리의 태양 충만한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선암의 일출(경주시청 박영희).

맑은 하늘 고요한 새벽에
황금빛 수탉이 소리 높이 새해를 알리니,
천문만호千門萬戶가 일시에 활짝 열리며
축복의 물결이 성난 파도처럼 집집마다 밀려듭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집의 복동아 뒷집의 수남아 새해를 노래하세.
마루 밑 멩멍이도 우리 속 꿀꿀이도 기뻐 날뛰며 춤을 춥니다.
행복은 원래 시공時空을 초월하고 시공을 포함하니,
이 행복의 물결은 항상 우주에 넘쳐 있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바위도
깊은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시냇물도
다 같이 입을 열어 행복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도 훗날 나는 새들도
함께 노래하며 새해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현실을 바로 봅시다.

- 1984년 성철스님의 신년법어 중

월간 《고경》 후원 사찰 일동 (가나다 순)

경외사 주지 일학
고심정사 주지 일성
길상선사 주지 원담
백련암 감원 일봉
법륜사 주지 대안
삼정사 주지 원소
월륜사 주지 대성
장금선원 주지 원여
정심사 주지 일념
정안사 주지 일선
정인사 주지 원행
정혜사 주지 원당
청량사 주지 원타

월간 《고경》 후원 신행 단체

고심정사신도회
백련거사림
아비라카페

월간 《고경》 필자 및 독자 일동

1세대 칸트 전공자이자 과학철학자인
김용정 교수가 통섭의 안목으로 풀어낸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

김용정 지음 · 윤용택 엮음 _ 416쪽 _ 2024년 10월 20일 발행 _ 값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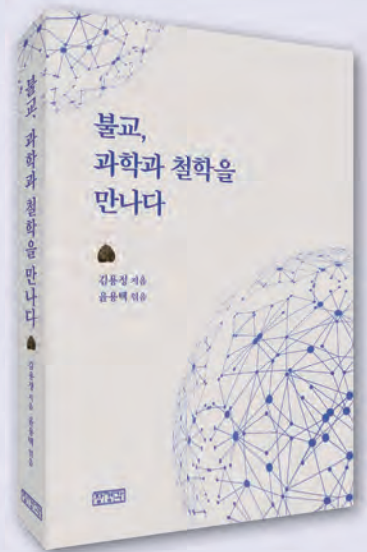
고 김용정 교수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한계를 절감하고
동서고금의 철학과 과학을 섭렵하여 새로운 사상을 정초하고자 했던
'통섭의 철학자'이다.

저자는 불교사상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닐스 보어의 상보성이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와 같은 현대물리학의 이론과 생명과학과
정보과학의 성과들을 명료하게 풀어헤쳐 왔다.

이런 작업을 통해 불교는
현대과학과 현대철학에 영감을 주며,
인류가 나아갈 바른길을 제시하는
종교라고 역설한다. 시와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책은 불교, 과학, 철학이 빚어내는
삼중주의 향연으로 초대해 준다.



- ▶ 1부 불교, 과학, 철학의 삼중주
- ▶ 2부 <반야바라밀다심경> 강의
- ▶ 3부 철학, 과학과 불교를 만나다
- ▶ 4부 과학, 불교와 철학을 만나다



지은이 **김용정 교수**(1930~2019)는 동국대학교 철학과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칸트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과학과 불교』(1979), 『칸트철학연구』(1997)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리프킨의 『엔트로피 1, 2』 등이 있다.

엮은이 **윤용택 교수**는 현재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년을 코앞에 두고 은사를 기리는 마음으로 각 부의 글높이를 맞춰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도서출판 **장경각**

03150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32호
전화_02-2198-5372 이메일_whitelotus100@daum.net

차례

古鏡

자기를 바로 보는 거울

고경

월간 『고경』

—
제 141호

—
2025년 1월 발행
2013년 5월 창간

- 004 **지혜와 빛의 말씀**_ 성철스님 미공개 법문 최초 공개
의상조사 범성계 강설 ①
- 013 **세계불교를 만들어 낸 불교의 바닷길 1**_ 주강현
바다를 건너 부처님의 진신사리
- 023 **현대문학 속의 불교 1**_ 김춘식
서정주라는 시인, 그리고 신라의 내부
- 033 **바위에 새긴 미소 1**_ 양현모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
- 034 **세계불교는 지금 24·말레이시아 ①**_ 소열병
이슬람 국가에서 꽃핀 불교
- 045 **심층 종교의 길을 밝혀준 사람 1**_ 오강남
신플라톤주의 창시자 플로티노스
- 054 **작고 아름다운 불교의례 5·조왕신 ①**_ 구미래
부뚜막에 자리한 치병治病的 신
- 066 **돈황, 사막이 숨긴 불교미술관 5**_ 김선희
싯다르타 태자가 네 개의 성문을 드나들다
- 077 **설산 저편 티베트 불교 25**_ 김규현
밀라레빠의 수행식 썰기풀 죽
- 087 **불교와 과학 26·상대성이론의 세계 ③**_ 양형진
존재가 공간을 결정한다
- 097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13**_ 허남결
시대착오적인 연고주의와 그 폐해
- 106 **원철스님의 디카詩 35**_ 원철
근하신년

- 107 불교로 읽는 서유기 13_ 강경구
쌍차령 이야기
- 117 불교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13_ 이종수
왕실 비빈과 사족 여성을 위한 비구니원의 흥망
- 127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 25_ 박성희
자연의 선물, 발효
- 135 신행 길라잡이 13_ 일행스님
12연기와 『금강경』의 사상
- 144 거연심우소요 51·법주사 ⑥_ 정종섭
봉발신앙과 법주사의 봉발석상
- 156 붓다·원효·혜능·성철에게 묻고 듣다 13_ 박태원
돈점 논쟁은 돈문 頓門 안에서의 일이다

한·중·일 삼국의 선禪 이야기

- 166 한국선 이야기 13·천태종의 개창에 맞서 임제선을 수용한 선사들 ②_ 김방룡
원응국사 학일과 청평거사 이자현
- 176 일본선 이야기 13_ 원영상
중·근세 순수선의 등불을 밝힌 슈호 묘초
- 185 백련마당_ 편집부
제7회 퇴옹학술 시상식 외
- 190 후원 명단
- 192 후원 신청서

2013년 4월 11일 신고, 신고번호 종로 라00406

『고경』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전재 및 무단복사를 금합니다.

『고경』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의상조사 법성계 강설 ①



성철스님_ 전 대한불교조계종 제 6·7대 종정

이번호부터 연재되는 <의상조사 법성계 강설>은 최초로 공개되는 퇴옹당 성철대종사의 미 공개 법문입니다. 법성계 강설 원고는 1966년 <문경 김용사 운달산 법회>의 녹음파일을 일덕스님이 1차 녹취하고, 일엄스님이 정리하고 교정한 것입니다. 녹음파일의 음질이 고르지 못하고, 큰스님의 말씀이 빠르고 사투리가 심해 정확히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스님의 진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지만 명백히 알아듣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단정한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의가 명확치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녹음파일을 백련불교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질정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법성계를 하겠는데, 법성계의 법성法性을 부처님은 무엇이 라 했냐면 중도中道를 법성이라 했고, 연기緣起를 법성이라 했고, 진여眞如를 법성이라 했고, 제일의공第一義空을 법성이라 했다고 앞전에 얘기를 다 안 했어?

우리 불교는 근본적으로 연기, 진여, 공, 법계 이런 것 전체를 말짱 다 법성이라 했거든. 법성이란 것은 법성 하나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야. 이때까지 말한 중도中道 대의大意에서 불법을 표현한 전체 술어가 법성에 다 포함되어 있어. 법성이라 하면 법성에 포함되고, 진여라 하면 진여에 포함되고, 법계라 하면 법계에 포함되는데, 전체가 완전히 통한 것만 알



사진 1. 1966년 김용사에서 법성계를 강설하시던 때의 성철스님.

면 되지 한 가지씩 각각 법성이 따로 있고, 진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알면 불법의 특징을 이해 못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일체가 통한 것이 법성인데, 이 법성계를 누가 썼냐면 의상義湘 스님이 썼어. 화엄종에 의지해서, 불교 전체의 근본원리를 아주 요약해서 만든 건데, 아마 한국 스님네가 만든 글로써는 아주 최고봉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 불교의 골수가 여기 다 들어 있는데, 핵심은 이때까지 말한 중도에 전부 입각해 있습니다.

법성원융무이상 法性圓融無二相

이렇게 나가거든. 법성은 원융무애해서 두 상이 없어. 시비是非, 선악善惡, 유무有無, 고락苦樂이라는 일체의 상이 다 떨어졌어. 양변의 상이

다 떨어졌다 그 말이라. 양변의 상이 다 떨어지니 중_#이지 판 거 아니거든? 무이상無二相하는 것은 일체 상이 다 떨어진 경계인 거예요. 무이상無二相이라 하니, 이상二相은 없고 세 상, 네 상은 따로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라. 두 상이 없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차별적인 상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말이지. 법성이라 하는 것은 본시 절대적이고 원용 무애해서 차별적인 양변이 전부 다 떨어지고 없어.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그래서 일체 만법이 본시 본래로 적적하다, 적멸하다 말이야. 제법諸法이라는 것은 이사理事를 통한 전체를 얘기한 것이야. 이변理邊이든지 사변事邊이든지, 이사理事를 통한 일체 만법 전체 이대로가 부동적멸不動寂滅이야. 그래서 『법화경』에도 제법중본래諸法從本來 상자적멸상常自寂滅相이라고 안 했어?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법성계는 화엄종에서 하는 소리이지만은 『법화경』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전체가 적멸상, 열반상이고 해탈상입니다.

그리고 이 제법諸法은 오직 불법에 대한 제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세간 출세간을 망라해서 일체 만법 전체가 말짱 다 부동不動해서 적멸상 아닌 게 없더라, 이리되어야 하거든? 이렇게 나오면 여기 가서는 경계境界랄 것이 하나도 없어. 결국은 머리 깎고 있는 사람은 실지로 제법을 대변하고, 상투 틀고 있는 사람은 제법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상투를 틀었든 머리를 깎았든, 치마를 입었든 양복을 입었든 간에 전체 이대로가 부동이고 적멸상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리되면 불교고, 예수교고, 유교고, 노자고, 장자고 경계가 하나도 없어. 빨갱이

고 검둥이고, 우右이고 좌左이고, 이런 것도 없다 말이야. 여기까지 오면 그만 큰 바다와 같아. 큰 바다가 안 그래요? 갖가지 강에서 흙물도 내려 오고 뚱물도 내려오고 온갖 물이 다 내려오지만 바다에 들어가면 말짱 다 짠 바닷물, 한 물이 되어 버리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대해와 같은 이 제법은 일체를 전부 다 포함하는데, 본시 자성이 원용무애하고, 두 상이 아니라 말이야. 상이 다 떨어지고 본래로 적멸해서, 적멸상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라. 그것은 즉 생사 이대로, 현실 이대로가 절대란 말이야. 천태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불법은 제법실상諸法實相, 연기실상緣起實相이라 현실 이대로가 절대라고 해.¹⁾

무명무상절일체無名無相絕一切

원용무애한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겠나 이진데, 그것은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어서 일체를 다 끊어내 버렸어. 그것은 형용할 수 없다 말이야. 명부득名不得 상부득相不得이야. 형용할 수도 없고, 모양을 낼 수도 없고, 뭐라고 규정을 할 수도 없다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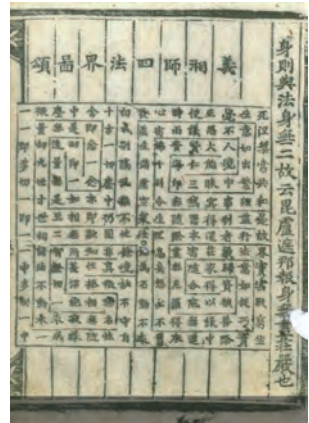


사진 2. 목판본 화엄일승법계도.

1) 퇴옹 성철,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장경각, 2015년, p.177, 일승법과 방편.

※ 천태스님이 말하는 제법실상이란 '제법은 실상'이라는 것이다. 연기하는 세계 그대로가 실상이라는 연기실상이 곧 제법실상이며, 연기법 그대로 절대이다. 즉 법 그 자체가 그대로 연기이며 실상이다. 현실세계 그대로가 실상계라고 말하며, 만물 그대로가 절대이며 실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법성이라 했냐? 이것도 할 수 없어서 법성이라 한 거라. 원효스님 말마따나 뭐라고 형언할 수 없으니 달을 가져와 이언진어離言眞如로 가리키는 것같이 말이지. 뭐라고 형언은 해 봐야 되거든. 딱지를 붙여야지만 부를 수가 있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법성法性이다, 법계法界다, 진어眞如다 이렇게 할 뿐, 이건 가명假名이야. 임시적인 것이란 말이야. 실지는 이것에 이름을 지을래야 지을 수 없고, 모양을 낼래야 낼 수 없어. 그런 것이 법성 그 자체야.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것이야.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

증지證智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야. 부처님의 지혜로써 알 바요, 남은 경계, 딴 경계는 모른다 이것입니다. 실지는, 부처님을 제외한 십지十地, 등각等覺까지도 다 남은 경계야. 저 꼭대기 등각부터 저 밑에 지옥 중생까지 전부 합해서 구법계九法界거든. 그런데, 십법계 저 꼭대기 부처님이나 알 일이지, 십지 등각부터 지옥 중생까지 구법계 중생들은 이걸 모른다 말이야. 그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유불여불唯佛與佛이 내능구진乃能究盡’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오직 부처라야 알 수 있지, 그 외에는 참말로 어찌나 그 뜻이 깊은지 알기 어렵다 이것이라.

증지소지證智所知를 어떤 사람은 능소能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전부터 내가 더러 말을 들었는데, 의상스님 법계도法界圖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 장경藏經에 대개 다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에 전해 내려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어디든지 ‘유불소지唯佛所知’, 오직 부처님만이 알 바이지 중생의 세계는 아니라고 여러 곳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전통적 해석 중 혹 어떤 이가 증지소지를 능소로 놔 놓고 근본

지根本智니 후득지後得智니 하며 이상하게 배대를 쓴다고 해. 그렇게 아무튼 좀 다른 말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화엄일승법계도라든지, 『법계도기총수록』, 『일승법계도원통기』 등 법성계 관련 원문에 설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주해를 남겨 놓은 책이 여러 권이에요. 그것이 장경藏經에 다 수집이 되어 있어. 거기 상세한 설명을 보면 증지소지를 반드시 부처님이 알 바이지, 딴 사람 십지 등각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해석하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진성심심극미요眞性甚深極微妙

참된 법성 그것은 심히 깊고 또 극히 미묘하다 말이야. 어떻게나 그 이치가 깊고 미묘한지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일체 중생뿐 아니라 십지 등각도 그것을 알 수 없다 이것이라. 그만치 심심미묘하다 말이야. 그래서 오직 증지證智, 성불해야만 이것을 알지, 그러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럼 이것은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불수자성수연성不守自性隨緣成

증지라 하는 이 법성은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이룬다는 말이야. 본시 법성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이 공하다 그 말이야. 자성이 공췌하니 연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 자성이 공하지 않으면 연기가 성립안 된다 말이야. 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응화할 수 없어. 응화하는 근본이 어느 곳에 있냐면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공하다는 것이 무엇이나면 근본적으로 무아無我라 그러거든. 아 내가



사진 3. 성철스님께서 법성계를 강설하셨던 문경 김용사 전경. 사진: 서재영.

없다 말아야. 아我를 집執한다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것이야.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어떻게 화합이 되겠어? 만날 싸움만 한다 말이라.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융화가 되고 연기緣起가 되는 것은 아我가 없기 때문이야. 지금 바로 무아無我라 말아야. 무아를 달리 공空이라 하거든.

그것을 달리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수자성不守自性이라 합니다.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야. 그래서 인연 따라 이루거든. 그 연기하는 근본원리가 어느 곳에 있냐면 무아, 즉 자성이 공空한 데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원용무애하게 쓰거든. 그렇지만, 공空하다 하니까 또 아주 다 공한 것은 아닙니다. 색성공色性空이라고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색성공이지 색멸공色滅空²⁾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2) 【성철스님 범어집】, 『백일법문(상)』, 퇴옹 성철, 장경각, 2014년, p.231. “그런데 이 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흔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멸공(斷滅空)이지 중도공(中道空)이 아닙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질인 색(色)이 멸해서 아주 아무것도 없다는 색멸공(色滅空)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근본불교와

일중일체다중일 一中一切多中一

그러면 불수자성수연성 不守自性隨緣성한 그 자체는 어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처처에 공kong해서 원용무애합니다. 그 공이라는 건 쌍용쌍조 雙融 雙照해서 쌍통 雙通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쌍화쌍통 雙和雙通입니다. 쌍화쌍통한 거기에서 보면 일중일체다중일 一中一切多中一이라. 하나 가운데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많은 가운데 하나가 전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많은 가운데 하나가 있고, 하나 가운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즉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하나라. 그렇게 융통무애 融通無碍 다 말입니다.

일즉일체다즉일 一卽一切多卽一

일중일체다중일이 되기 때문에 일즉일체다즉일 一卽一切多卽一이거든. 일이 일체고 일체가 즉 일입니다. 유무有無 즉, 있고 없고, 다소多少 즉, 많다 적다 하는 말들의 그 한계성이 다 무너졌다 말이야. 많은 것이 적은 것이고, 적은 것이 많은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원용무애하다 소리 늘 안 했어?

대승불교는 물론 심지어 선종에 이르기까지 색의 자성이 공하다는 색성공(色性空)을 말합니다. 색 이대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색의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이 본래 공하므로 모든 법은 서로 연기하여 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색의 자성이 공하지 않다면 결코 연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기가 성립되는 것은 반드시 자성공(自性空)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공을 바람과 같다고 비유로써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모양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이란 그 모양을 볼 수는 없지만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미진중함시방—微塵中舍十方

그렇게 나가면 결국 일미진중—微塵中이 함시방舍十方이야.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거기 다 들어앉아 있고, 티끌 하나에 시방세계 전부가 다 있다 말아야.

일체진중역여시—一切塵中亦如是

또, 일체 티끌 가운데 말짱 시방세계가 다 포함이 됐다 이것이야. 근데 이전 스님네는 항상 대해大海 바닷물을 예로 들어 말했어. 대해 바닷물이 그리 많지만, 바닷물을 다 먹어 봐야 바닷물 맛을 다 아는 게 아니야. 바닷물이 어떤지 한 방울만 짚어 먹어 봐도 바닷물 맛을 다 알아. 바닷물을 꼭 다 먹어 봐야 맛을 아는 게 아니야. 그것이 일미진중—微塵中 함시방舍十方, 한 미진 속에 전체가 다 포함되었다는 소리예요. 이전 스님네가 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새는 과학 같은 게 보통 발달한 게 아니야. 저 작년 겨울에 국립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빌리려고 내가 갔거든. 그런데 도서관장이 하는 말이 요새는 기술이 하도 발달되어 어느 정도냐 하면 바늘구멍 하나 뚫을 만한 면적에 국판 200페이지 분량의 글자가 들어간대. 미국 국회도서관에 책이 4천만 권인데 말이지, 4천만 권을 그런 식으로 하면 50페이지 책 한 권에 4천만 권이 다 들어간대. 그렇게까지 발달되어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나중에 찾아볼 때 곤란하다 이것이라. 목록을 못 만든다고 해. 이 이야기는 객담으로 하는 말이지, 여기에 해당되는 소리는 아니야. 卍

바다를 건넌 부처님의 진신사리



주강현_ 해양문명사가

불교의 바다 전파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인도아대륙印度亞大陸에서 스리랑카로의 바닷길이 아닐까 한다. 이 바닷길은 벵골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갠지스문명권역에서 성숙된 불교가 벵골만을 통하여 스리랑카에 당도한 것이다.

불교 전파의 가장 극적인 순간

『바다를 건넌 붓다』를 쓰면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하여 천착하였다. 벵골만 바닷길이야말로 불교 전파의 가장 극적인 여로였다. 스리랑카는 인도아대륙의 바로 아래가 아니라 약간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왼쪽으로는 아라비아해의 영향을 받고, 오른쪽으로는 벵골만 해류와 바람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본디 스리랑카라는 이름은 고대 인도인이 부르던 ‘랑카Lanka’에서 비롯했다. 대서사시 『라마야나』에서도 ‘랑카’를 언급한다. 스리랑카는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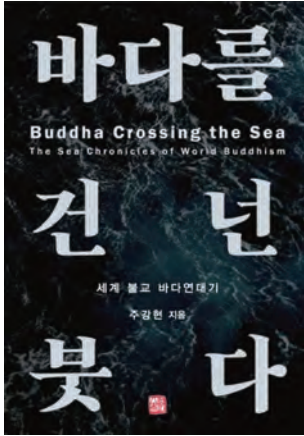


사진 1. 필자의 책 『바다를 건넌 붓다』 표지(소명출판, 2024).

이름으로 불렸다. ‘라트나디파(Ratnadeepa)’는 ‘보석의 섬’이라는 뜻이고, ‘싱할라디파(Shinhaladeepa)’는 ‘싱할라족의 땅’이라는 뜻이다. ‘탐바판니(Thambapanni)’는 ‘스리랑카 해변의 구리 모래’라는 뜻이며, 그 외에 ‘타프로바네(Taprobane)’, ‘실라오(Ceilao)’, ‘실란(Ceylan)’, ‘실론(Ceylon)’ 등으로도 불렸다.¹⁾

인도아대륙 문명이 영향을 끼치기 이전 스리랑카에는 무문자의 토착 원주민 사회가 있었다. 다수를 차지하는 싱할라족은 인도 북부의 아리안족이 내려와서 섬에 살던 선주민과 혼혈을 이룬 결과다. 언어학적으로 인도 북동부 마가다와 벵골만 칼링가 왕국의 언어인 마가히(Magahi)의 영향을 받았으며, 스리랑카에 상좌부불교가 전래하면서 언어의 격식이 갖추어졌다. 인도 남부 타밀어도 싱할라어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16세기부터는 포르투갈어와 네덜란드어, 영어 같은 유럽 언어가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싱할라어는 이런 모든 언어의 혼합물이 됐다.

『마하밤사』가 알려주는 비밀들

스리랑카의 고대 비밀을 비교적 정확히 알려주는 오래된 연대기는 5

1) 주강현, 『해양실크로드문명사』, 바다 위의 정원(2003) 참조. Nimal de Silva, “Literary References: Ports of Historical and Spiritual Contacts,” *Maritime Heritage of Lanka*, The National Trust Sri Lanka, 2013, p.30.



사진 2. 스리랑카 조프나 소재 나가디파Nagadeepa 사원의 탑.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안치되어 있는 탑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Tripadvisor.

세기경 쓰여진 『마하밤사』다. 5세기에 정리되어 기원전의 역사도 어느 정도 충실하게 구전에 바탕을 두고 기록했으며, 현존하지는 않지만 당대에 존재하던 문헌도 아마 고증했을 것이다. 스리랑카의 첫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마하비하라 사원의 승려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마하밤사』는 인도 벵골에서 비자야 왕자가 스리랑카로 온 기원전 543년(스리랑카 최초 왕국 건설)부터 아누라다푸라 왕국의 마하세나Mahasena 왕이 사망한 302년까지 스리랑카 역대 왕의 이야기를 팔리어로 읊은 서사시다.²⁾

2) Von Hinüber, Oskar, *Handbook of Pali Literature*(1st Indian ed.), New Delhi, Munishiram Manoharlal Publishers, 1997, pp.87-93.



사진 3. 캔디 소재 불치사 마당에 있는 꽃으로 장식된 장엄물.

『마하밤사』는 석가모니 붓다의 스리랑카 방문, 스리랑카 왕들의 연대기, 상가(불교 승단)의 역사, 스리랑카의 연대기 등으로 구성된다. 붓다의 스리랑카 방문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과연 그가 스리랑카를 방문했을까. 대체로 『마하밤사』를 만들어 낸 세력들이 싱할라족의 불교와 붓다를 강력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던 차원에서 ‘만들어진 서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붓다의 족적은 모를 일이다. 그가 스리랑카를 정말 방문했는지도 모를 일이라서 『마하밤사』의 실체는 미궁이다.

하여간 연대기는 붓다가 사만타쿠타Samantakuta로 간 다음, 스리랑카 동부 해안의 디가바피Deeghavapi를 방문했다고 전한다. 이후 붓다는 제타바나Jetavana(기원정사)로 돌아왔다. 붓다가 갔던 세 곳 모두 고대의 항구다. 우선 붓다의 머리털을 보관한 탑이 있는 나가디파Nagadeepa는 인도아 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다. 붓다가 방문한 켈라니아도 켈라니강 어귀에 자리 잡아 항구로 기능했다. 고대에 스리랑카의 주요 항구는 모두 강에 의지한 강항이었다.

벵골만을 넘어온 진신 치아

어느 시기에 스리랑카 역사에서, 아니 세계불교사에서 중대 사건이 벌어진다. 중요한 유물이 인도대륙에서 넘어온 것이다. 바로 붓다의 진신 치아다. 『마하밤사』에 따르면 아누라다푸라의 왕 데바남피야티사가 아쇼카에게 네 명의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사절단은 스리랑카 북부의 잠부콜라Jambukola 항구에서 출항한 지 7일 후 갠지스강 하구의 벵골만에 면한 국제항 탐랄립티에 무사히 도착했다. 탐랄립티에서 다시 출발해 7일 후 마우리아 왕국의 수도 파탈리푸트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사절단은 아쇼카왕에게 선물을 바쳤다. 사절단은 다섯 달 후 스리랑카의 북부 잠부콜라 항구로 귀환했다. 귀한 선물을 지참한 사절단은 잠부콜라에서 수도 아누라다푸라로 돌아와서 왕을 알현했다. 마침내 붓다의 진신 치아가 넘어온 것이다.³⁾



사진 4. 부처님의 치아를 모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

잠부콜라는 스리랑카 자프나 북쪽에 위치한 오랜 항구로 인도아대륙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다. 아쇼카왕은 스리랑카에 직접 아들 마힌다를 보냈으며, 마힌다는 아누라다푸라 동쪽의 미힌탈레에서 싱할라 왕국의

3) Nimal de Silva, "Literary References: Ports of Historical and Spiritual Contacts," *Maritime Heritage of Lanka*, The National Trust Sri Lanka, 2013, pp.30~39.



사진 5. 불치사 내부의 모습.

데바남피야티사왕을 만났다. 마힌다가 사용하던 커다란 바위와 당시 승려들의 유적이 남아 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은 아쇼카왕에서 비롯되었다. 아쇼카는 살육이 난무한 칼링가 전쟁 이후 불살생을 실천하는 불교에 의탁하면서 불교를 발전시켰다. 칼링가를 점령함으로써 마우리아 왕조의 영역은 중인도 동쪽 벵골만 방향으로 크게 확대됐다. 『마하밤사』에 따르면 칼링가는 스리랑카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비자야 왕자의 출생지다.⁴⁾ 칼링가의 수도 단타푸라의 ‘단타’는 ‘부처님의 치아’를 뜻하니, 스리랑카 캔디에 자리한 불치사佛齒寺(Tooth Relic Temple)와 단타푸라의 상호 연관성을 암시한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의 진신 치아가 칼링가에 보존됐고, 시리메가반나왕 때 스리랑카로 이양됐다. 즉 이는 오디샤 항구에서 스리랑카로 불교가 전래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남방 무역의 전초 기지로 기능하는 데 불교 전래가 한몫했을 것이다.

4) Thera Mahanama-sthavira, *Mahavamsa: The Great Chronicle of Sri Lanka*, Jain, 1999, p.196.

상좌부불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싱할라

스리랑카는 상좌부불교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일찍이 붓다가 세 번이나 직접 스리랑카를 방문해 설법했다는 주장은 그만큼 스리랑카가 훗날 '불국토의 섬'이 될 것을 예견했다는 뜻이다. 4세기 법현의 『불국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여래께서 이 나라에 오셔서 악룡惡龍을 제도하시고자 신통력으로 한 발은 왕성 북쪽에, 한 발은 산꼭대기를 밟으셨는데, 두 발자국 사이는 15유연이나 된다. 왕은 성 북쪽 발자국 위에 탑을 세웠는데 크기가 40장이나 되며, 금으로 장식하고 여러 보화로써 만들었다. 탑 주변에는 다시 승가람僧伽藍을 만들고 이름을 무외산無畏山



사진 6. 불치사의 한국관.

(Abhayagiri)이라 했는데, 승려 5,000명이 거주했다. 그곳에 불당을 만
들었는데, 금은으로 새기고 여러 보물로 치장했다. 그 안에 높이 2
장 정도 되는 청옥상靑玉像이 있는데, 전신에 칠보가 번쩍이며 위엄
스러운 형상은 엄연하게 보여서 그 모습을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
을 정도다.

진신 치아를 모시고 바다를 건너와 불치사를 조성한 일은 세계 불
교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진신 사리와 달리 진신 치아는 지극히 희소
하기 때문이다. 불치사는 싱할라어로 스리 달라다 말리가와(Sri Dalada
Maligawa)라고 한다. 불치사 정착 이후 불교는 2천여 년간 스리랑카에서
중심 종교로 자리 잡았으며, 스리랑카인에게 불치사는 평생 단 한 번이
라도 순례해야 할 정신적 성소가 되었다.⁵⁾

불치는 왕국의 옥쇄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란을 겪어도 여전히 새
로운 왕국과 함께 이동, 전승돼 왔다. 첫 수도 아누라다푸라에 최초로
불치사가 건립됐으며, 두 번째 수도 폴론나루와Polonnaruwa, 그리고 세 번
째 수도 캔디로 수도가 옮겨가면서 불치사도 함께 옮겨졌다. ‘바다를 건
넌 치아’는 해양을 통한 스리랑카 문명교류의 맥락을 잘 설명해 준다.

법현은 『불국기』에서 스리랑카 불교를 여러 대목으로 나누어 묘사했
다. 특히 자신이 본 불치정사를 기록했다. 법현은 스리랑카의 국왕이 불
법을 돈독하게 믿고 있으며 새로 정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불치는 항상
3월 중에 불치정사에서 나오는데, 행사를 하기 전에 국왕은 큰 코끼리를

5) Gerson da Cunha, J., *MEMOIR on the History of the Tooth-Relic of Ceylon*, Asian Educational Service, Madras, 2001.



사진 7. 캔디 불치사 옆의 세계불교박물관.

장엄하고 한 사람의 말 잘하는 사람에게 왕의 복장을 입혀 코끼리 위에서 북을 치며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했다고 한다. 고대에도 불치사가 불교의 중심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보살은 삼아승지겁三阿僧祇劫에 걸쳐 고행하시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셨다. 나라와 성과 처자식 그리고 자신의 눈조차 빼어서 남에게 보시하시며, 살점을 베어내어 비둘기의 몸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머리를 잘라 보시하시며, 자신의 몸을 굶주린 호랑이에게 내주어 뇌수까지 아끼지 않으셨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중생을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불하시어 세상에서 45년 동안 설법과 교화를 하시어 열반에 드셨도다. 그 이후 1497년⁶⁾ 세상의 눈을 멀게 중생은 긴 근심 속에 있다. 이제부터 10일 후 불치 사리는 정사를 나와 무외산에 이를 것이다. 나라 안의 승속과 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도로를 편안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며 여러 꽃과 향과 공양 기구를 준비할지이다. **古觀**

6) 실제 1497년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못한 당시의 불기佛紀를 뜻한다.

○ **주강현** 해양문명사가. 분과학문의 지적·제도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융합적 연구를 해왔다.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민족학 등에 기반해 바다문명사를 탐구하고 있다. 제주대 석좌교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역사민속학회장,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APOCC) 등을 거쳤다. 『마을로 간 미륵』, 『바다를 건넌 붓다』, 『해양실�크로드 문명사』 등 50여 권의 책을 펴냈으며, 2024 뇌허불교학술상을 수상했다.

서정주라는 시인, 그리고 신라의 내부



김춘식_ 동국대학교 교수

1968년 8월 서정주는 그의 다섯 번째 시집 『동천』을 출간하면서 「시인의 말」이라는 서두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라초』에서 시도하던 것들이 어느 만큼의 진경進境을 얻은 것인지, 하여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의 최선은 다해 온 셈이다. 특히 불교에서 배운 특수한 은유법의 매력에 크게 힘입었음을 여기 고백하여 대성大聖 석가모니께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불교적 은유법

제4시집 『신라초』에서 이미 시작된 그의 모종의 시적 모색이 『동천』을 통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다는 속내가 담긴 이 진술에서 유난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불교에서 배운 특수한 은유법의 매력에 크게 힘입었음을 고백”한다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신라초』와 『동천』에서 그가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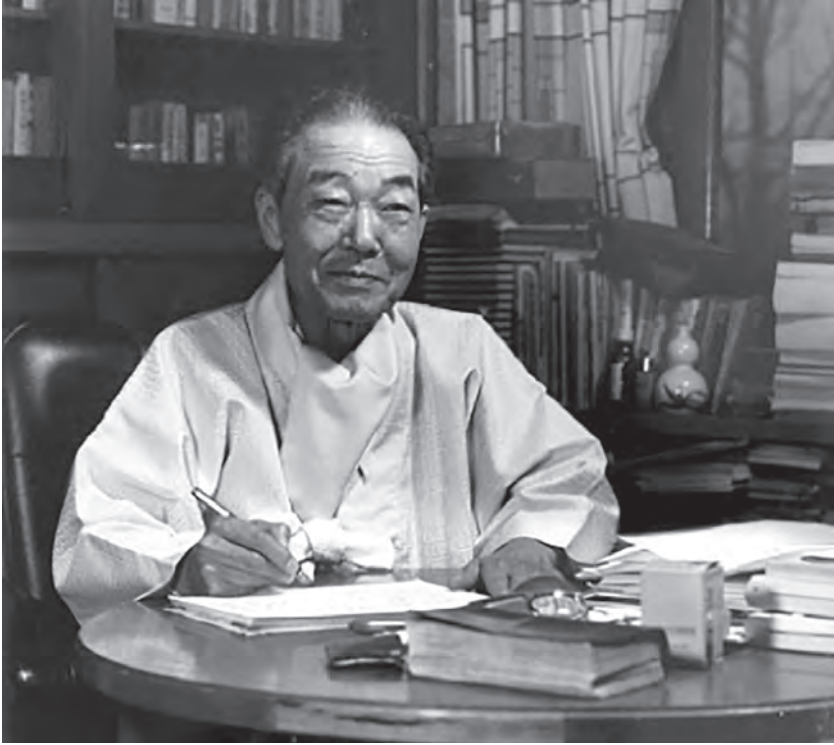


사진 1. 미당 서정주(1915~2000).

했고 일정한 시적 ‘진경’을 이룬 성취의 실체에는 ‘불교적 은유법’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런 진술은 실제로 『신라초』의 「시인의 말」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암시된다.

이 시집의 제1부는 신라의 내부에 대한 약간의 모색 제2부는 그냥 근년 시작_{試作}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것은 썩이라 하여 고래_{古來} 잘 았던 일이지만, 편의상 두어 마디 말씀 하면, 이 시집의 제2부에선 그 소위 ‘인연’이란 것이 중요킨 하였다.

속내를 은근히 감추려고 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 말을 추론해 보면, '신라의 내부', '인연'이라는 두 개의 화두를 『신라초』에서 『동천』에 이르는 시적 '진경進境'의 첫 출발지점으로 보기에 특별한 무리는 없을 듯하다.

서정주 스스로 '진경'이라고 말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초』와 『동천』 두 시집이 발간된 1960년대는 서정주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그 시적 매력과 완성도가 거의 정점에 이르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서정주의 뛰어난 시적 성취의 핵심에는 그가 말한 '불교적 은유법'이 존재하며, 그 시작은 '신라의 내부', 그리고 '인연'이라는 화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서정주가 말하는 '불교적 은유법'이 무엇인지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 실체를 말하기는 실제로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수사학(은유법)'의 형태로 터득되었고 그것이 고스란히 시의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불교의 정신이 '언어도단', '불립문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가 진경을 이룬 시적 성취는 일반적인 언어를 벗어난 '은유'로써만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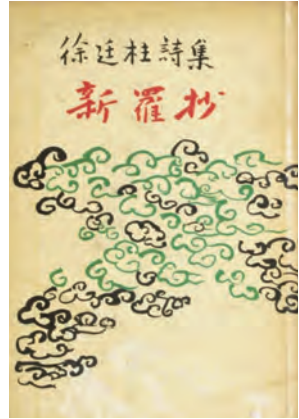


사진 2. 시집 『신라초』 초판본 표지.



사진 3. 시집 『동천』 표지.

‘신라의 내부’, 그리고 ‘인연’인 셈이다. 물론, 그가 말하는 ‘신라의 내부’와 ‘인연’은 오직 그의 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동천』에 이르면 어쨌든, ‘신라’와 ‘인연’이라는 두 개의 시적 화두를 넘어서 그의 은유는 좀 더 포괄적인 사상이나 정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불립문자’라는 관념성과 이미지의 구체성

‘불교’와 ‘시’의 상관성을 얘기하거나, 선사와 시의 깊은 연관성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깨달음’과 ‘시적 깨달음’을 동일시하는 것은 ‘불교와 문학’을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화법에 해당한다. 이처럼 보통의 경우, 문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불교’는 이해와 깨달음의 대상, 언어도단의 진리,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초월적 형이상학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는 한다.

그러나,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것이 과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초월성, 고도의 진리, 형이상학을 깨달음의 핵심으로 가리키는 말일까?

불립문자의 작은 다른 한편으로는 불립문자不離文字이기도 하다. 결국, 문자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진리의 ‘지시 혹은 재현 불가능성(불립문자)’에 대한 ‘대리보충’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나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의미를 관념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즉, 의식과 물질을 여전히 이원적으로 분별하면서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 대한 깊은 지식과 깨달음을 갖춘다고 해도 여전히 ‘불교적 사유’를 시로 형상화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언어의 불완전성이나 재현 불가능성이 ‘언어 자체의 숙명’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시’는 과연 그런 언어의 운명적 굴레를 넘어서 스스로 도약할 수 있을까? 사실, 언어는 ‘무상無常한 것’을 ‘재현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사진 4. 1970년대 초 백련암을 찾아 성철스님을 친견한 후.

는 점에서 ‘초월과 실재’ 그 어느 쪽도 포착하거나 지시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인의 고뇌와 실패의 원인도 주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많은 정신주의 시 혹은 선시적 깨달음을 지향하는 시들이 그 시적 성취 면에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정신 혹은 깨달음’은 과연 재현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포착하고자 하는 ‘진리’가 있다면 과연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무상한 것인가? 언어가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재현한다면 그런 언어가 포착해 낸 것은 무엇인가, 진리인가, 허상인가?

서정주가 『신라초』와 『동천』에서 말한 ‘신라의 내부’나 ‘인연’, ‘불교적 은유법’은 이 점에서 한국시의 특별한 ‘위치’를 구현해 낸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적 은유법’의 핵심은 어쩌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같은 것인데,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없기에 수시로 ‘여기와 저기’가 바뀔 수 있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견 ‘딜레마’나 ‘아이러니’처럼 보이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상像’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진 5. 미당 서정주의 육필원고와 외국어 사전(동국대학교 도서관 미당문고 소장).

모순과 무상성을 포착하는 은유는 기본적으로 ‘우주관’, ‘시간관념’, ‘세계관’의 차원에서 서구적 합리주의와는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서정주의 ‘불교’는 이 점에서 ‘경전’과 ‘교리’의 불교가 아니라 ‘고대’라는 시간, 그리고 ‘신라의 내부’를 살던 ‘사람’에서 출발한 ‘불교’이다. 현대인으로서 이미 상실된 공간, ‘불교’가 삶의 모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상상’한다면 아마도 그런 곳이 ‘신라’가 될 것이다. 서정주가 신라의 ‘설화’와 ‘향가’의 세계에서 발견한 것은 ‘불교적 은유’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동시에 ‘불교와 삶’이 일체가 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구현이기도 한 것이다.

신라의 내부

짐의 무덤은 푸른 영嶺 위의 옥계 제2천.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기고, 비 터 잡는데- 그런 하늘 속.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너무들 인색치 말고
있는 사람은 병약자한테 사랑도 더러 노느고
흠어미 흠아비들도 더러 찾아 위로코,
침성대 위엔 침성대 위엔 그중 실한 사내를 보라.

살의 일로써 살의 일로써 미친 사내에게는
살 닿는 것 중 그중 빛나는 황금 팔찌를 그 가슴 위에,

그래도 그 어지러운 불이 다스려지지 않거든
다스리는 노래는 바다 넘어서 하늘 끝까지.

하지만 사랑이거든
그것이 참말로 사랑이거든
서라벌 천년의 지혜가 가꾼 국법보다도 국법의 불보다도
늘 항상 더 타고 있거라.

짐의 무덤은 푸른 영 위의 옥계 제2천.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기고, 비 터 잡는데- 그런 하늘 속.

내 못 떠난다.

- 「선덕여왕의 말씀」

이 시는 신하들에게 “내가 죽으면 도리천(勿利天)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 이는 경주 낭산(狼山) 남쪽에 있다.”라고 했다는 『삼국유사』의 설화를 기초로 해서 서정주가 쓴 작품이다. “짐은 푸른 영(嶺) 위의 옥계 제2천”에서 옥계 제2천은 바로 ‘도리천’을 가리키는 말인데, 서정주는 도리천이라는 표현 대신 ‘옥계 제2천’이라는 말을 1연 1행과 5연 1행에서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 도리천이 아닌 ‘옥계 제2천’이라고 쓴 이유는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어쩔 수 없이”라는 말과 호응하기 위해서인데, 옥계 제2천은 말 그대로 ‘옥계’에 속하는 세계로서 육체의 욕망과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겨진 세계이다. 서정주의 시에서 ‘피’는 ‘육체의 욕망’을 상징하는 시어

로서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나온다.

선덕여왕이 ‘피 예 있으니’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와 함께 ‘육체의 세계, 욕망의 세계’를 떠날 수 없다는 표현으로서 2연에서는 백성의 병과 배고픔을 구제하고, 또 3연에서는 자신을 짝사랑하던 지귀(志龜)에게 “살 달는 것 중 빛나는 황금 팔찌를 그 가슴 위에” 얻어주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된다.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면서 선덕여왕은 죽어서도 자신이 육계에 머무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까닭은 “어쩔 수 없이”다. 여기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무능력이나 한계를 말한 다기보다는 ‘육체’를 지닌 모든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에 차마 떠날 수 없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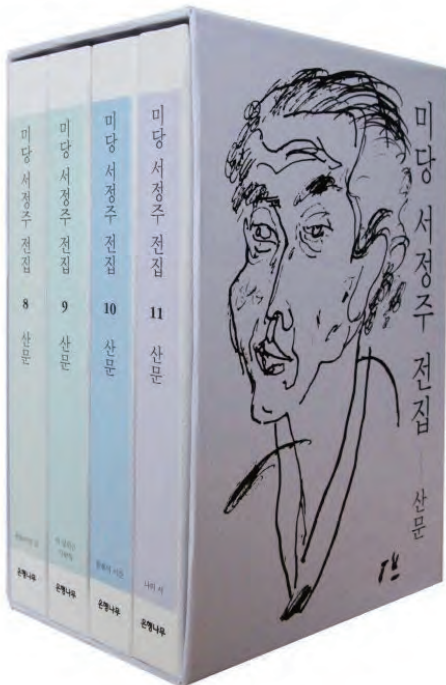


사진 6. 미당 서정주 전집.

서정주는 일찍이 ‘그리스, 로마적인 육체’와 동양적인 ‘정신’의 결합을 지향해 왔는데, 그가 신라에서 발견한 첫 ‘내부’는 바로 이런 ‘육체와 정신’의 자연스러운 결합 상태에 해당된다. 특히 “내 못 떠난다”라는 마지막 구절은 피와 살로써 서로 얽혀 있는 존재들과의 깊은 인연과 그것에 대한 불가항력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못 떠난다’라는 말에 포함된 ‘안 떠난다’라는 강한 의지는 병약자, 홀어미, 홀아비, 살로써 미친 자와의 깊은 얽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신라의 내부’에서 ‘인연’으로 확장되는 그의 시적 방향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서정주의 불교가 ‘정신의 불교’가 아니라 ‘육체의 불교’인 점은 여기서 잘 나타나는데, ‘피 예 있으니’, ‘살의 일로써 미친’, ‘실한 사내’ 등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과 자비, 연민을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불교의 우주관과 설화적 이야기를 엮어서 그는 ‘색과 공’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체를 선택여왕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형상화한다.

서정주가 보고자 하는 ‘신라의 내부’는 이 점에서 설화의 세계이지만, 동시에 불교적 우주관으로 세상을 다시 구성하는 시작점이기도 한 것이다. 설화적이면서 만화경적이고 동시에 상상력의 자유분방한 유희가 가능한 세계, 거기서 발견한 ‘불교의 세계관’은 분명 ‘시적’이고 또 ‘육체적’이다. 卍

○ 김춘식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문학평론가이자 시인. 계간 『시작』 편집위원.

바위에 새긴 미소 1

양현모 사진작가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 높이 7.5m, 보물, 통일신라시대.

이슬람 국가에서 꽃핀 불교



소열녕_ 광운대 글로벌교육센터 부교수

‘말레이시아의 종교’라고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곳곳에 보이는 이슬람 사원과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 등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의 이미지일 것이다. 사실 말레이시아의 공식 종교가 이슬람교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11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종교 인구
(2020년 인구조사)

총인구: 3,244만 7,385명

이슬람교:	63.5%
불교:	18.7%
기독교(개신교 및 천주교):	9.1%
힌두교:	6.1%
기타 종교:	0.9%
무종교:	1.8%

출처: 말레이시아 통계청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말레이시아의 불교는 다른 종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국 초부터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1975년에야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1962년에(당시 국호는 ‘말라야’) 이미 부처님의 탄생, 성도와 열반을 기념하는 웨삭데이



사진 1. 말레이시아 크다 주에서 발견된 불상(8~9세 추정). 사진: BERNAMA.

(Wesak Day)를 전국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는 불교가 이슬람 다음에 신자 수가 제일 많은 종교라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다.

말레이시아 불교의 양대 산맥: 상좌부 불교와 중국식 북방 불교

2024년 여름,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Universiti Sains Malaysia)의 고고학 연구팀이 크다(Kedah) 주에서 발견한 불상을 공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불상은 8~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불교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교가 전래되면서 불교의 맥이 거의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의 말레이시아 불교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중국식 북방 불교는 화교들에 의해 전파됐고, 남방의 상좌부 불교는 스



사진 2. 담마난다(Dr. K. Sri Dhammananda, 1919~2006). 사진: Nalanda Buddhist Society Malaysia.



사진 3.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실종 당시, 상좌부 불교 스님과 북방 불교 스님들이 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실종자들을 위한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고 있다. 사진: 불광산사 인간통신.

리랑카, 태국과 미얀마 이민자들에 의해 전래됐다. 포교하러 온 스님들 역시 이민자였다. 중국에서 온 스님 중 축마(竺摩) 스님, 광여(廣餘) 스님과 금명(金明) 스님이 유명했고, 스리랑카 출신 스님 중 2006년에 입적하신 스리 담마난다(K. Sri Dhammananda) 스님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승 보살도를 실천하는 북방 불교는 중국계 사회에 전파됐고 그 신도들은 주로 중국어(또는 중국어 방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상좌부 불교는 크게 스리랑카, 태국과 미얀마 세 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스리랑카 계통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 초기에는 상좌부 불교의 신자들은 주로 영어를 모어로 하는 중국계와 인도·스리랑카계였지만 나중에 중국어 방언과 표준 중국어로 설법하는 스님이 많아지면서 포교의 범위도 점점 확대됐다.



사진 4. 웨삭데이 제등행렬에 등장한 말레이시아불교총연합회의 장엄등. 사진: 光華日報.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가 공존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소승불교'라는 말은 거의 들을 수 없다. 영어로 대화할 때 'Hinayana'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산스크리트어 'hīna'는 말레이어에도 차용됐는데 '작다'가 아닌 '천하다'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식 북방 불교 사찰에서는 항상 신도들에게 상좌부 불교를 '남전불교南傳佛教', 즉 남방 불교라고 부르도록 가르친다.

두 전통의 불교는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친 덕에 불교가 다민족·다문화 사회인 말레이시아에서 일찍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웨삭데이의 공휴일 지정도 북방 불교와 상좌부 불교 교단이 함께 이룩한 성과이다. 나중에 티베트 불교까지 들어와서 남방·북방·티베트 3대 전통이 말레이시아 불교를 대표하게 됐다. 해마다 봉행하는 전국 또는 국제 공승법회供僧法會에서는 각 전통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

이나 가사 공양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종교 인사들이 참석하는 국가 중요 행사에서도 각 전통의 가사를 수한 스님들이 함께 참석한다.

전국적 불교조직 말레이시아불교총연합회

다양한 전통의 불교도들을 하나로 뚝뚝 뭉치게 한 것은 체계적인 조직들이다. 그중에서 전국의 출·재가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바로 1957년에 창립된 말레이시아불교총연합회(Malaysian Buddhist Association, 馬來西亞佛教總會)이다. 페낭Penang 주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성격이 다르다. 말레이시아불교총연합회의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평생회원으로 나뉜다. 사암과 신행 단체는 물론 불교 재단이 설립한 학교도 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의 출·재가자들은 개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비구와 비구니 개인 회원은 승가증僧伽證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진 5. 말레이시아불교총연합회. 사진: 말레이시아불교총회.

말레이시아불교총연합회는 대내적으로 다양한 전통과 종파의 출·재가자들을 단합시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실천하며, 대외적으로는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산하 기관으로는 1970년에 설립한 말레이시아불학원(Malaysian Buddhist Institute, 馬來西亞佛學院), 말레이시아불학교시위원회, 의료센터(무료), 유치원, 청소년 담마스쿨 등이 있다. 또한 불교계 대표로서 기독교(천주와 개신교 포함), 힌두교, 시크교, 도교 단체와 함께 5대종교자문협의회(Malaysian Consultative Council of Buddhism, Christianity, Hinduism, Sikhism and Taoism)를 창립해 비非 이슬람교와 관련된 종교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교섭해 왔다.

이 단체는 출·재가자를 모두 포함한 조직이지만 요직은 주로 스님들이 맡는다. 불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항상 스님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곤 한다. 예를 들어 1982년에 배우 이연걸이 주연한 영화 '소림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상영되기 전 말레이시아불교총연합회가 영화심의청에 서한을 보내 극중에서 출가자가 육식·음주·살생하는 장면을 모두 삭제



사진 6. 말레이시아불학원. 사진: 말레이시아불학원.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영화심의청에서 요구된 내용보다 더 많은 분량을 삭제했다. 한국의 '뉴진스님'이 공연하러 갔을 때 역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젊은 재가불교

출가자 외에 재가불자도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청년 불자들은 포교의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불교는 오래전부터 청소년을 중요시하는 포교를 실천해 왔다. 스리랑카 사찰에서 먼저 도입한 일요일 청소년 법회(담마스쿨)는 나중에 중국식 사찰에 확산되어 거의 전국 사찰의 상설 법회가 됐다. 이런 청소년 포교를 지원하기 위해 불교총연합회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청소년용 불교 교과서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중국계 불자를 주축으로 한 불교학생회 역시 매우 다양한 활동으로 동년배에게 불법을 전해 왔다. 그중에서 불교 음악을 이용한 포교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말레이시아의 찬불가는 음대 교수나 성악가가 아닌 청년 불자에 의해 많이 창작된다. 그렇다고 힙합이나 락 같은 장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이 찬불가들은 주로 통기타나 피아노로 연주하기에 적합한 서정적 편곡으로 되어 있다. 1961



사진 7. 국립말라야대학교 불교학생회에서 2006년에 제작·발표한 창작 찬불가 앨범 '법음청류'.

년에 창립된 국립말라야대학교(University of Malaya) 불교학생회에서 창립 45주년을 맞아 2006년에 제작·발표한 창작 찬불가 앨범 ‘법음청류法音清流’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 ‘이미 우이(I mee Ooi)’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불교 음악가 황혜음黃慧音이 창작한 작품 역시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음악 장르에 속한다.

한편, 대만 법고산 성엄聖嚴 선사의 선맥을 이은 계정繼程 스님이 1990년대 중반에 창설한 ‘전국 대학생 불학 연수반’은 수많은 대학생을 불교에 입문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간 사찰에 머물면서 경전 공부와 참선을 하는 것인데 수십 년 동안 대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대학 불자들은 나중에 각 사찰이나 신행 단체에서 활발하게 포교하거나 출가한다. 대만의 자제공덕회가 말레이시아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성운星雲 스님이 창건한 불광산사의 출가자 중 말레이시아 출신 젊은 스님들이 많은 것도 모두 말레이시아 불교계가 그동안 청소년 포교에 심혈을 기울인 덕분이다.

개그맨 뉴진스님 공연 취소

말레이시아 불교는 한국과 달리 ‘불교 인구 감소’나 ‘교세 위축’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이웃 종교와도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지내 왔다. 대신 ‘부불외도附佛外道(불교에 빌붙은 외도)’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는 앞으로도 직면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특히 중국식 북방 불교에서는 유교와 도교의 요소가 녹아든 불교신행 활동에 대해 관대하면서도, 전통적인 상좌부·북방 불교·티베트 불교의 전승에 속하지 않는 신흥 종파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불교의 교리를 왜곡하거나 출가자의 이



사진 8. 대한불교조계종의 초청으로 2015년 세계평화기원대회에 참석한 말레이시아불교총연합회 스님들. 사진: 필자.

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뉴진 스님’의 말레이시아 공연 취소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젊은 불자 중 ‘뉴진 스님’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뉴진 스님’의 공연이 흥미롭고 멋지며 불교 교리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공연을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막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포교 음악’이 외부에서 계속 유입될 텐데 말레이시아 불교계에서도 대응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파사破邪’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유연한 자세로 청소년 포교에 전력을 다하다 보면 저절로 ‘현정顯正’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古鏡

○ 소열녕 말레이시아 페낭 출생. 국립말라야대학교 중문과 졸업.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국어학 전공). 광운대 글로벌교육센터 부교수. 주요 논문으로 「인두」 어원 연구, 「어원에 입각한 한자어 판별 기준」, 「다국적 학습자를 위한 LBH 한자어 학습교수법」 등이 있다.

신플라톤주의 창시자 플로티노스



오강남_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

『고경』의 제안으로 이번 한 해 동안 세계종교에서 심층 종교의 길을 밝혀준 영적 지도자들을 선별하여 살펴보고려고 합니다. 붓다, 예수, 무함마드 같은 창시자를 제외하고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교사적으로 중요한 이들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신플라톤주의 창시자 플로티노스입니다.

플로티노스는 누구?

오늘은 서양 영성 전통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205~270)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일반적으로 플라톤 사상의 계승자로서 이른바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의 창시자라 불립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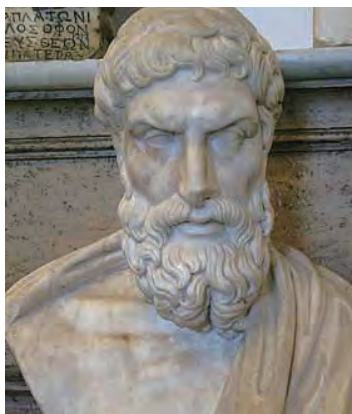


사진 1. 플로티노스(205~270).



사진 2.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소재 로마시대의 극장 유적. 사진: 나무위키.



다. 사실 그는 플라톤의 사상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스토아학파의 사상에서도 영향을 받고 이런 사상들을 자기의 종교적 통찰을 통해 종합하려고 노력한 사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플로티노스가 이집트 북쪽에서 그리스인(희랍인)이라기보다 그리스화한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났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이나 어린 시절, 태어난 장소, 날짜 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가 그리스어를 구사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을 그리스어 어법에 맞게 플로티노스Plotinos라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라틴어 어법에 맞게 플로티누스Plotinus라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라틴어식을 채택해서 '플로타이너스'라 발음하지만 여기서는 관례에 따라 그리스 이름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플로티노스는 28세에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플라톤 철학을 가르치던 스승으로부터 11년간 플라톤 사상에 몰두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페르시아와 인도의 지혜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 위해 로마 황제 고르디아누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원정군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원정이 실패하고 황제마저 살해되자 그는 폐잔병 신세로 안티옥에 갔다가 이어서 로마로 갔습니다. 39세 때였습니다.

로마에서 철학학교를 설립하여 고관대작들을 포함하여 많은 제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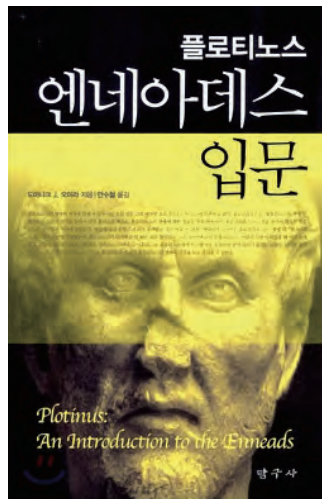


사진 3. 플로티노스의 책 『플로티노스 엔네아데스 입문』(탐구사, 2009년).

가르치고, 10여 년 후부터 단편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제자 포르피리오스Porphryos가 이 글들을 모아 6부작의 책으로 펴냈는데, 각 부가 9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9편'이라는 뜻의 『엔네아데스Enneades』라는 이름의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는 『구론집』이라고 합니다. 말년에는 시실리에 가서 66세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서양 신비주의 전통에서 플로티노스의 위치는 실로 괄목할 만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사상을 건설한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와 6세기 위궤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에게 크게 영향을 주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영성 전통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인물 중에서 플로티노스만큼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세기에 이르러 고전 그리스 사상이 부흥하면서 그의 생각은 개신교 신비주의자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이슬람의 수피 신비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므로, 플로티노스는 가히 서양 신비주의 사상의 원조라 불리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일랜드의 예이츠, 미국의 에머슨을 포함한 많은 시인,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출론과 세 가지 실체들

플로티노스 사상의 근간은 이른바 유출론流出論(emanation theory)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통합체로서의 절대적 실재가 있고, 그 속에 서로 독특하면서도 분리되지 않은 세 가지 신적 실재들Hypostases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리스어로 각각 헨to Hen, 누스Nous, 프시케Psyche라 합니다.

절대, 최고, 근원으로서의 궁극 실재 내에서 제1의 위치에 해당하는 ‘헨’을 영어로는 ‘the One’이라 옮기고, 한국에서는 보통 일자一者라고 하는데, 순수 우리말로 옮기면 물론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자’는 모든 존재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있다’, ‘없다’ 혹은 ‘크다’, ‘작다’라고 하는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범주나 개념, 생각이나 이론 등에서 벗어난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체의 분별지(分別智)를 거부하는 불교의 공(空)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노자의 도(道)를 연상케 합니다. 이 일자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실재로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흘러나오는 시원이기도 하고 또 모든 존재들이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가야 할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렇게 모든 존재의 초월적 근원이라고 하여 모든 존재 밖에 따로 독립되거나 분리된 실재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자는 만물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물 중에 내재하기도 합니다. 절대자를 초월이나 내재냐로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월이면서 동시에 내재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초월도 되고 내재도 된다고 보는 입장을 일반적으로 ‘범재신론’이라 합니다.

아무튼 이 제1의 실재인 일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제2의 실재인 ‘누스’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Intellect’, ‘Intelligence’, ‘Mind’, ‘Spirit’ 혹은 ‘Intellectual Principle’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정신’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쓰는 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심一心’ 혹은 ‘한마음’이라 해서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하여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일자가 독자적으로 어디에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생겨났다는 뜻이 아닙니

다. 마치 불과 열, 태양과 빛, 향수와 향기의 관계처럼 둘은 하나도 아니지만 또 완전히 둘도 아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유학에서 이理와 기氣를 두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 선후先後를 따질 수 없다고 하는 주장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누스는 '존재의 위계(the hierarchy of being)'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존재인 하나의 영역에 속하지만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의미에서 존재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하나와 동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 중 최고의 실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성서 중 『요한복음』 1장 서두에 “태초에 ‘로고스 Logos(理法)’가 있었다. … 모든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것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때 그 로고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누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제3의 실재를 프시케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Soul’, 우리말로는 ‘영혼’이라 번역합니다. 누스와 현상세계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 영혼에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영혼과 개인적인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영혼은 모든 것에 분산되어 사람을 비롯하여 동식물 등 물질세계의 모양을 형성하고 그 활동을 관장합니다.

개인적 영혼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최하의 형태는 동물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의 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중간 형태의 영혼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특히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 지어주는 것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영혼은 자기의 개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누스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인간적 형태의 영혼입니다. 이런 최고 형태의 초개인적 영혼은 우주적 한마음과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플로티노스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이 둘

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이라고 합니다.

유출의 역류

플로티노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출流出을 반대 반향으로 역류逆流시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최하질의 영혼에 얽매이지 않고 제2의 이성적 영혼을 정화하므로, 최고 형태의 영혼이 우리를 관장하게 하여 영혼이 다시 누스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더 나아가 일자 혹은 하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시 최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歸鄉입니다. 나의 근원, 나의 참나를 찾는 것, 반본환원返本還源인 셈입니다.

플로티노스는 제2의 영혼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예술(음악)과 사랑과 깨침을 강조합니다. 음악이나 사랑을 통해 영혼이 일자와 하나로 녹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길은 깨침 혹은 철학의 길을 통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에 따라 나의 근원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영혼이 다양성의 세계에서 초월의 세계로 심화深化될 때 자의식自意識은 사라지고 신의 의식에 몰입되어 ‘하나됨henesis’의 ‘황홀경ecstasy’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플로티노스 자신은 철학 혹은 깨침의 길을 통해 제자가 아는 한 네 번 이런 경지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유출론과 동양사상

플로티노스의 유출론과 똑같지는 않지만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제42장에 “도道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도덕경』의 중심사상 중 하나가 만물이 도道로 다시 ‘돌아감’이라 보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제32장에 “세상이 도道로 돌아감은 마치 개천과 계곡의 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고 같다.”고 하고, 또 제40장에서는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4. 나카무라 하지메.

플로티노스가 인도사상, 특히 불교사상, 그중에서도 특히 일중다—中多 다중일多中— 혹은 상즉相即·상입相入의 관계를 강조하는 화엄사상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는 일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동경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던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교수가 1970년대 중반 필자가 재학하던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교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그 당시 버팔로 뉴욕대학에 와있던 그를 필자가 차로 가서 모시고 오는 도중 그 사실을 재확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양쪽 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작업도 흥미 있고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비교 연구를 통해 동서양 신비주의적 심층사상의 접촉점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한글

○ 오강남 서울대 종교학 석사, 캐나다 맥매스터대에서 ‘화엄법계연기에 대한 연구’로 Ph.D. 학위 취득. 저서로는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세계종교 둘러보기』,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나를 찾아가는 심우도 여행』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등이 있다. 현재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종교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부뚜막에 자리한 치병治病의 신



구미래_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조왕신竈王神은 공양간의 부뚜막 위에 작은 모습으로 자리한다. 따라서 눈에 잘 띄지 않고 소홀하기 쉬운 신중神衆의 한 분이다. 그러나 새벽에 후원 소임이 공양간에 나오면 맨 먼저 조왕단에 불을 밝히고 청수를 갈아주며, 모든 음식이 무탈하게 수행의 밑거름이 되길 합장배례로 기도한다. 선달그믐이면 공양물을 차려놓고, 대중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에게 조왕기도를 올리고 있어 감동을 준다.

화엄신중으로 자리한 조왕신

우리나라 사찰의 공양간에는 조왕신을 모시지 않은 곳이 드물다. 조왕신은 동북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섬기는 신으로, 불을 다루며 부엌을 지킨다고 여겨 주로 부뚜막 근처에 모신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삼한 사람들은 집의 서쪽인 부엌에 조신竈神을 모신다.” 하여 우리나라에 이른 시기부터 조왕신앙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방자각을 모시는
불교입니다.
출입금지 안내요.
☐ 방자각의 주인

사진 1. 봉은사 공양간에 모신 조왕신.



사진 2. 해인사 대적광전의 104위 신중도. 사진: 성보문화재연구원.

그렇다면 민간의 조왕신이 어떠한 근거로 사찰 공양간에 좌정하게 되었는지,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부터 그 내력을 추적해 보자. 『화엄경』 세주묘엄품 世主妙嚴品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보리수 아래 머물며 지상과 천상의 일곱 장소에서 아홉 차례 『화엄경』을 설한 7처 9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당시 법석에는 수많은 보살과 함께, 39위의 인도 신들이 운집해 설법을 듣고 크게 깨달아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불법을 수호하리라 서원을 세운 이들 토속신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 '39위 화엄신중'으로 수용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중생의 마음을 껴안아, 그들이 신앙하는 토속신을 배척하지 않고 호법신신으로 포용한 데서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를 읽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중신앙이 성행하여, 18세기 무렵이면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따라 중국·한국의 토속신을 수용해 39위에서 104위 화엄신중으로 확장되었다. 이때 부역을 맡은 조왕신을 비롯해, 집안의 으뜸인 성주신城主神, 우물을 다루는 정신井神, 방아 일을 다루는 대에신碓磨神, 변소를 맡은 축신廁神 등 집의 곳곳을 지키는 가신家神이 대거 유입된 것이다.

특히 조왕신은 집의 각 영역을 지키는 다른 가신에 비해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나라에서 백성을 위해 지내는 칠사七祀의 대상이었던가 하면 유학자들도 특별한 때에 조왕에게 제를 지냈고, 1635년에 소요태능·벽암각성 등 대선사들이 『불설조왕경』·『불설환희조왕경』을 간행한 점으로 보아 불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조왕신이 불을 다루고 부역을 지키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상징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4세기 도교의 『포박자抱朴子』 등에 “매달 그믐밤 조왕신이 상제上帝에게 죄를 고해, 죄가 큰 자는 3백 일의 수명을 감하고 가벼운 자는 3일을 감한다.”고 하였다.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인간을 지켜 보다가, 주기적으로 하늘에 선악을 아뢰어 권선징악 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조왕신은 104위 화엄신중의 한 분이자 특별한 위상을 지녀, 독립된 신앙대상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양간을 수호

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선약의 감시자로서 이중의 소임을 지닌 채 전승된 점은 화염신중이 지닌 보편적 특징이기도 하다. 외부의 삿됨으로부터 지켜주는 한편, 스스로 내면의 삼독도 끊임없이 점검할 것을 깨우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과 치병을 위한 기도

부엌에 머물며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성으로 인해 조왕신은 점차 치병(治病)의 능력까지 지니게 된다. 병 없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데서 출발하여, 병이 생겼을 때 이를 낫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담게 된 것이다. 이는 ‘음식이 곧 약’이라 하여, 병의 원인도 치료도 음식에 있다고 보는 식약동원(食藥同源)의 관점이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가정에서 신을 섬기는 건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가 고작이어서, 이것이 무속이 성행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토지신과 조왕신을 섬기는 일이 예서(禮書)에 수록돼 있어 옛 선비들도 이를 행했으니, 만약 정성을 다해 이를 행한다면 무속을 금할 수도 있을 법하다. 따라서 질병이나 우환이 있을 때 사당에서 기도드리거나 이들 두 신에게 빌어도 좋을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이식(李植)의 문집에 수록된 글이다. 예로부터 유가(儒家)에서 토지신과 조왕신을 섬겼으니, 가정의 질병이나 우환에 이들 신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질병과 우환이 있을 때 안택곳·치병곳 등이 성행하니, 이러한 무속의 처방을 막고 두 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



사진 3. 운문사 공양간에 모신 조왕신.



사진 4. 통도사 공양간에 모신 조왕신.

다. 오늘날 민간에 거의 사라져 간 부엌신·부뚜막신이 지닌 당시의 신격을 가늠해 보게 한다.

이러한 치병의 기능은 사찰에서도 적용되었다. 흥원사 동주원명 스님은, “예전에는 신도들이 아프면 조왕불공을 많이 올렸다. 구병시식救病施食 때도 신중님은 물론, 조왕님께 기도하고 나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병이 났을 때 신도들은 병원 치료와 함께 조왕신에게 치병기도를 올렸고, 본격적인 의례로 구병시식을 치를 때도 조왕기도가 함께 했다는 것이다.

구병시식은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을 때, 그 까닭이 이승을 떠도는 영가에 있다고 보아 불교의 가르침으로 영가를 천도하는 의례를 말한다. 청룡사 진홍스님은 불교의례에 밝은 윤희스님의 제자로, 출가 당시인 1960년대부터 구병시식을 할 때 반드시 관음기도와 조왕기도

를 먼저 올렸던 은사의 법식을 이어가고 있다.

늦은 오후에 두 스님이 법당과 공양간에서 각각 관음기도·조왕기도를 동시에 올리고, 이어 모든 대중이 공양간에 모여 재자齋者 축원에 동참하였다. 기도를 마치면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강당에서 구병시식을 하는 것이다. 신촌 봉원사 구해스님도 “예전엔 구병시식 때 관음보살께 축원하고 조왕불공을 올리기도 했다.”고 회상하였다.

이처럼 관음보살과 조왕신이 조합을 이룬 점 또한 합리적이다. 관음보살은 천수천안千手千眼을 지녀 중생의 고통을 낱낱이 살피고 아픔을 치유해 주는 대자비의 상징으로, 구병시식에서도 증명보살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관음보살의 대자비’와 ‘조왕신의 생명력’이 함께한 기도의 힘은 참으로 컸을 듯하다.

그런가 하면 백양사·선암사 등 호남지역 사찰에서는 공양간의 부뚜막 위로 천을 기다랗게 쳐 두는 풍습이 있었다. 천장은 그을음과 먼지가 많이 붙고 청소가 힘들니, 부처님의 마지와 음식에 그을음이 떨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목으로 막을 쳐 두었다가 주기적으로 갈아주었는데, 신도들은 이 천을 ‘조왕보籠王襖’라 불렀다. 부뚜막을 보호하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니 조왕신도 흡족해할 명칭일 듯하다.

조왕보는 일 년에 한 번, 조왕불공을 올리는 연말이나 초파일에 새 광목으로 교체하곤 하였다. 이처럼 청결과 위생을 목적으로 한 광목에 ‘조왕’의 명칭이 붙으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민간에 ‘보를 쓰고 나오면 보를 해 준다’는 속신俗信이 있어, 아기가 태어날 때 머리에 막을 쓰고 나왔으니 조왕보를 갈아주고 불공을 올리면 자식이 병 없이 무탈하게 크다고 여겼다. 아기를 보호하는 양수의 막을 ‘보를 쓰고 나온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아기의 병치레가 잦으면 선달그믐·초파일 등에 자식의 이름으로 불공을 올리며 조왕보를 갈아주었다. 가정에서 주부가 조왕신을 섬기며 아이들과 가족의 평안을 빌었듯이, 조왕신이 질병과 재액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해 주는 존재라 여겨 생겨난 민속이다.

그림과 의식문에 담긴 조왕신의 치유력

민가에서는 대개 물을 담은 작은 종발로 조왕신을 나타내는 데 비해, 사찰 공양간에 모신 조왕신은 사실적인 탱화로 그려진다. 그림 속에 표현된 모습은 조왕신에 대한 인식과 바람을 담게 마련이다. 이에 왕이나 관리·무장으로 그려 조왕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한편, 문서나 독특한 지물持物을 든 모습이 특징으로 드러난다.

홍은동 백련사에는 1899년경 제작된 조왕탱龕王幀 2점이 약사전과 공양간에 각각 걸려 있다. 공양간의 조왕탱은 영친왕을 낳은 순현황귀비



사진 5. 백련사 약사전 조왕탱에서 오행통을 든 조왕신.



사진 6. 백련사 공양간 조왕탱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조왕신.

엄씨를 위해 조성한 것으로, 조왕신이 들고 있는 문서에는 ‘소원 지닌 이들이 정성으로 축원하면 병과 재앙 사라지고 많은 복록 내려주네[人間有願來誠祝 除病消災降福多]’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건강과 장수를 조성 목적으로 밝힌 방기 ‘태평인수무량太平仁壽無量’은 그림 속 문서 글귀의 의미와 일치한다. 두 점의 조왕탱이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는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과 ‘공양간’에 나란히 모셔진 점도 이러한 치병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약사전에 모신 조왕탱은 오방색의 나뭇조각 5개가 담긴 ‘오행통’을 손에 든 모습이다. 오행통은 조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물로, 동양에서는 우주의 다섯 가지 기운인 목·화·토·금·수 오행五行이 조화로우면 샅된 기운을 막고 무병장수한다는 관념이 있다. 이에 오방주머니·오곡·오방기 등 오행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 오방색을 의식주 전반에



사진 7. 진관사 선달그림에 올리는 조왕기도.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 따라서 조왕신이 들고 있는 오행통 또한 이러한 상징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산 진관사에서선 선달그믐 오후에 커다란 가마솥이 있는 전통 공양간에서 조왕기도를 올린다. 이때 부뚜막에 갖가지 공양물을 차리면서, 쌀·보리·수수·팥·콩·조 등 오곡을 쪄서 찜어 시루에 찐 조왕편을 빠뜨리지 않고 올리는 전통이 있다. 부엌의 신에게 오곡을 바쳐 오행의 조화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이 떡은 고루 나누고 몸이 아픈 이가 있으면 약으로 챙겨 보내니, 조왕신의 치유력이 떡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는 셈이다.

『불설조왕경』·『불설환희조왕경』에는 조왕신이 “경사를 만나게 하고, 악귀와 백 가지 병을 물리치는 신”이라 하였다. 조왕신을 청해 모시는 『작법귀감』 「조왕청(竈王講)」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사진 8. 진관사 조왕기도에 올리는 조왕편.

… 위엄있는 광명이 자재로워 안팎을 길하고 융성하게 하며, 걸림
돌을 벗어나 편히 머물게 하며, 온갖 질병을 모두 없애 주며, 선악
을 분명히 가려내며, 들고남에 자재하고 한 곳에만 늘 머물며 집안
을 보호하는 조왕신….

온갖 질병을 없애 주는 능력과 함께 ‘공양간에만 머물면서 들고남에
자재’하다 하여, 선악을 가리고자 주기적으로 하늘에 오르내리는 조왕신
의 특성을 담았다. 따라서 그림 속에는 한 손에 붓을 잡고 문서에 무언
가를 적으려는 조왕신의 모습이 즐겨 표현된다. 인간의 선악을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스님들은 이러한 ‘선악의 감시’에 대해 출가수행자
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의미로 새긴다.

공양간에서 만드는 모든 음식은 깨달음을 향한 출가자들의 수행에
밑거름으로 작용하니, 부처님께 올릴 마지를 짓고 출가자들의 생명을 이
어가게 하는 공양간은 더없이 신성한 영역이다. 따라서 눈에 띄지 않는
후원에 작은 모습으로 자리하여 많은 이들이 그 존재조차 모른다 해도,
스님들은 이곳을 지키는 조왕신의 상징성을 소중히 여긴다. 사부대중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데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고 재
앙을 막는 적극적 의미까지 수용하여 정성껏 기도 올리는 것이다. 卍

○ **구미레**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박사(불교민속 전공),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조
계종 성정보존위원. 주요 저서로 『공양간의 수행자들: 사찰 후원의 문화사』,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삼
화사 수륙제』,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제』 등이 있다.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펴낸
성철대종사의 법어집

쉬운 말로 만나는 성철스님의 가르침

자기를 바로 봅시다
퇴옹성철 | 15,000원

영원한 자유
퇴옹성철 | 13,000원

영원한 자유의 길
퇴옹성철 | 6,000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퇴옹성철 | 6,000원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퇴옹성철 | 6,000원

성철스님 화두 참선법
원택스님 엮음 | 12,000원

이뭐꼬
퇴옹성철 | 6,000원

선과 불교사상의 정수를 밝힌 성철스님의 법어집

백일법문(상·중·하)
퇴옹성철 | 각 권 15,000원

성철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퇴옹성철 | 15,000원

성철스님 평석 선문정로
퇴옹성철 | 15,000원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본지풍광 설화)
퇴옹성철 | 38,000원

성철스님의 임제록 평석
퇴옹성철 평석, 원택스님 정리 | 25,000원

성철스님의 신심명 · 증도가 강설
퇴옹성철 | 15,000원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퇴옹성철 | 13,000원

성철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책

성철스님 시봉 이야기
원택스님 | 18,000원

성철스님과 나
원택스님 | 9,000원

성철스님의 짧지만 큰 가르침
원택스님 엮음 | 5,000원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 오르네
원택스님 책임편집 | 13,000원

정독 선문정로
강경구 | 42,000원

성철스님과 아비라기도
장성욱 | 13,000원

싹다르타 태자가 네 개의 성문을 드나들다



김선희_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불전고사화佛典故事畫>는 중국 고대의 종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군사, 교통, 지리, 민족 관계 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서사미술의 전통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던 중국에서는 불교가 수용되면서 <불전고사화>의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불교와 관련된 전통적인 설화가 중국인들의 생활과 연관된 이야기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왕궁을 떠나 수행의 길에 들어서다

장경동에서 출토된 <불전고사화: 이별, 삭발, 수행> 작품은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사진 1>은 비단 바탕에 그린 두루마리 형식으로, 산수와 인물이 채색화로 그려졌다. <불전고사화>의 내용은 싹다르타 태자가 사대문을 지나며, 노인, 병자, 죽음 그리고 수행자를 만나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마침내 궁궐을 떠나 수행의 길을 걷게 되는 이



사진 1. 불전고사화 '이별 삭발 수행'(유물번호: Steinpainting 97 Ch.Iv.0012), 세로 58,5×가로 18,5cm, 견본 채색, 대영박물관 소장. 사진: britishmuseum.org.



사진 2. 불전고사화 중 이별을 그린 상단 부분도.

야기를 묘사한 것이다. 수행자의 길은 가족과 세속을 내려놓고, 사랑과 욕정을 끊으며,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29세에 궁궐을 떠나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사진 2〉의 화면 윗부분은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로 한 싯다르타 태자가 29세 되던 해 2월 8일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아버지 정반왕도 모르게 찬타카Chandaka(혹은 찬나)와 함께 왕국을 빠져나온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계곡에 도착한 태자는 말에서 내려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찬타카에 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목걸이를 부왕에게 전하거라. 그리고 싯다르타는 죽은 것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는 한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위 같은 세속의 욕망은 털끝



사진 3. 불전고사화 중 석발을 그린 중단 부분도.

만큼도 없다. 다만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길을 걷는다고 말씀드려라.”

이 길이 태자의 출가임을 알아차린 찬타카는 무릎을 꿇고 함께 머물며 시봉하기를 간청한다. 그림 속의 태자는 바위 위에 앉아 마부 찬타카와 붉은 갈기의 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찬타카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한쪽 다리를 꿇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백마는 앞발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이때 태자는 담갈색의 소매가 넓은 수포袖袍와 흰 중단中單을 입고 있으며, 찬타카는 담홍색 동근 소매의 장포長袍를 입고 있으며, 모두 한漢나라 시대의 복식服飾이다.

세속의 집착을 버리고 삭발하다

〈사진 3〉은 화면 중단 두 번째 단락 부분에 해당한다. 싯다르타 태자가 세속적인 집착을 버리기 위해 머리를 깎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경전에서는 “태자는 애착과 고뇌의 뿌리인 머리를 깎고 싶었지만 깎을 도구도 없었다. 이때 제석천이 칼을 들고 오니 천신이 받아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림에는 태자가 옷깃을 교차해서 여미는 연한 갈색 긴 소매의 장포를 입고 바위 위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제석천은 붉은색과 노란색이 한 단락씩 섞여 있는 긴 소매의 장포에 흰색 중단을 입고 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 칼을 들고 태자의 머리를 깎으려는 모습이다. 그 옆의 천신은 보살 복장으로 별거벗은 상반신에 천의를 걸치고 허리에 긴 치마를 두르고 합장하고 서 있다. 태자의 앞에는 오비구五比丘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경전에서는 “교진녀를 비롯해 오비



사진 4. 불전고사화 중 수행을 그린 하단 부분도.

구들이 태자를 수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빨간색과 갈색의 긴 소매 장삼을 입고, 머리에는 복두幘頭를 쓰고 있다. 태자를 향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4〉는 마지막 단락 부분으로 맨 하단에 자리하고 있다. 싯다르타 태자가 6년 동안 산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대마 1개와 쌀 한 톨만을 먹겠다고 다짐했다. 6년 동안 사라수 아래 앉아 있다 보니, 피골이 상접하고 형체가 야위었다. 그림 속에는 나무토막처럼 마른 태자가 바위 위에 걸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상체는 나신이고, 하반신은 붉은 천을 두르고 명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의 머리 위에는 나뭇가지와 낙엽이 쌓여 있다.

〈사진 1〉에서 보듯이 전체 그림에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산수와 풍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림의 구성은 이별, 삭발, 수행이라는 세 가지 장면이 산으로 구분되어 순서대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한 화면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야기의 줄거리에 맞춰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산은 높고 나무는 듽성듬성하다. 볼륨감 있는 색조로 험준한 봉우리, 푸른 나무, 상서로운 구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봉우리와 산의 변화무쌍한 풍경 속에 인물과 이야기의 적절히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별 장면의 가파른 봉우리,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이어지는 산맥은 싯다르타 태자의 구도 여정이 순탄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삭발 장면의 구불구불한 산들 사이의 비좁은 장소는 결단력 있는 태자, 고난의 시자侍者, 그리고 초월적인 제석천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위태롭게 솟은 가파른 봉우리와 수려한 나무들로 인해 정지된 화면에서 생동감이 넘친다. 수행 장면 중의 몽골 게르텐트 모양의 산은 산 같지

만 산이 아니고, 나무 같지만 나무가 아닌 몇 개의 획劃을 쓱쓱 긁고 있다. 깨끗한 네란자라강尼連禪河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저기 샘물이 흐르고 과일나무가 많이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다

싯다르타 태자는 출가 후 5년 동안 여러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 지독한 고행을 계속해 보았지만 깨달음은 얻지 못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내가 배울 스승은 없다. 이제는 나 자신을 스승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태자는 홀로 숲속으로 들어가 커다란 보리수 아래 홀로 단정히 앉았다. 맑게 갠 날씨였다. 앞에는 네란자라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7일째 되는 날이었다. 선정禪定에 잠긴 싯다르타 태자는 마음이 문득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제는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이치가 그 앞에 밝게 드러났다. 마침내 싯다르타 태자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이때 태자의 나이 서른다섯, 이제는 그에게서 인간적인 갈등과 번뇌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깨달은 사람 즉, 붓다가 된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의 순간을 그림으로 묘사한 <항마성도도降魔成道圖>가 남아 있다.

둔황 막고굴 제254굴은 북위魏魏 중기(약 465~500년)에 개착되었으며,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높다. 남벽 동쪽에 있는 <항마성도도>는 조형이 풍성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술사의 걸작이다.

<사진 5>는 싯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욕망의 군주 마왕魔王 파순波旬이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 사람



사진 5. 막고굴 제254굴 향마성도도降魔成道圖(복위, 汎友社, 2001).



사진 6. 막고굴 제254굴 항마降魔 부분도(복원, 汎友社, 2001).

들을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까 두려워 마군중을 이끌고 와 방해한다. 이 마군들은 태자를 아름다움으로 유혹하거나 무력으로 공격하고 있으나 태자는 선정과 자비, 지혜로써 이들을 물리친다. 마침내 마군중의 항복을 받고 싯다르타 태자는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다. 여기서 마군은 깨달음의 과정에서의 장애 요소 즉, 내적 갈등과 번뇌, 외적 여러 가지 유혹 등을 의미하는데, <사진 6>에서는 해괴한 요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 6>은 펠리오가 돈황 장경동에서 반출한 것이다. 싯다르타 태자의 항마성도의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소승팔상小乘八相 중 제5상과 대승팔상 중의 무차상이



사진 7. 75쪽 항마성도도의 구성.



사진 7-1. 돈황 막고굴 항마성도도降魔成道圖(144.4x113cm, 비단에 채색, 당대, 프랑스 기메 박물관 소장).



사진 8. 돈황 막고굴 항마성도도 중 정중앙 붓다 부분도.



사진 9. 돈황 막고굴 항마성도도 중 삼면팔비명왕三面八臂明王 부분도.

다. 이러한 주제는 장경동에서 발견된 견화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석가모니불은 화면 중앙 연화좌에 앉아 손은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으며, 머리 위에는 거대한 화개華蓋가 있다. 상방 구름 위에는 삼면팔비명왕三面八臂의 강삼세명왕降三世明王이 있고, 주변에는 싯다르타 태자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 공격하는 마군중이 그려져 있다. 그중 불을 품는 화기가 주목된다. 그림의 양면에는 위에서 아래로 다양한 자세의 불상이 그려져 있어 붓다의 남다른 위신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아랫부분에는 백상, 옥녀 등 칠보가 그려져 있다. 卍

○ 김선희 동국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수료,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창원대학교 외래교수,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경상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창원민속역사박물관 자문위원,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감사 및 불교미술 작가로 활동 중이다.

밀라레빠의 수행식 쌌기풀 죽



김규현_ 티베트문화연구소 소장

일생을 설산 동굴에서 명상수행으로만 일관했던 전형적인 판트릭 요기(Tantric Yogi)이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회자되며 사랑받고 있는 음유시인 밀라레빠(Jetsün Milarepa, 1052~1135). 그는 티베트 불교사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메이저급 까규빠(Kagyü-Pa) 종파宗派의 토대를 마련한 거목이기도 하다.

밀라레빠의 주식 쌌기풀 죽

그는 평생을 황량한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먹거리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근처에서 자생하는 쌌기풀로 죽을 끓여서 먹는 방법으로 주식主食거리를 삼았는데, 그 풀은 야크와 같은 초식동물들마저도 먹지 못하는 거친 식물이었다. 물론 가끔은 후원자들이 가져다주는 야크 젖으로 만든 야크 치즈(Yak Cheese)와 기(Ghee)라는 유제품과 곡물가루인 잠빠등도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식이 쌌기풀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사진 1. 연초록색 피부의 밀라레빠 탕카. 가운데 부분 왼손에 ‘쌌기풀 죽(Sap-Thuk soup)’이 든 사발鉢盂을 들고 있다.



사진 2. 밀라레빠 탕카 속의 죽사발 확대.

여지가 없고, 그래서 그의 피부가 연초록색으로 변했다는 대목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수행자로서 그의 삶 자체가 어떠한지는 그의 이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겨울철에도 하얀 무명옷만 입고 고행으로 초지일관하였기에 후대에 이르러 그를 ‘하얀 옷을 입은 밀라’라는 뜻의 ‘밀라레빠’로 부르게 되었다. 더불어 그가 철저하게 독신자로서의 계행을¹⁾ 지켰다는 덕목까지 보태져서 밀라레빠를 티베트 불교사상 가장 걸출한 수행자로, 나아가 ‘수행자의 아이콘(icon)’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1) 이 주제는 필자가 큰 관심을 갖는 대목이어서 우선 급한 원고부터 처리한 후에 따로 「티베트 불교에서의 페미니즘」을 주제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밀레니엄 슈퍼 푸드 썩기풀

우리에게는 흔한 썩기풀로 알려진 이 다년생 식물의 학명은 ‘우르띠까 디오이까(Urtica dioica)’라고 불린다. 그 어원語源은 라틴어의 ‘불타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썩기풀에 돋아 있는 가시(Thorn)가 인간의 피부에 접촉할 때 생기는 타는 듯한 느낌, 즉 작열감灼熱感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풀의 원산지는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 일대에서 자생하지만, 위험한 가시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초식동물마저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슈퍼 푸드로서 약효를 인정한 일부 사람들은 조리법을 개발하여 식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방법이란 바로 센 불로 끓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섭취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밀라레빠였다. 그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었는지, 아니면 슈퍼 푸드로서의 효능을 알



사진 3. 『식물도감』에 그려진 썩기풀(학명 *Urtica dioica* Netelee leaf).



사진 4. 안나푸르나 산기슭에 자생하고 있는 썩기풀. 네팔에서는 시슈누(Sishnu)라 부른다.

고 먹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이 썬기풀을 주식으로 삼아서 고난도의 수행을 완성하여 최고 수행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밀라레빠의 아이콘(icon)으로 자리 잡은, 이 썬기풀이 요즘 시쳇말로 뜨고 있다. 다양한 레시피가 개발되는 것은 물론 항암치료제, 무공해 살충제, 화장품, 소화기 개선, 항염증, 항산화, 해독,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요로결석 예방, 빈혈 예방, 출산 후 수유 원활, 폐경 전후 혈류 개선 등등 다양한 효능이 검증되었다. 현재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²⁾

삼투 수프의 원조 밀라레빠

비건(Vegan)의 선구자 밀라레빠는 썬기풀을 주식으로 삼았기에 몸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것을 ‘밀라레빠 삼투 수프(Sap-Thuk Soup)’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썬기풀은 네팔어로는 ‘시슈누(Sishnu)’라고 부르는데, 네팔인들은 옛날부터 수프 또는 감기약으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물론 싱싱한 채소는 봄, 여름철에만 맛볼 수 있지만 요즘은 즉석용 가루와 차츰로 응용할 수 있는 제품이 판매용으로 출시되고 있다.³⁾

이 썬기풀 죽粥의 레시피(Recipe)는 다음과 같다.

2)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수 없어서 각종 알레르기 반응, 위장 장애, 그리고 임신부나 수유부 등의 경우에는 우선 소량의 테스트를 거친 후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가리오 시슈누(Gharjo Sishnu)’, ‘빠틀(Patle S.)’, ‘반그레이(Bhangrey S.)’, ‘레칼리(Lekali S.)’, ‘투로(Thulo S.)’ 등이 있다.



사진 5. 썩기풀을 잘라서 집게로 잡아 다듬고 있다.

● 재료

봄철 신선하고 역세지 않은 썩기풀(반 바구니 정도), 짬뽕(구운 보릿가루), 밀가루, 옥수수, 전분, 소금, 매운 사천식 후춧가루, 카레, 고추, 마늘, 양파, 파. 식성에 따라 육류 종류를 추가해도 된다.

● 준비와 과정

- ① 썩기풀을 여러 번 깨끗하게 씻은 후 평평한 쟁반에 펴놓고 집게로 잡아서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반나절 동안 시들게 해서 가시의 숨을 죽인 다음 밀가루 등을 뿌려 가며 여러 번 섞어 놓는다.
- ② 한편 큰 냄비에 찬물을 넣고 가열하여 물이 끓어오르면 준비된 재료를 넣고 15~20분 동안 국자를 사용하여 휘저어 가면서 푹 끓인다.
- ③ 준비된 곡물가루 2스푼을 작은 컵에 넣고 잘 섞은 다음 소금, 사천 후춧가루 등을 첨가하여 준비해 둔다.

- ④ 다진 마늘과 양파를 기름에 볶은 다음 그것들이 갈색이 되면 ③번 준비물과 함께 끓는 냄비에 붓고 나서 국자를 사용하여 저어 가며 더 끓인다.
- ⑤ 푹 끓고 나서 조금 맛을 보고는 뭔가 부족하면 다시 간을 맞추거나 짬뽕 등을 더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여 불을 끄고 뜸을 들인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 흐른 뒤에 죽사발로 옮겨 담아 맛있게 먹으면 된다. 이때 공양계(供養偈)로 다음과 같은 ‘밀라레빠 만트라’를 염송하면 금상첨화겠다.

옴 아 규루 하사 바즈라 사르바 시디 파라 흠

Om Ah Guru Hasa Vajra Sarva Siddhi Phala Hum.(3번)

전통적인 수프 말고도 수제비 식의 ‘밀라레빠 삼툽 텐툽(M. Sap-Thuk Thenthuk)’도 훌륭한 레시피가 될 듯하다. 다른 것은 위의 수프와 같고 다



사진 6. 쇠기풀 죽을 시식하고 있는 필자.



사진 7. 여러 종류의 네팔산 쇠기풀잎 상품들.

만 밀가루를 반죽할 때 썰기풀 가루를 적당히 넣어 주물러서 탕이 끓을 때 마치 수제비처럼 얇게 퍼서 떼어 넣고 끓이면 된다.

물론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면 멸치 또는 육류를 추가해도 된다. 하지만 이 수프의 주인공 밀라레빠가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꾼의 화살을 대신 맞은 자비심을 생각한다면 이 수프만이라도 비건으로 맛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넓게는 호모사피엔스의 오만으로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푸른 별 지구의 기후변화를 지연시키고 좁게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적 채식주의자 비건(Vegan)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식주의자 카니보어(carnivore)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개인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심각하게 숙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로 인해 SNS가 뜨겁지만 책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제가 딴 길로 흘러가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다.

밀라레빠의 수행법 뚝모란?

밀라레빠 같은 요기들은 두꺼운 옷을 착용하지 않고 추운 겨울을 지낸다. 그들은 자연계의 무한한 뿌라나(Prana, 氣)를 끌어들이 불의 에너지로 바꾸어 에너지 통로(Nadi, 經絡)로 흐르게 하여 추위를 이겨낼 수 있기에 오직 무명옷 한 벌로 겨울을 지낸다.



사진 8. 시판되는 썰기풀 상품들을 들고 있는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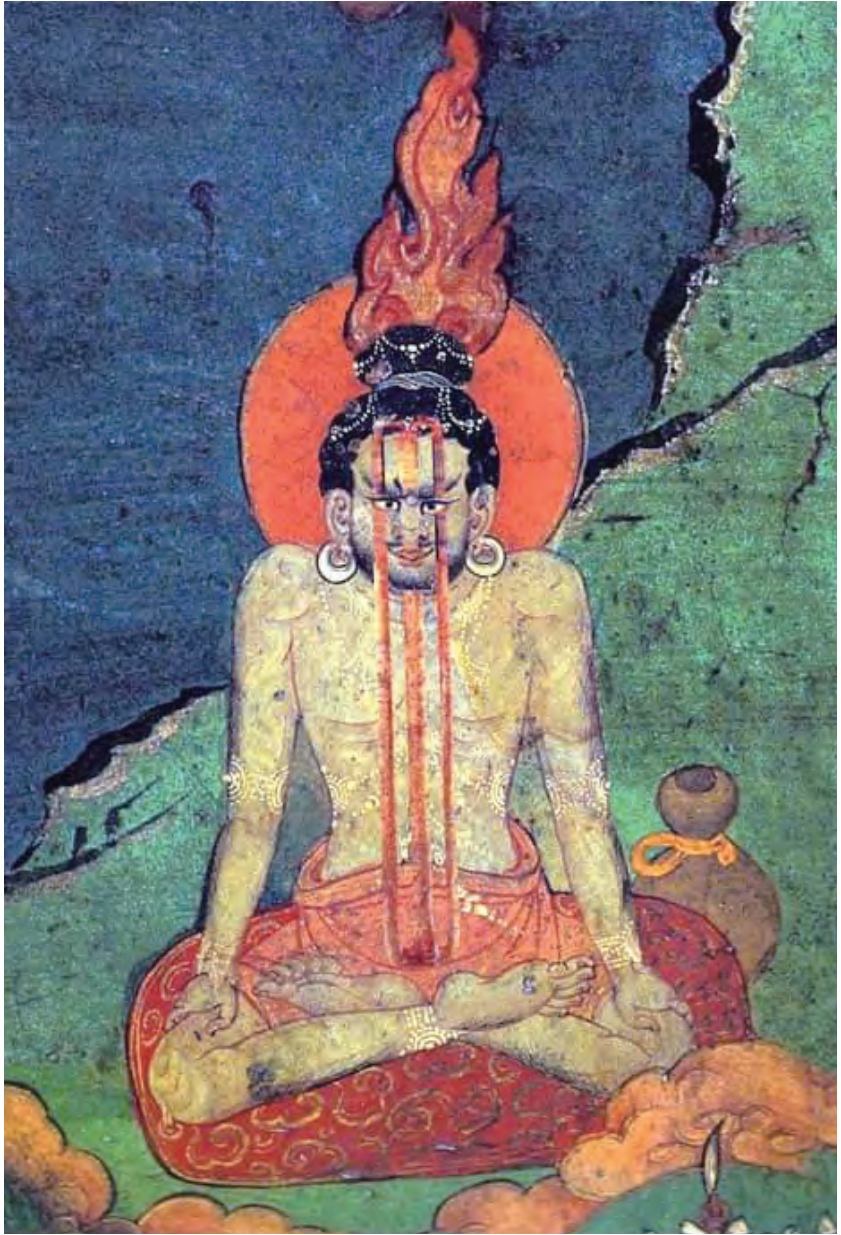



사진 9. 똘모수행을 하는 요기의 차크라를 연결하는 에너지 통로를 묘사한 탕카.

마치 초능력처럼 보이는 이 술법이 바로 까규빠의 전문 수행법인 ‘나로육법(Six Yogas of Nāropa)’의 기본기인 ‘뚝모(Tum mo, 生熱)’이다. 서양인 최초의 여성 요기로 알려져 있는 데비드 널(Alexandra David-Neel)⁴⁾은 이 뚝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랜 수련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디어 낼 자신이 있다고 준비된 요기들은, 달 밝고 몹시 춥고 바람 부는 밤, 호수나 강으로 나가 얼음판에 구멍을 뚫고 알몸 상태로 물속으로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뒤집어쓰고 체온으로 젖은 수건을 말리는, 일종의 자기 점검훈련을 한다. 이런 극한克寒의 행위를 새벽동이 틀 때까지 계속해서 되풀이하는데, 이렇게 수건을 많이 말린 요기를 그날의 장원으로 뽑고, 이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레빠’란 호칭을 허락한다.

왜?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수행자들은 썰기풀을 먹어 가며 한겨울에 알몸으로 이런 극한의 고행을 사서 하는 것일까? 그 답변을 ‘밀라레빠 만트라’로 대신한다. 

4) 『*Magic and Mystery in Tibet*』 by Alexandra David-Neel(1868-1969).

○ **다정 김규현** 현재 10년째 ‘인생 4주기’ 중의 ‘유행기遊行期’를 보내려고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로 들어가 네팔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틈틈이 히말라야 권역의 불교유적을 순례하고 있다.

존재가 공간을 결정한다



양형진_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동력학에 관한 세 법칙과 만유인력(universal gravitation)의 법칙으로 이뤄진 뉴턴역학은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미분과 적분을 만들어 낸 뉴턴(Issac Newton, 1642~1726)은 지구와 달이 구형이라면 이 둘을 각각 한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적분을 사용하여 증명했다.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뉴턴역학도 완벽하지 않다

뉴턴역학은 행성의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만유인력에 의해 행성의 원 궤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했고, 행성이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 속도가 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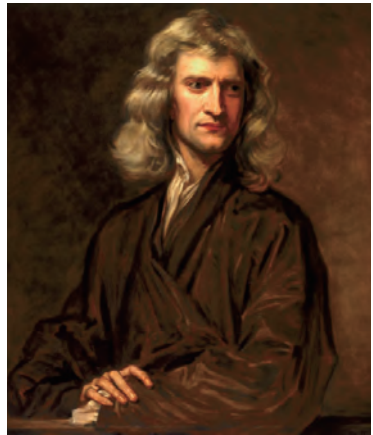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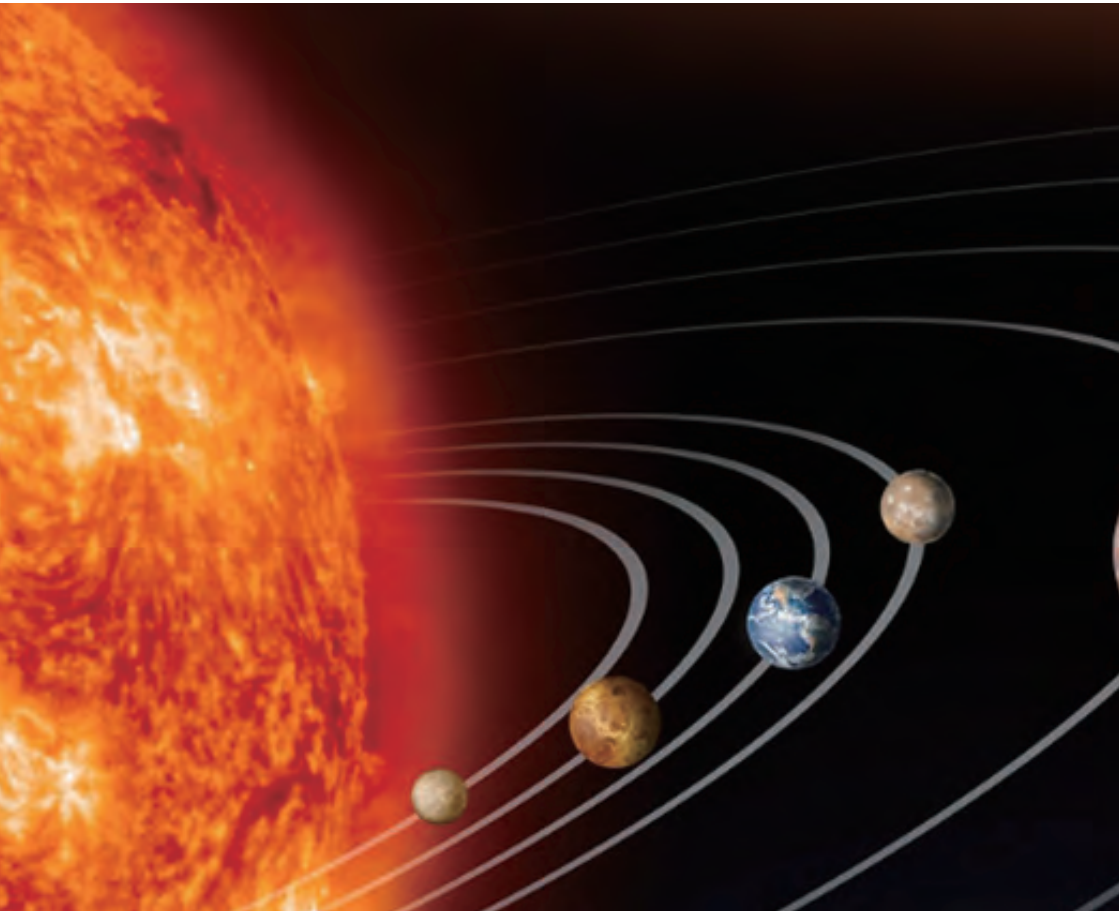


사진 1.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3~1727).

라지고 멀어졌을 때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행성의 궤도 반경과 공전 주기 사이의 관계도 인상적으로 설명했다.

뉴턴의 고전역학이 완성되면서, 근대물리학은 지상과 천상의 모든 물체의 운동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했다. 뉴턴 이전에는 천상과 지상이 서로 다른 두 세계였다. 우주는 조화로운(harmonious) 천상과 혼란스러운(chaotic) 지상으로 분리돼 있었다. 그러나 만유인력은 분리된 두 세계에 존재했던 사과와 달을 하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포괄적 이해의 틀을 제공했다.

대단히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뉴턴역학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수궁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 있었다. 수궁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설명할 수 없는 문제는 수성의 공전 궤도였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옳다면 행성의 궤도는 타원이어야 한다. 타원 궤도라는 것은 그 궤도의 근일점(타원 궤도 위에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과 원일점(타원 궤도 위에서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이 움직이지 않고 한 지점에 고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성 궤도의 원일점은 계속 이동한다는 것이 관찰됐다. 이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점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general theory of relativity)이 나온 다음에야 해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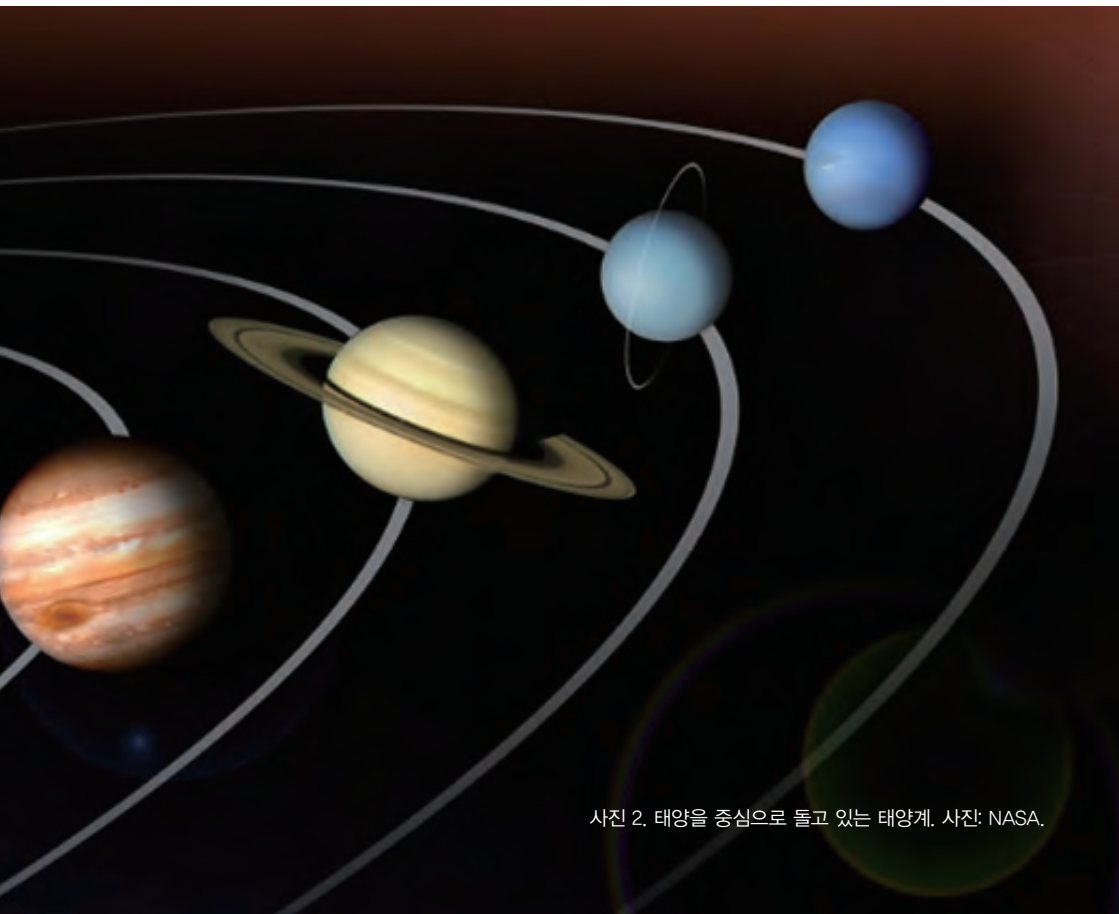


사진 2.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태양계. 사진: NASA.

중력과 가속도의 등가원리

특수상대성이론(Special Theory of Relativity)은 중력이 아주 작아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관한 상대론이다. 중력의 영향을 고려한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상대론이 일반상대성이론이다. 일반상대성이론의 출발점은 중력과 가속도의 효과가 같다는 것이다. 우주선 객실에 탄 물리학자를 상상해 보자. 자기 몸이 뒤로 쏠리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는 우주선이 갑자기 가속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갑자기 뒤에 나타난 커다란 천체의 중력 때문일 수도 있다. 객실 밖의 상황을 알 수 없다면, 둘 중의 어떤 상황 때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물리 실험은 없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다.¹⁾ 가속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효과와 중력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효과는 완벽하게 같다는 것이다. 이를 중력과 가속도의 등가원리(equivalence principle)라고 한다.

중력에 의해 빛이 휘다

중력과 가속도의 효과가 같다면 중력의 효과를 가속도의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체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림과 같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승강기를 생각해 보자. 승강기가 정지해 있다면 승강기 안의 관찰자는 그림(0)과 같이 빛이 수평하

1) 자유낙하하는 우주선 안에서는 지구중력이 사라진다고, 다른 천체의 중력을 무시할 수 있는 우주 공간에서 9.8m/s²으로 가속한다면 지구중력과 같은 중력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게 직진하는 것으로 관찰한다. 그림(1)에서처럼 일정한 속도 v_1 으로 위로 움직이면, 관찰자는 비스듬하게 직진하는 빛을 본다. 위로 움직이는 속도가 그림(2)의 v_2 , 그림(3)의 v_3 , 그림(4)의 v_4 처럼 점점 커질수록 빛의 경로는 더 기울어진다. 정지한 상태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빛은 승강기의 속도에 따라 기울기는 달라지지만 모두 직진한다. 이제 정지해 있다가 속도를 v_1 , v_2 , v_3 , v_4 로 가속한다면, 그림(5)에서 보는 것처럼 빛은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의 단계를 거치면서 휘게 된다. 이처럼 승강기가 가속하면 빛이 휘게 된다. 가속도에 의해 빛이 휘고 아인슈타인의 중력과 가속도의 등가원리가 맞다면, 중력에 의해서도 빛이 휘어야 한다.

빛이 휘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히 큰 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큰 중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천체는 우리 주변에는 태양밖에 없으므로, 태양 근처에서 별빛이 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별빛에 비해 태양 빛이 너무 강해서 평상시엔 관측할 수 없으므로, 개기일식이 태양 빛을 가릴 때만 이를 관측할 수 있다. 개기일식이 있었던 1919년 5월 29일에 태양 근처를 지나는 빛이 1.75" 휘다는 것을 관측하면서²⁾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은 확증(confirmation)됐다.³⁾

태양 근처에서 이처럼 빛이 휘다는 것은 가속하는 승강기에서 빛이 휘는 것처럼 태양의 만유인력에 의해 빛이 휘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의

2) 1°(도)의 60분의 1을 1'(분)이라고 하고, 1'의 60분의 1을 1"(초)라고 한다. 1"는 1/3600°다.

3) 경험과학(empirical science)에서는 이론적 예측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 검증이 이론을 부정하는 관측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과학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 1902~1994)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증명(proof) 대신에 확증(confirm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지해 있는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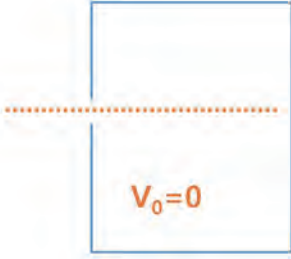


그림 0. 정지한 승강기 안에 있는 관측자에게 빛은 수평하게 직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승강기



그림 1. 속도 v_1 로 움직이는 승강기 안의 관측자에게 빛은 비스듬하게 직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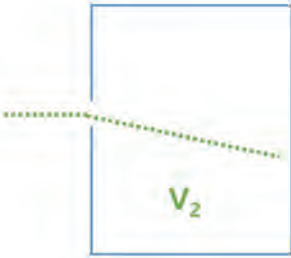


그림 2. 속도 v_2 로 움직이는 승강기 안의 관측자에게 빛은 비스듬하게 직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림 1의 경로보다 좀 더 비스듬하게 직진한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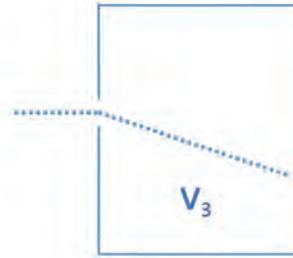


그림 3. 속도 v_3 로 움직이는 승강기 안의 관측자에게 빛은 비스듬하게 직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림 2의 경로보다 좀 더 비스듬하게 직진한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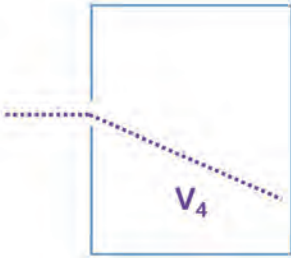


그림 4. 속도 v_4 로 움직이는 승강기 안의 관측자에게 빛은 비스듬하게 직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림 3의 경로보다 좀 더 비스듬하게 직진한다.

가속하는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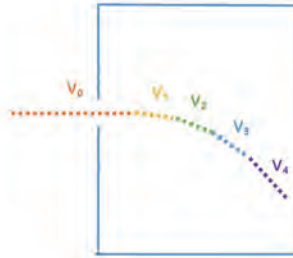


그림 5. 정지해 있다가 속도 v_1 , 속도 v_2 , 속도 v_3 , 속도 v_4 로 가속하는 승강기 안의 관측자에게 빛은 휘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만유인력에 의해 공간이 휘다는 것이며, 이는 존재에 의해 공간이 바뀐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간이 휘어지게 되면, 이 공간은 뉴턴역학이 가정하는 3차원 공간이 아니다. 전자기학의 쿨롱의 법칙이나 뉴턴역학의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상호작용의 세기가 모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우리 우주가 3차원 공간일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 우주가 3차원 공간이 아니라면 만유인력의 역제곱 법칙은 수정돼야 한다. 행성의 타원 궤도는 만유인력이 역제곱 법칙일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상대성이론은 뉴턴역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수성 등 태양계 행성의 근일점 이동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일반상대성이론은 블랙홀을 이해하게 하는 현대천문학의 기본 틀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표준적인 빅뱅 모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틀이기도 하다. 또한 중력렌즈(gravitational lens), 중력적색편이(gravitational red shift), 중력파(gravitational wave) 등의 현상을 예측했고, 이는 모두 관측으로 확인됐다.

마흐의 원리: 존재가 공간을 바꾼다

직진하던 빛이 천체에 의해 휘다는 것은 천체에 의해 공간이 변한다는 것이다. 존재에 의해 공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시공간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물이 들어 있는 양동이를 회전시키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양동이를 회전시키면 원심력이 발생한다. 이 힘이 물을 밖으로 밀어내어, 물 가운데가 들어가고 가장자리가 올라간다. 원심력은 회전하는 물체에 생기는 관성력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회전인가이다. 공간에 대한 회

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뉴턴역학에서의 회전이다. 뉴턴은 회전을 절대공간에 대한 회전이라고 생각했다. 뉴턴의 세계관에서 시간과 공간은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배경이다. 이런 시간과 공간을 절대(absolute)시간과 절대공간이라고 한다. 뉴턴역학에서 물이 들어 있는 양동이의 회전은 이 절대공간에 대한 회전이다.

마흐(Ernst Mach, 1838~1916)는 뉴턴과 전혀 다르게 생각했다. 절대공간에 대한 회전이 아니라 전체 우주에 대한 회전이라고 보았다. 얼핏 보면 둘 사이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다르다. 우주에 아무 물체도 없을 때와 우주 전체가 회전하는 상황에서 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사진 3. 에른스트 마흐(Ernst Mach, 1838~1916).

뉴턴의 양동이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에서 돌리더라도 물이 움푹하게 들어가야 한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절대공간은 펼쳐져 있고, 회전은 절대공간에 대한 것이므로 원심력이 생겨야 한다. 이와 달리 마흐의 양동이는 빈 우주에서 돌리면 원심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심력은 우주 전체에 대한 상대적 회전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빈 우주에서는 물체를 회전시키더라도 물은 평편한 상태를 유지한다. 회전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양동이를 정지시켜 놓고 우주 전체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 우주 전체를 돌리더라도 양동이는 절대공간에 대해 회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뉴턴의 양동이에서는 원심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주를 돌리지 않았을 때와 같이 물은 평편한 상태를 유지한다. 마흐의 경우엔, 우주를 회전시키고 양동이를 정지시키는 것은 양동이를 회전시키고 우주를 정지시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주 전체를 회전시킬 수만 있다면, 양동이를 돌리지 않더라도 마흐의 양동이에서는 원심력이 나타난다.

빈 우주를 만들거나 우주 전체를 돌릴 수 없으므로 마흐의 생각을 직접 검증할 수는 없었지만, 이에 관한 마흐와 아인슈타인의 논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인도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흐와 의견을 교환했던 아인슈타인은 마흐의 이런 논의를 마흐의 원리(Mach principle)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이에 의하면 회전운동은 절대공간에 대한 절대 회전(absolute rotation)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한 상대적인 회전이다. 원심력은 물체가 우주 전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 운동을 하느냐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된다.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성질과 분포가 우주의 시공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존재자가 시공간을 형성한다.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빛

이 휘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지는 공간이고, 존재자에 의해 그 성질이 달라지는 공간이다.

한 송이 꽃이 우주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서의 우주는 존재자와 분리된 뉴턴의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이 아니라, 존재자에 의해 형성되는 상대적 시공간(relative space-time)으로 펼쳐진다. 그 시공간 안에 있는 마흐의 양동이에 는 전 우주가 다 들어와 있다. 화염의 3조 현수법장은 서까래가 집이라고 했다. 서까래 안에 집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하나의 나무토막일 뿐이다. 집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나무토막은 서까래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서까래라고 부른다.

이는 심장도 마찬가지다. 홀로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건 심장이 아니라 근육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 몸의 다른 모든 장기와 어우러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근육 덩어리는 심장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심장이라고 부른다. 이는 숫자 123에서도 그렇다. 1은 3보다 작은 수지만 123의 1은 3보다 큰 100이다. 2와 3이 모두 1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2와 3이 모두 1에 들어오면서, 그 1은 100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백이라고 부른다. 양동이의 물에 온 우주가 들어와 있고,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려면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한다. 그 한 송이 꽃이 우주다. 古語

○ 양형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양자정보이론 전공. (사)한국불교발전연구원장. 『산하대지가 참 빛이다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양형진의 과학으로 세상보기』 등의 저서가 있다.

시대착오적인 연고주의와 그 폐해



허남결_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사건의 여파로 불과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도가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우방국으로부터도 줄지에 여행제한 국가로 분류되는 등 국제적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낡은 선민의식과 충동적인 성정性情이 빚은 한바탕 소극笑劇치고는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행히 한밤에 국회로 몰려든 민주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국회의 적절한 대처로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자부심 높던 대한민국 국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두고두고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두렵다. 일반적으로 공식사회의 왜곡된 엘리트주의와 그것의 사회문화적 배경에는 권위주의와 연고주의적 정서를 앞세



사진 1.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왜곡된 엘리트주의.

우는 유교문화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주도하거나 동조한 대통령 포함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고교 출신이라는, 사적인 연고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적 윤리문화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연고주의’와 ‘정실주의’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은 공직사회 내부에 새롭게 형성된 직장 연고주의인 이른바 ‘직연(職緣)’의 폐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이런 제반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직사회가 보여주는 독특한 집단정서의 저변에는 전통사상에서 비롯된 역

사문화적 요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윤리문화’적 특징¹⁾을 띠고 있어 우리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1차적으로 유교적 가치관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가족주의, 사인주의 私人主義, 연고주의, 문서주의, 권위주의, 규정만능주의, 연공서열의식, 의리주의, 비물질주의(가장된 청렴문화) 등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 개념들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윤리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온정적 권위주의(paternalistic authoritarianism)’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지배적 에토스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본다. 온정적 권위주의란 간단히 말해 ‘다스리는 사람(공직자로 단순화함)에게는 자애로운 가부장의 역할이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일반 국민으로 단순화함)에게는 순종적인 자녀의 역할이 기대되는 가족주의적 국가관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²⁾

하지만 가족적 친분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는 온정적 권위주의의 공직문화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 및 인간적 평등을 전제한 자유민주주의 또는 합리적 계약관계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윤리적 사고방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유교적 의리의식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많은 비판자들은 우리나라 공직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정실주의와 연고주의의 원천을 바로 유교적 가족중심문화에서 찾고

1) 여기서 ‘윤리문화(ethical culture)’란 개념은 소속 공동체 구성원들의 윤리적 삶과 관련된 공통의 가치정서 및 판단체계 전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해 보기로 한다.

2) 박종민, 「21세기 바람직한 공직문화와 그 수용방안」, 감사원, 『감사(54)』(1997), p.32.



사진 2. 자연, 학연, 직연 등 다양한 관계망은 연고주의를 낳는다.

있는 한편, 이에 대한 미래적 및 창조적 극복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³⁾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몇 해 전 중앙부처의 어느 공무원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국민을 ‘개, 돼지’로 비유해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무의식적 배경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공직자 도덕의식의 유교문화적 영향

유교도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나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불평등한 차별적 인간관계를 전제하게 되는 속성을 갖는다. 이처럼 유교의 윤리적 가르침은 결국 통치자를 위한 윤리요,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정치도덕이며, 권력자와 통치자 및 상위자가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고전적 정치윤리라고 성격 규정할 수 있겠다. 그 결과 가족, 혈연, 직장, 고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연고 관계를 중시하고 인정, 의리, 감정 등이 합리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말하자면 윤리적 지체 현상을 빚게 되었다.

다시 말해 유교윤리는 부자, 군신, 부부 등 특정한 인간관계에 있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도덕적 의리에 관심을 가질 뿐, 사회라든가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위한 공공의 도덕관념을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로부터 그다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부자나 부부 또

3) 김낙진, 『의리의 윤리와 한국의 유교문화』(서울: 집문당, 2004), pp.3~8.

는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가족 중심의 소집단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private-regarding)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자기와 직·간접적인 혈연, 지연, 학연, 직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고방식을 낳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이런 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다. 우리는 검찰 출신 대통령의 통치행위에서도 유사한 인사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었다.

가족주의 패거리 문화의 변화 필요성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발동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인맥과 동일 고교 출신 인사들 간의 사적 카르텔은 가족주의적 공직 문화의 참담한 폐해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연고주의란 한마디로 말해 과거에 형성된 개인들 간의 사적 인연을 특히 중시하는 태도이다. 한 인격체의 탄생과 훈육 및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혈연, 개인의 도덕적 성품과 친교의 바탕이 되는 지연, 더 나아가 지식과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학연, 사회 진출 후 맺게 되는 직장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가리키는 직연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적 정서이자 감정적 결합으로 무조건 나무랄 일만은 아니기도 하다.

다만 그것이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따라야 할 공직사회의 중요한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집단 이기주의의 성향을 보이는 각종 패거리 문화의 배경으로 유교적 가족주의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말이

다.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제도상 능률적인 행정조직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을 움직이는 공직자들의 윤리적 가치관이나 태도, 즉 윤리문화적 의식구조가 공공성과 도덕성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면 그들이 속한 공직사회는 비합리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공직사회의 미래세대에 거는 기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윤리의식을 공직자 개인이 얼마나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내외부적인 환경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우려의 눈길을 보냈던 유교윤리문화의 문제점들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지금 대다수 국민들 또한 ‘끼리끼리 문화(각종 연고주의)’의 폐단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해소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가령,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에게 기성세대 방식의 고향이나 학교, 공무원 시험 몇 회나 등의 질문은 이제 특별한 관심사가 못 된다. 더욱이 장차 공직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할 여성 인력의 점증하는 숫자를⁴⁾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가부장제적

4) 인사혁신처의 정기인사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정부 국가 공무원은 총




사진 3. 을사년을 밝힐 붉은 태양. 사진: 장적.

질서에 익숙한 남성 중심의 공직사회 윤리문화도 실질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황당한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다시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적인 고비마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저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었다.

시민들의 높은 교양 수준과 개인 정치의식은 그동안 피땀 흘려 가꾸어 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풀뿌리 무형자산이다. 한낱 연고주의를 매개로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고위 공직자들이 벌인 어처구니없는 헌정질서 유린행위가 국가 전체를 내란상태로 몰아넣을 뻔했다. 말하나 마나 그들에게는 엄중한 인연법의 과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불기 2569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는 더 밝고 더 맑은 불국정토 대한민국의 기운이 국내외 곳곳에서 융솟음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비원悲願을 담아 불보살님 전에 엎드려 108배라도 정성껏 올려볼 작정이다. 

768,067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394,240명(51.3%)이고, 여성은 373,827명(48.7%)이다. 다만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총 1,233명 가운데 남성 1,111명(90.1%), 여성 122명(9.9%)으로 여전히 남성 공무원 숫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허남걸** 동국대 국민윤리학과 졸업(문학박사), 영국 더럼대학교 철학과 방문학자 및 동국대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를 거쳐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역저서로는 『불교윤리학 입문』, 『자비결과 주의』, 『불교의 시각에서 본 AI와 로봇 윤리』 등이 있고, 공리주의와 불교윤리의 접점을 모색하는 다수의 논문이 있다.



근하신년

담을 것은 담아두고

남 줄 것은 남겨두고

쌍차령 이야기



강경구_ 동의대 명예교수

천상을 어지럽히던 손오공은 부처님의 손이 변한 오행산에 깔려 불이 중도의 이치를 체화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 500년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삼장이 경전을 구하기 위한 서천 여행을 시작한다. 당시 삼장법사 현장은 당태종이 거행하는 수륙재의 법주로 추대된 상황이었다. 삼장이 막 법단에 올라 설법을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그것을 비판한다. 삼장이 설하는 법이 소승이므로 대승불법을 구해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삼장은 황제의 부촉을 받아 서천여행의 길을 떠난다. 그러나 중국과 서천의 경계가 되는 두 갈래 고개[쌍차령雙叉嶺]에서 요마의 함정에 빠진다. 그를 잡은 것은 호랑이 요마였다. 호랑이는 친구인 곰 요마·소 요마와 함께 두 명의 시종을 잡아먹어 버린다. 이때 태백금성太白金星이 나타나 삼장을 구해 큰길로 안내해 주지만, 그는 다시 호랑이와 독사와 독충들에게 포위되어 버린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백흙劉伯欽이라는 사냥꾼이 나타나 삼장을 도와 곤경에서 구해준다.



사진 1. 경전을 구하러 가는 삼장법사(돈황 벽화).

세 요마의 공격을 당하다

당태종의 전송을 받으며 중국을 출발한 삼장은 서쪽 변방의 여러 도시를 거쳐 하주위(河州衛)라는 국경도시에 도착한다. 이곳은 서역과 중국을 나누는 국경이자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전략도시였다. 이 도시가 정식으로 설치된 것은 명나라 때이므로 소설이 창작되던 후대의 상황을 당나라 시대에 적용한 셈이 된다. 어쨌거나 삼장은 그곳의 한 사찰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불교 최고의 지도자에다가 황제와 의형제까지 맺은 신분(실제 역사로 보자면 현장은 불법 출국자로서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였다.)의 귀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에 유숙한 삼장은 하루빨리 서천에 도착할 생각에 새벽 2시가 겨우 넘은 시간에 서둘러 길을 떠난다. 몇십 리를 갔을까? 삼장은 길 없는 산을 만나게 된다. “저 험한 곳을 지나갈 수 있을까? 길을 잃으

면 어찌지?” 이렇게 걱정하는 중에 발을 잘못 디더 두 시종과 함께 함정에 빠지고 만다. 삼장이 함정에 빠지자 요마가 나타나 소리친다. “저것들을 잡아와라!” 삼장이 보니 이마에 흰 털이 있는 호랑이 요마였다. 설상가상으로 곰 요마와 수소 요마가 이곳을 방문한다. 호랑이 요마는 이들과 함께 두 명의 시종을 잡아먹고 삼장은 나중에 먹을 작정으로 남겨둔다.



사진 2. 경전을 구하러 가는 삼장법사(청대 그림).

호랑이 요마의 정체는 무엇일까? 『서유기』에서 요마의 크기는 장애의 거칠고 미세함을 반영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행의 초기에는 거칠고 무거운 장애[羸重煩惱]를 상징하는 크고 흉악한 요마가 나타나고, 뒤로 갈수록 미세한 장애[微細煩惱]를 상징하는 작거나 예쁜 요마들이 나타나게 된다. 호랑이는 크기와 흉악함에서 일등이니까 최초의 장애를 상징하는 요마로 나타난 것이다. 그를 방문한 곰이나 수소 요마도 크기나 흉악함이 엇비슷하다.

당연히 그것들은 충동의 힘이 강하면서도 쉽게 감지되는 거친 번뇌를 원관념으로 한다. 그것들은 또한 이제 막 서천여행을 시작한 삼장이 불러낸 요마들이기도 하다. 이들 상호 간의 대화와 삼장의 시종을 잡아 나눠 먹은 부위에 그들의 정체가 암시되어 있다. 요마들이 서로 만나 인사말을 나눈다. 그들의 인사말은 전도망상의 표현이므로 역설로 이해해야 한다.



사진 3. 호랑이 요마에게 잡힌 삼장법사 일행.

먼저 호랑이 요마에게 곰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 “장군 호랑이 [寅將軍]께서는 요즘 일이 잘 풀리다니 축하합니다.” 호랑이가 수행이 잘 풀려 빠른 성취가 있기를 바라는 속성심의 상징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 호랑이는 시종을 잡아 팔과 다리를 자기 뒤통으로 먹는다. 수행의 손과 발이 잘린 것이다. 손이 없으니 어떻게 해볼 수단이 없고, 발이 없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빨리 성취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일들이 시시

하게 보인다. 이로 인해 팔다리가 잘린 거친 원리주의적 몸통만 남아 수행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산 임금 곰[熊山君]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곰 요마는 어떠한가? 요마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중에 곰은 자신의 근황을 이렇게 말한다. “본분을 지킬 뿐입니다.” 본분을 제대로 지킨다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런데 왜 곰은 요마가 되는가? 사실 곰은 본분을 까맣게 잊고 몇 달씩 잠을 자는 동물이다. 수행에 들어가면 곰의 잠과 유사한 비자각 상태가 수행을 방해한다. 혼침이다. 아니나 다를까! 곰 요마는 두 시종의 머리를 자기 뒤통으로 먹는다. 머리가 없으므로 밝은 관찰과 자각이 없다. 곰 요마는 혼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사 수소[特處士]는 어떠한가? 수소는 근황을 묻는 질문

에 이렇게 대답한다. “때에 따를 뿐입니다.” 이 말 역시 사실과 정반대다. 순종을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수소의 특징이다. 높은 뿔을 휘두르며 어느 곳으로 날뿔지 모르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수행자에게도 이렇게 휘젓고 날뛰는 장애가 찾아온다. 도거掉擧, 혹은 산란이다. 그래서 수소는 자기 뿔으로 두 시종의 심장과 간을 먹는다. 내면적 안정과 실속이 사라진 상태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랑이와 같은 속성심에 사로잡혀 요령 없이 서들기만 하다가 곰과 같은 혼침, 수소와 같은 산란에 빠져 버린 것이 삼장의 현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서천 여행에서 최초로 맞이하는 숙제이다.

태백금성의 구원

그렇게 삼장법사는 호랑이 요마와 곰 요마와 수소 요마가 자신의 두 시종을 잡아먹는 것을 목도한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른 채 묶여 있는데, 태백금성이 나타나 그를 구해 큰길[大道]까지 안내한다. 그러나 삼장은 얼마 안 있어 다시 호랑이와 뱀과 독충의 무리들에게 포위되고 만다.

여기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세 요마는 왜 삼장을 남겨둔 것일까? 세 명이니까 나누기도 더 좋았을 텐데 말이다. 두 시종은 삼장과 한 몸이다. 그들은 산란과 혼침의 반대인 선정과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다. 그런데 두 시종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직 초심자라서 겨우 개념만 세워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삼장[藏]은 우리에게 간직되어 있는 여래장[藏]을 뜻한다. 여래장은 불생불멸이므로 삼장은 묶이거나 갇



사진 4. 삼장법사를 구해주는 태백금성.

힐 수는 있지만 죽어서 사라질 수는 없다. “그 본성이 온전하고 맑아서 요마에게 잡아먹힐 수 없다.”고 한 태백금성의 말이 가리키는 바가 이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해가 뜬 아침에 태백금성, 즉 금성이 출현한 것일까? 원래 태백금성은 밝은 관찰을 상징한다. 그런데 그가 해가 뜬 아침에 나타났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백주 대낮의 금성 출현을 전하는 역사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낮에 나온 금성은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옛 중국에

서는 금성이 새벽녘 동쪽에 있을 때는 계명啓明, 해질녘 서쪽에 있을 때는 태백太白(아주 밝은 별)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서쪽 여행을 하는 삼장에게 서쪽에 뜨는 태백금성은 서천을 가리키는 방향타로써의 의미, 밝은 비춤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 방향 지시와 밝은 비춤에 의해 삼장은 요마의 미궁에서 빠져나와 큰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금성이 밝은 대낮에 나왔으므로 향도별로써나 밝음으로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삼장이 큰길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호랑이, 뱀, 독충, 괴수 무리에게 포위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천행을 막 시작한 입장에서 아직 방향도 헛갈리고, 밝게 비춰보는 일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이 된다.

쌍차령의 사냥꾼, 유백흙

그렇게 삼장이 요괴에게 두 시종을 잡아 먹히고 태백금성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했다가 다시 맹수와 독충들에게 포위된 곳은 쌍차령(雙叉嶺)이라는 고개였다. 쌍차령은 두(雙) 갈래(叉) 고개(嶺)라는 뜻이다. 이 갈래 길에서 곤경에 빠진 삼장에게 유백흙(劉伯欽)이라는 사냥꾼이 나타난다. 그가 나타나자 사방을 에워싸고 있던 맹수와 뱀과 독충들이 모두 달아나 버린다. 맹수와 뱀과 독충의 무리들로 상징되는 다양한 번뇌들을 일거에 사라지게 한 것이다. 이 유백흙은 진정한 수행 의지의 촉발과 그것에서 기인하는 강한 수행력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서천 여행의 길에 나서지만 누구나 제대로 된 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삶의 본질에 대한 간절한 궁금증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장만 해도 그렇다. 그의 서천 여행은 진정한 자기 탐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막연한 선망과 당나라 황제의 격려로 시작된 것이었다. 심지어 삼장에게는 일종의 변형된 영웅심리까지 발견된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의 수행은 일종의 흥내에 가깝다.



사진 5. 유백흙의 출현에 달아나는 맹수와 뱀들.

물론 당사자는 그것을 모른다. 나름 다 갖추었기 때문이다. 삼장만 해도 집중과 관찰이라는 두 시종을 좌우에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속성심과 과잉 의지 그 자체가 두 시종을 혼침과 산란이라는 요마에 바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태백금성의 출현으로 갈 길이 분명해진 듯 했지만 다시 길을 잃고 호랑이와 독사와 독충과 괴수들에게 포위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수행의 장애는 곧 수행의 진전이기도 하다. 지음 자신의 계획이나 일거수 일투족이 장애에 가로막히는 것을 목도한 삼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된다. 이때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린다. 자포자기적 마음이 되어 오직 맡길 뿐인 마음이 된 것이다. 바로 수행이 힘을 얻는 시점으로서 용맹한 사냥꾼 유백흙의 출현이 그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유백흙이 나타나자 모든 맹수와 독충이 저절로 사라진다.

육식 유백흙과 채식 삼장의 겸상

유백흙은 삼장을 구해주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돌아가는 중에 호랑이까지 한 마리 잡아 삼장에게 대접해 주겠다고 한다. 삼장은 자신이 육식을 하지 않음을 밝힌다.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길을 택하겠다(과하다! 과하므로 문제가 된다. 더구나 육식을 금하는 계율은 중국에서 발명한 것이다.)는 것이다. 이에 유백흙의 모친이 고기 냄새와 기름이 뻘 솔을 잘 씻어 나물 반찬과 강냉이밥을 지어 올린다. 삼장은 온갖 짐승들의 고기를 쌓아놓고 먹는 유백흙과 겸상으로 채식 공양을 든다. 식사 후에는 유백흙의 집을 구경하는데 정자에는 각종 살벌한 무기와 호랑이 가죽이 널려 있고, 정원에는 유백흙이 키우는 사슴과 노루가 뛰놀고 있었다.



사진 6. 삼장법사를 집으로 초대하는 유백흠.

유백흠의 육식은 어마어마하다. 호랑이 고기, 노루 고기, 뱀 고기, 여우 고기, 토끼 고기를 쟁반 가득 담아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진정한 수행의 동기와 그것에서 기인하는 강력한 수행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호랑이 등이 상징하는 번뇌를 잡아먹는 힘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유백흠의 육식은 번뇌와 싸워서 극복하는 방식의 수행을 상징한다.

이 유위적 공부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 극복하는 주체와 극복의 대상이 둘로 나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싸움에서 이길수록 그 주체가 강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진산 태보 鎭山太保라는 그의 별명이 가리키는 바가 이것이다. 진산태보는 산을 제압하는[鎭山] 우두머리[太保]라는 뜻이다. 번뇌의 산을 제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동시에 강력한 우두머리라는 주체가 세워지는 것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불교수행의 길에서 그것은 새로운 속제의 대두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삼장의 채식은 무위적 수행, 맡겨놓는 수행의 길을 상징한다. 아직 제대로 된 힘을 얻지는 못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본격적인 수행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채식 삼장이 육식 유백흠과 겸상을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이 한 상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육식과 채식의 공존이라 할까? 유위적 싸움과 무위적 내려놓음의 공존이라 할까?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쌍창령의 이야기에는 수행의 획기적 전기가 되는 지점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남은 얘기는 다음으로 이어진다. ㉟

○ 강경구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퇴직 후에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생각으로 성철선의 연구와 문학의 불교적 해석에 임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시간을 참선과 기도에 쓰면서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왕실 비빈과 사족 여성을 위한 비구니원의 흥망



이종수_ 국립 순천대 사학과교수

조선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수축할 때 고려의 유풍을 이어 궁궐 내에 왕실 원당으로써 내원당內願堂을 세우고, 궁궐 밖에 왕실 비빈과 사족 여성을 위한 정업원淨業院을 두었다. 정업원은 안일원安逸院이라고도 불렀다.

비구니 처소 정업원과 철폐

정업원은 고려 의종 대부터 그 명칭이 확인되며 왕실의 비빈이나 사족 여성들 가운데 출가자들이 머물렀던 비구니 사찰이다. 그 창건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164년(의종 18)에 의종이 정업원에 행차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볼 때, 고려 초부터 도성 내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강화도 천도 이후인 1251년(고종 38)에는 박훤朴暄의 집을 정업원으로 삼아 도성 안에 있던 비구니를 살게 하였다. 충숙왕 때에는 남편을 살해한 황주목사 이집李緝의 부인 반씨潘氏의 머리를 깎여서 정업원에 머물게 하였

으며, 조선이 건국될 무렵에는 비구니 묘장妙藏이 정업원의 주지로 있었다. 조선 건국 후 한양 도성에 건립된 정업원의 비구니들 역시 대부분 왕족이거나 사족士族들이었다.

혜화 궁주 이씨의 상에 부의賻儀를 내려 주었다. 궁주는 고려 시중侍中 이제현의 딸이다. 공민왕이 아들이 없어 후궁으로 뽑아들여 혜비惠妃에 봉하였으나, 뒤에 비구니가 되어 정업원에 머물러 있었다. 쌀·콩 30석과 종이 1백 권을 부의로 주고, 소도군昭悼君의 처 심씨를 대신 정업원의 주지로 삼았다.

- 『태종실록』 8년(1408) 2월 3일.

1408년(태종 8)에 정업원 주지로 있던 공민왕의 후비가 사망하자, 소도군의 처 심씨를 정업원의 주지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상왕이었던 정종 왕비의 형[姉]이 정업원 주지로 있었다.[『태종실록』 11년(1411), 9월 27일] 그런데 국초부터 대신들의 정업원 혁파 요구가 잇따랐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국가에서 유학을 숭상하여 이단을 물리침에 이미 사원을 삭제하고 또 그 전민田民을 감하였으나, 내원당과 정업원만은 주저하며 아직도 혁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업원 역시 고려조 때 불교에 혹하여 설치한 것으로, 저 비구니들은 모두 그 뜻을 얻지 못하고서 부처에게 투신한 자이니, … 내원당과 정업원의 1년의 비용을 계산한다면 모두 1백 석이나 됩니다. … 정업원을 혁파하여 그 토전과 장획을 모두 속공屬公하게 하소서. …” 하

였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케 하니, 위의 조항 중에 내원당은 명분과 실체가 서로 달라 혁파함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곧 말하기를, “정업원을 갑자기 혁파함이 불가하다.” 하였다.

— 『태종실록』 12년(1412) 7월 29일.

태종은 대신들로부터 내원당과 정업원의 혁파 요구를 받고, 내원당의 혁파 요구만을 들어주고 정업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정업원과 관련한 음사(淫事)가 계속 보고되자, 세종은 1448년(세종 30)에 철폐하였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보고 내용을 아뢰기를, “정업원을 점차로 혁파할 것을 이미 명하였습니다. 양반의 부인이 남편이 죽은 뒤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 것은 정절을 온전히 하려고 함이오니, 굳이



사진 1. 서울 창신동 소재 정업원 터 비각. 사진: 국가유산청.



사진 2. 정업원 현판. '전봉후암어천만년前峯後巖於千萬年'이라는 내용이 걸려 있다.

가족과 친족을 떠나서 용렬한 비구니들과 어울리면서 밖에서 무리 지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지의 호칭이 비구승과 구별이 없사 오니 더욱 더 편안하지 못합니다. …”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30년(1448) 11월 28일.

정업원을 복원한 세조와 문정대비

그러나 왕실 후궁과 사족 여성의 출가는 지속되었다. 세종이 사망하던 저녁에 후궁으로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 사람이 대략 10여 명이나 되었다.(문종 즉위년, 1450년 2월 27일) 당시 후궁의 출가가 이어지자 조정 대신들은 이를 금지하도록 청하기도 하였다.

집현전 부제학 신석조 등은 대행왕(문종)의 후궁들이 머리를 깎았다는 말을 듣고 의논하기를, “신 등이 일찍이 대행왕의 하교를 친히 들었는데 말씀하기를, ‘세종의 후궁이 비구니가 된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 뒤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으니, 지금 후궁이 비구니가 되는 것은 실로 대행왕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드디어 허후에게 말하여 황보인·김종서에게 고함으로써 그치게 하기를 청하였다.

- 1452년(단종 즉위년) 5월 18일.

세종 대에 정업원을 철폐하였지만, 세종과 문종의 후궁과 사족 여성들의 출가가 이어졌다. 이에 왕실 비빈들은 세조에게 정업원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세조는)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과부와 외로운 여자들이 대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데, 비구니란 실로 궁박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정업원을 세우고 이곳에 모여 살게 하여 이들을 구제하려고 한다. …” 하였다.

- 『세조실록』 3년(1457) 9월 8일.

불교 신앙이 깊었던 세조가 왕실 비빈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정업원을 복원하였지만, 세조가 사망한 후 조정 대신들은 또다시 정업원을 철폐하고 왕실과 사족 여성의 출가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대사헌 김승경 등이 아뢰기를, “수춘군의 부인이 이제 정업원의 주지가 되었으니, 종실의 부녀자로서 비구니가 된 것만 해도 벌써 잘못인데, 더구나 주지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매우 마땅하지 못합니다.”

- 『성종실록』 13년(1482) 2월 2일.

대신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왕들은 정업원을 유지하였다. 성종은 “정업원은 국초부터 있던 것이므로 없앨 수 없다.”고 하였다.[『성종실록』 18년(1487) 2월 3일] 그러나 연산군 대에 정업원은 다시 철폐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연산군이) 전교하기를, “대궐 서편 정업원 같은 데의 인가를 아직 철거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오늘 안으로 즉시 철거시키되, 그렇지 못하면 뒤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연산군일기』 10년(1504) 8월 11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대비는 연산군 대에 철폐되었던 정업원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 전날의 정업원을 인수궁에 소속시켰다가 사무에 여유가 있거든 아울러 수리하여 선왕의 후궁 중에 연고가 생기는 이를 거기에 이주시키도록 하라. 또 정업원 수리에 소요되는 목재와 기와는 호조와 내관이 동시에 자세히 조사하게 하라.”고 하였다.

- 『명종실록』 1년(1546) 7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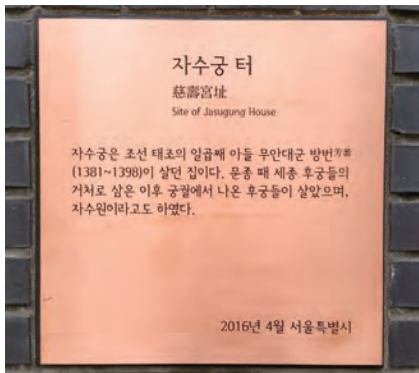


사진 3. 경복궁 서쪽 서촌에 있는 자수원 터 표식. 한때 5천여 명의 비구니들이 수행한 곳이다.

이때 문정대비의 명령은 유생들의 반대에 부딪쳐 곧바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업원이 다시 복원된 것은 1550년(명종 5) 3월에 이르러서였다. 하지만 유생들의 정업원 폐지 요구가 선조 때까지 지속되었고, 마침내 1612년(선조 40)에 폐지되고 더 이상 복원되지 못하였다. 이후 정

업원이라는 명칭은 복원되지 못하였지만 비구니들이 머물던 자수원과 인수원은 현종 때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임금이 도성 내 두 비구니원의 혁파를 명하였다. 40세 이하의 비구니는 모두 환속시켜 결혼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늙어서 돌아갈 곳

이 없는 자들은 모두 도성 밖 비구니원으로 내보내되 40세가 넘었더라도 환속하려는 자는 허락하라고 하였다.

— 『현종실록』 2년(1661) 1월 5일.

백곡처능의 「간폐석교소」

현종이 혁파한 두 비구니원은 자수원과 인수원을 말한다. 선조 대에 혁파되었던 정업원을 대신하여 비구니원으로서 자수원과 인수원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종 대에 이르러 두 비구니원을 철폐하고 40세 이하의 비구니는 환속시켜 결혼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비구니는 도성 밖 비구니원으로 내보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당시 현종의 비구니원 철폐 명령에 항의하며 백곡처능(1617~1680)이 「간폐석교소 諫廢釋教疏」를 올렸다.

삼가 조정의 소식으로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보았는데, 비구와 비구니를 사汰沙汰(가려냄) 시키도록 하여 비구니는 이미 환속시켰고,



사진 4. 백곡처능 스님의 저서 「대각등계집」.



사진 5. 「대각등계집」에 실린 「간폐석교소」 부분.

비구 또한 폐지를 의논했다고 하니, 신은 참으로 어리석어 임금의 생각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 자수원과 인수원은 궁궐 밖에 있으니 즉 선대 왕후의 내원당입니다. 봉은사와 봉선사 두 사찰은 능침 안에 있으니, 즉 선왕先王의 외원당外願堂입니다. 내외를 구분 지은 것은 역시 남녀의 구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루의 아침저녁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로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제도입니다. 사찰은 국가와 더불어 흥하였고 국가와 함께 망하였습니다. 사찰이 있으면 국가의 경사요, 사찰을 훼손하면 국가의 재앙입니다.

— 『대각등계집』, 한국불교전서 제8책.

선교도총섭禪敎都總攝의 직위에 있던 처능은 조정에서 도성 내에 있던 자수원과 인수원을 철폐하고 비구니들을 환속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에게 그 부당함을 알리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이미 조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이로써 도성 내의 비구니원은 더 이



사진 6. 약연 위치를 보여주는 대동방여전도. 사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진 7. 1910년대 약현 언덕 주변과 약현성당. 이 언덕에 약초를 재배하는 밭이 있기 약현으로 불렸다고 전한다. 사진: 조선일보.

상 복원되지 못하였다. 다만 도성 밖 성저십리城底十里 혹은 한양 인근에는 비구니 사찰들이 곳곳에 존재했다. 가령 성현의 『용재총화』(1525)에 의하면, 오늘날 서울의 만리동에서 충정로 3가로 넘어가는 약현藥峴이라는 고개에 비구니원이 있었다고 하였다.

일찍이 성 안의 니사尼社는 정업원만 남겨두고 헐어 버리고 모두 동대문 밖 안암동 등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서너 채만 남아 있었다. 남대문 밖 종약산 남쪽에 옛날부터 한 채가 있었는데, 그 뒤에 두 비구니가 각기 그 곁에 작은 집을 짓고 여기에 거처하더니, 지금은 10여 채가 되었다.

— 『용재총화』 권8.

그 후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정업원이 있었던 위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영조는 정업원이 있던 곳을 찾아서 비석을 세웠다.



사진 8. 정업원이 있던 응봉산. 사진: 성동구청.

임금이 정업원의 옛터에 누각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고,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 다섯 자를 써서 내렸다. 정업원은 흥인문 밖 산골짜기 가운데에 있는데, 남쪽으로 동관왕묘와 멀지 않았으며, 곧 연미정동으로 단종 대왕의 왕후 송씨가 지위를 내어준 후에 거주하던 옛터이다.

— 『영조실록』 47년(1771) 8월 28일.

현재 영조 대에 세운 ‘정업원구기’가 동망봉東望峰(성북구 보문동6가와 중로구 송인동에 걸쳐 있는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정업원이 있던 옛터라는 설이 있었다. 하지만 『실록』의 여러 기록을 통해 정업원이 원래 응봉鷹峰(성동구 응봉동과 용산구 한남동에 걸쳐 있는 봉우리) 아래 창경궁의 서쪽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업원구기가 동망봉 아래에 세워진 것은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가 동망봉에 있었던 사실과 또한 그가 정업원 주지로 있었던 사실이 얽혀서 잘못 전해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古

○ **이중수**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 사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 교수와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국립순천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서로 『운봉선사심성론』, 『월봉집』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조선 후기 가흥대장경의 복각」, 「16-18세기 유학자의 지리산 유람과 승려 교류」 등 다수가 있다.

자연의 선물, 발효



박성희_ 한국전통음식연구원

유네스코가 우리나라 김장문화를 인류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김장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인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문화도 점차 사라져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의 김장문화를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물론 마을공동체에서 가족공동체로 축소되긴 하였지만 김장문화는 아직도 우리나라 가족 행사 중에 가장 즐거운 모임문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김장할 때는 기가 막힌 레시피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집집마다 기억하는 김치의 맛이 있으므로 그 맛을 찾아서 양념을 하고 맞춰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맛이 최고의 레시피가 되는 셈입니다. 혀가 기억하고, 향기가 기억하고, 그리고 가족의 추억이 기억하는 맛이 바로 우리집 최고의 김장맛이 됩니다. 유네스코가 김치를 인류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김장문화를 인류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1. 사찰의 김장 풍경. 사진: 송광사.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이 된 한국의 장문화

김장문화에 이어 작년 2024년 12월 3일 드디어 한국의 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장 담그기 문화가 공동체 문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촉진하고 공동의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는 평가입니다.



사진 2. 메주.

사찰음식은 장을 기본양념으로 활용하는 한식의 틀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절메주, 절된장, 절간장이라는 말로 사찰의 장은 일반 장보다 특별하게 여기기도 하였으니 거기에는 분명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통의 맛과 지혜가 담긴 장담그기 문화는 미래의 씨앗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사람을 건강하게 연결시키는 발효醱酵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다림과 정성을 통해 완성되는 장은 철학적이고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단순히 음식에 지나지 않은 소중한 가치를 담아 만들어지는 장이기에 정말 장한 음식입니다.

장 담그러 절로 절로

장 담그기 문화는 장을 담그는 행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콩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콩 한 알 한 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수확되는지, 재배 과정에서부터 메주를 썬 일까지 공동체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기에 장 담그기 문화는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장이 발효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통틀어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유네스코는 장 담그기의 문화적 배경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벽사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의식과 장독대를 지키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정성과 사랑이라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인류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진 3. 포항 죽장연의 장독대.

2025년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의 문을 열며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고경》과 함께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원고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월장을 담그는 일은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풍습입니다. 지금 정월달이 되었고, 우리는 장을 담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정월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미리 메주를 만들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장을 직접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장을 담기로 마음을 내셨다면 발효가 잘된 메주를 구입해서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해남에서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신 장을 먹었지만 장 담그기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와 전원주택에서 여러 번 만들어 보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정한 곳에서 장 담그기 행사도 진행하게 되었고, 스님들의 장담그기 비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 담그기 행사를 시작으로 장 가르기까지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좋은 콩을 선별하고 메주를 만드는 과정부터 발효까지 완벽하게 소화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찰에서도 장 담그기 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독을 분양하고 함께 담그는 문화를 이끄시는 스님들이 계시니 가까운 곳에서 배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중음식 속에 사찰음식

조선시대 고조리서 중에 학자인 홍석모가 쓴 『동국세시기』와 조선 말기 요리책으로 지은이가 밝혀지지 않은 『시의전서』에는 장김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색李穡은 『목은고牧隱藁』에서 “개성 사람 유순이 우엉, 파, 무와 함께 침채장沈菜醬을 보내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침채장

역시 일종의 장김치입니다.

지난 정월달에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을 통해 장 담그기에 대해 자세히 배워 보았으니, 이번에는 장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궁에서는 장고醬庫를 만들어 장독대를 지키는 장고마마라는 소임을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장과 된장을 갈라서 사용하지만 궁에서는 된장보다 간장을 매우 귀하게 여겼으며, 궁중음식은 간장으로 양념하는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하여 장김치 역시 궁중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장김치는 소금 대신 간장으로 절이고 간을 하여 밤, 잣, 석이버섯, 배 등을 넣어 국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만든 김치입니다. 장김치의 종류인 벼락김치나 장통김치의 요리에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사찰



사진 4. 경복궁 장고.

음식의 장김치와 만드는 법이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강은 들어가되 마늘은 들어가지 않았고, 미나리는 들어가되 파는 넣지 않았으며, 간장을 넣되 젓갈은 넣지 않았습니다.

궁중음식과 사찰음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궁중음식 속에서 사찰음식을 찾아내고, 사찰음식 속에서 궁중음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귀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장김치는 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상류층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던 음식이었습니다.



사진 5. 장김치.

다. 장김치는 궁중과 가까이에 거주하던 관리 계급, 또는 이들과 문화 교류가 가능한 지방의 양반층에서 즐겨 먹던 김치였습니다.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떡을 안주로 올린 주안상이나 떡국상에 올렸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잘 발효된 간장으로 장김치沈醬菹 담그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박성희** 궁중음식문화재단 지정 한식예술장인 제28호 사찰음식 찬품장에 선정되었다. 경기대학교에서 국문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식과 명상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궁중음식연구원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사찰음식전문지도사, 한국임업진흥원, 한식진흥원 교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식물기반음식과 발효음식을 연구하는 살림음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논문으로 「사찰음식의 지혜」가 있다. 현재 대학에서 한식전공 학생들에게 한국전통식문화와 전통음식을 강의하고 있다.

장김치 沈醬菹

【 재료 】

재료_ 배추 1통, 무 1개, 배 1개, 토종갓 300그램, 생강 1톨, 잣, 밤, 석이버섯, 실고추.

채소절임 재료_ 진간장, 소금.

국물 재료_ 끓여서 식힌 물, 간장, 소금, 꿀(조청).

【 만드는 법 】

1. 무와 배추, 갓은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줍니다.
2. 준비된 채소에 진간장을 넣고 절여 주세요.
3. 배, 생강, 밤, 석이버섯을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4. 준비된 채소에 식힌 물을 넣고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 줍니다.
5. 꿀이나 조청을 넣고 간을 맞춰 줍니다.
6. 바로 먹는 물김치로 잣과 실고추를 띄워 고명을 올려 냅니다.

TIP.

- 생강은 뺀지 않고 얇게 저며서 사용합니다.
- 주로 겨울에 먹는 김치이지만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채소를 넣어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 소금에 절인 채소에 간장 달임물을 만들어 넣어서도 좋습니다.
- 채소를 통으로 담글 때는 장을 끓여서 한 김 나가면 부어 주는데 오래 먹을 때는 장을 한 번 더 끓여 식혀서 부어 줍니다.



사진 6. 장김치.

12연기와 『금강경』의 사상



일행스님 해인사 출가. 정림사 거주

질문

지난번 『쌍웃파니까야』 경전 공부 중에 아상我相은 ‘주관적 자아’, 인상人相은 ‘객관적 자아’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상四相의 아상, 인상 역시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중생상衆生相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중생상이라고 하는지요? 그리고 수자상壽者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전에 아상我相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나’이고, 인상人相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나’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경전 『쌍웃파니까야』에는 이런 표현이 곧잘 등장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自我이다.

여기서 ‘나’는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드러난 나의 모습, 즉 인상相을 말합니다. 현재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은 사람의 형태입니다. ‘나의 자아’는 내 깊은 의식 속에 스며 있는, 주관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현재 알지 못하고 있는 ‘자아의식’, 즉 아상我相을 말합니다.

나의 존재방식은

왜 ‘나’를 이렇게 ‘객관적인 나’와 ‘주관적인 나’로 구분지어 언급하는 걸까요?

우리의 존재방식은 명색名色입니다. 즉 의식[마음/명名]과 육체[물질/색色]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명색 전체로서 지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相입니다. 이 인상이 나의 깊은 의식 속에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정보로 심어지고[형성되고] 있고, 이렇게 심어진 정보는 현재 내가 일으키는 마음작용을 물들이는[형성하는] 정보(업력業力)로 작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인상은 깊은 의식에 심어지면서 훗날 미래의 나를 복원시키려는 아상으로서의 잠재된 끌림으로 작용합니다.

12연기의 2번째 ‘행行’은 ‘형성形成’으로 번역하는데, 3번째 ‘식識’을 물들이는 잠재적 충동력인 썸입니다. 이 형성으로 말미암아 물든 식識이 있

게 되고, 이 식의 물들이 인연의 끌림으로 작용하여 태胎에 들게 되고, 그렇게 하여 이 세상에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명색名色’의 존재방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이기에 인상人相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각각의 생명체가 스스로를 지각하는 지능이 있다면 자신의 현재 모습대로 자신을 지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상은 객관적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연기법과 사상

12연기緣起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니, 『금강경』의 사상四相을 계속해서 12연기법에 견주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2연기는 첫 언급의 시작을 ‘무명無明’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과 오류가 일어나는 것은 ‘알지 못함’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회輪廻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의 모든 존재의 생성과 소멸은 단지 그 흐름의 한 단면이고 한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 즉 성成·주住·괴壞·공空, 생생·노老·병病·사死, 생생·주住·이異·멸滅 등 그 어떤 것도 흐름에서의 변화의 모습들이기에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며 잘못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입맛대로 왜곡해서 보는 그릇된 견해가 있어서 결국 마음에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견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12연기에서 첫 번째 ‘알지 못하는 상태’, 무명無明 상태임을 전제前提로 하면서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업業입니다. 업은 ‘행위’에 대한 ‘정보情



사진 1. 육도유회도의 원판. 사진 : 현대불교.

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언급합니다. '심어지는 업'과 '제공되는 업'입니다. 심어지는 업은 '정신의식에 의해서 깊은 의식으로 가는 업'이고, 제공되는 업은 '깊은 의식에서 정신의식으로 가는 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 나의 의식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정신의식은 '인식'과 '반응'을 합니다. 이 인식과 반응은 식識이 일으키는 움직임, 즉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정신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신체적 행위가 그것입니다. 이를 삼업三業이라고 합니다. 행위는 사라져도 행위에 대한 기억은 남게 됩니다. 행위는 정신의식이 일으키고, 그 기억은 깊은 의식에 저장됩니다. 이 저장되는 업業을 '심어지는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식에 의해서 일어난 행위, 즉 업삼업이 있고, 그 업이 깊은 의식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 저장된 업은 언젠가 다시 정신의식에 제공되어 인식과 반응이라는 식識의 활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요인要因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업력業力이라고 하며, 12연기의 두 번째 '행行'으로 언급되어집니다.

이 2번째로 언급되는 행行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여기는 자아의식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를 아상我相이라고 하며, 인상人相이 가미加味된 자아의식[12연기의 3번째 '식識']입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심어진 자아에 대한 정보[심어진 인상人相는 사람이라는 정보가 많이 들어 있겠지요. 이렇게 인상人相이 가미된 아상我相에는 자신의 옛 모습을 복원시키려는 끌림이 있게 되고, 이 끌림은 자연스럽게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태胎와 인연되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결합된 존재방식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불교

적 표현으로는 ‘명색名色’[12연기의 4번째]이라고 합니다. 성장하여 인식을 할 즈음부터 현재의 나의 모습을 ‘나’라고 알게 되는데, 이를 인상人相이라고 합니다. 의식 속에 심어지는 나에 대한 정보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물질적인 몸에는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육근六根이라고 합니다.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가 그것입니다. 이 감각기관에 의해 내 안에 들어온 대상의 정보가 있습니다.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이라는 육경六境입니다. 이 육근에 의한 육경이 나의 정신의식에 들어온 대상에 대한 정보인데, 이를 ‘육입六入’[12연기의 5번째]이라고 합니다.

이 육입에 의한 정보에 정신의식이 주의를 기울이면 비로소 접촉이 일어나고[12연기의 6번째 ‘촉觸’], 이로 인하여 느낌[12연기의 7번째 ‘수受’]이라는 의식작용이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느낌에 영향받아서 ‘개념적인 지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위 입맛에 따른 왜곡된 인식입니다. 그 인식에는 자아를 충족시키려는 욕망[12연기의 8번째 ‘애愛’]이 있습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나의 반응은 집착[12연기의 9번째 ‘취取’]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여기서 질문을 볼까요. 중생상衆生相을 물으셨죠?

현재 나의 마음 작용에는 욕망과 집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 마음은 들뜨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를 괴로움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현재의 나의 마음은 애愛·취取가 들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動搖하고 있는 모습을 ‘중생상衆生相’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충족을 위한 자기 본위로 세상을 살면서 내



사진 2. 가야산 해인사 마애불의 미소. 사진: 양현모(2024).

의식에는 ‘나라는 자아의식’이 점점 자라게 되고, 내가 지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유지·보존하려는 근본 욕망 또한 강성해지게 됩니다. 이를 사상四相 중의 마지막 ‘수자상壽者相’이라고 하며, 12연기의 10번째 ‘유有’를 수호守護하려는 욕망입니다. 이 유有는 ‘존재한다는 자아의식’으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애愛·취取라는 중생심衆生心에 의해 덧씩 위지고(업데이트되고/형성되고), 이렇게 덧씩위져 심어진 변화된 자아의식은 앞으로 대상을 접촉함으로써 일어나는 마음을 왜곡하는 형성의 업력業力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명으로 시작하여 물든 인식이 일어나는 존재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강경』의 사상四相에 빗대어 말하자면)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을 해결하지 못하면, 윤회輪廻의 흐름 속에서 여전한 꼬달림에 의한 ‘생生’[12연기의 11번째]이 있게 되고, 이 태어남으로 인해 갖가지 괴로움의 증상인 ‘노老·사死·우憂·비悲·고苦·뇌惱’[12연기의 12번째]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언급하다 보니 말이 길어지고, 내용 또한 다소 난해難解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철스님께서는 “『금강경』의 사상四相을 ‘주관’, ‘객관’, ‘공간’, ‘시간’으로 풀이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스님의 만상좌인 천제스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를 빗대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상我相은 깊은 의식에 심어져 있는, 근원적인 자아의식으로 ‘주

관적인 나입니다. 이것이 제공되는[형성] 업 속에 깃들여 있어 의식을 물들입니다.

- 3번째 '식識', 예고의 출현

- 인상人相은 명색名色이라는 존재방식으로 있는 동안 자신을 지각하는, 현상적인 자아의식으로 '객관적인 나'입니다.

- 4번째 '명색名色으로 느끼는 나'

- 중생상衆生相은 현재 나의 내면이라는 공간[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아를 기반基盤한 중생의 모습[마음작용]입니다.

- 8번째 '애愛' · 9번째 '취取'의 발현

- 수자상壽者相은 자아를 영속永續시키려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욕망의 모습입니다.

- 10번째 '유(有)'의 수호守護

평소 『금강경』의 사상四相을 12연기緣起와 연결하여 사유思惟하곤 하였는데, 질문 덕분에 글로써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수행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卍

※정림사 일행스님의 글을 더 보실 분은 <https://cafe.daum.net/jeonglimsarang>을 찾아주세요.

봉발신앙과 법주사의 봉발석상



정종섭_ 한국국학진흥원장

부처의 발우 이야기는 여러 불전佛典 자료에 나온다. 싯다르타가 무화과나무 숲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처음으로 음식을 공양한 사람이 박트리아Bactria 출신의 카라반caravan 거상巨商이었던 트라푸사(Trapuṣa, Tapussa, 提謂)와 발리카(Bhallika, Bhalluka, 波利) 형제였다.

불전에 나타난 봉발신앙

고행상의 좌대 등에 이들의 음식 공양 모습을 새긴 것이 있는데, 이런 부조는 2~3세기 간다라 조각 등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보릿가루와 꿀로 만든 반죽과 차를 붓다에게 올릴 때 붓다에게는 발우가 없었다는 것이다. 외도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지만 과거의 붓다들은 이들과 달리 손으로 먹지 않고 발우에 담아 먹었다.

그래서 싯다르타도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는데, 이때 보살이 정각正覺을 이루면 반드시 발우를 올려야 하는 임무를 지고 있는 4명의



사진 1. 사천왕의 발우 봉헌 모습. 라호르박물관.

사천왕이 각자 돌산에서 돌로 곱게 만든 발우를 가져와 붓다에게 올렸다. 붓다는 그들이 올린 4개의 그릇 중 어느 하나만 사용할 수 없어 신통력으로 4개를 포개어 하나의 발우로 만들어 두 형제가 공양하는 음식을 담아 먹었다. 그리고 이 발우는 붓다가 열반에 들 때 자신의 가사와 함께 가섭에게 전하면서 나중에 미륵불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서양 중세의 기사knight 이야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기독교의 성배聖杯(Holy grail) 이야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의 성배나 붓다의 발우나 전설만 있을 뿐 확인된 것은 없다. 트라푸사와 발리카 형제가 음식을 싯다르타에게 올린 것까지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사천왕이 돌로 만든 발우를 싣다르타에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붓다의 발우가 미륵불에게 전해지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롭다.

『아육왕전阿育王傳』이나 『대지도론大智度論』과 같은 불전에 의하면 쿠시나가르에서 붓다가 열반에 들게 되었을 때 가섭에게 자신의 가사와 발우를 미래의 붓다인 미륵불에게 전하도록 하였고, 가섭은 이에 따라 쿠쿠타파다(Kukkuṭapāda, 屈屈吒播陀) 또는 구루파다(Gurupāda, 婁盧播陀)라고 부르는(현 Grupa hill) 즉 계족산(鷄足山=존족산尊足山)에서 이를 가지고 선정에 든 상태로 미륵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상 붓다의 발우는 아직 계족산에 있으며 56억 여년 후에 강림할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이와 다른 버전도 있다. 싣다르타가 바이살리(Vesali, 비사리毗舍離)의 암라원(Amrपालivana, 내씨원捺氏園)에 있다가 열반에 들게 되는 쿠시나가르로 가



사진 2. 두 상인의 공양과 4개의 발우 봉헌. 탁실라박물관.



사진 3. 두 상인이 올린 최초 공양. 페샤와르박물관.

게 되는데, 이때 붓다와 헤어지기를 슬퍼하며 따라오는 바이샬리의 릿차비(Licchava, 울침파자栗咕婆子, 리차자離車子) 사람들과 케사뿌타 마을(현 케사리아Kesariya)에서 이별하며 발우를 허공에 던져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이 나중에 북천국 쿠산제국의 왕 카니시카(Kanishka, 가이색가迦膩色迦, 재위:127~150?) 왕이 중천국 파탈리푸트라[華氏國]을 정복하고 제국의 수도인 푸르샤푸르(=페샤와르Peshawar)로 가져왔다고 한다.

이 발우는 불발사佛鉢寺의 탑에 안치하였다고도 하고, 당나라에서 온 구법승들이 이를 보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 현장 법사가 페샤와르에 왔을 때는 발우는 사라지고 없고 그것을 받치고 있던 보대寶臺만 남아 있었다고 했다. 발우가 있었던 곳을 지금의 페샤와르라고 쓴 자료도 있고 카슈미르Kashmir라고 기록한 자료도 있다. 유목민인 쿠산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페샤와르에 있던 발우는 어디로 갔을까? 오늘날 카불Kabul 박물관에 있는 거대한 발우 모양의 석조물이 그것이라는 견해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큰 돌그릇으로 붓다가 음식을 먹고 이를 허공에 던졌다고? 연구자들이 해명할 문제이다.



사진 4. 고행상 좌대에 그려진 발우 봉헌 모습. 라호르박물관.

아무튼 붓다의 발우는 정작 인도에서는 성물도 아니고 이를 경배하는 행위나 신앙도 없었는데, 나중에 간다라 지방에서 발우를 경배하는 봉발신앙과 행위가 나타났다. 어쩌면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싯다르타가 죽고 없는 상태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는 경배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탑이나 불상을 조성한 것과 같이 붓다의 발우를 붓다의 가르침[佛法]으로 상징화하고 급기야 발우를 경배하고 신앙하는 행위를 한 것 같다.

간다라 지방에서 붓다의 발우는 붓다 일대기에서 한 장면으로 석물에 새겨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발우를 경배의 대상으로 하는 장면도 나타나기에 이른다. 아예 발우를 그 자체 단독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조성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릇의 표면에 여러 장의 연꽃잎을 새겼다. 발우 하나만 단독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다 보니 불상처럼 큰 것도 조성되었다.

이러한 붓다의 발우는 불전설화에 서 이렇게 사천왕과 미륵불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 미륵불을 모신 용화보전 앞에 발우와 사천왕이 새겨진 석등으로 장엄한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 석련지를 ‘진리의 그릇’인 붓다의 발우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을 가진다. 아무튼 이런 사정으로 보면, 법상도량에 합당하게 봉발석상, 사천왕석등, 석련지 등은 원래의 자리로 다시 옮겨 놓는 것이 옳다.



사진 5. 운주사 봉발형다층석탑.

이러한 붓다의 발우를 경배의 사상으로 하는 봉발신앙에 비추어 보면, 화순 운주사雲住寺의 이상한 탑 가운데 봉발형다층석탑은 어쩌면 사천왕이 붓다에게 올린 4개의 돌발우를 포개어 놓은 모양을 조성하여 돌기둥 받침에 올려놓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사람들이 이를 조성하였을까? 혹시 남방계 불교 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아닐까?

추래암과 마애여래의좌상

석련지에서 다시 뒤로 돌아오면 마애여래의좌상磨崖如來倚坐像이 새겨진 큰 바위가 있다. 이를 수정봉에서 굴러떨어진 추래암墜來巖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사실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앞에는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을 새겨놓은 큰 바위가 있고, 이 두 바위 위에 큰 바위가 얹혀 있는 석문 사이에 석굴 같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지장보살상을 새긴 것은 진표 율사가 지장보살로부터 계를 받은 이야기에 바탕을 둔 것일 수도 있는데, 석문 양쪽 바위 면에 미륵여래상과



사진 6. 범주사 추래암.



사진 7.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 사진: 국가유산청.

지장보살상을 새긴 것이 어찌면 법주사가 미륵신앙과 지장신앙을 축으로 하는 진표계 법상종임을 말하려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마애여래의좌상은 목에 3줄의 주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부조로 새긴 것으로 본다. 약 6m 정도의 큰 바위에 미륵불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은 중국에는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유일하다. 간다라 불교조각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붓다의 모습이 많다. 미륵불을 새긴 것은 법상종의 도량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진표 율사가 미륵보살에게서 점찰경과 불자 간자를 받은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른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연꽃 위에 걸터앉아 있고, 발도 큰 연꽃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다. 이런 자세는 다른 마애불에서는 보기 드물다.

마애여래의좌상이 새겨진 바위의 안쪽에는 바위 면에 폭 4m 정도 높이가 2m 정도의 면적에 5~6명의 인물과 5마리의 말 등을 선으로 파서 새겨놓았다. 그림의 형태나 미륵여래상과 닿는 부분이 깎여진 것을 보면, 이 그림이 먼저 새겨졌고 마애여래좌상이 나중에 조각된 것으로 보인다. 진표 율사가 법주사로 가는 길에 수레를 끌던 소를 만났을 때 소가 무릎을 꿇고 붓다의 가르침을 구하자 마부도 율사에게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는 설화를 표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의신조사가 불경을 가져온 이야기를 새긴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중국의 불교가 처음 전해지던 낙양의 백마사 청건설화를 그린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인물이나 동물이 여러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모양도 다양한 것으로 보아 이런 설화와는 무관하게 어떤 기도처에 그린 그림이라고 보기도 한다. 큰 바위 사이의 이 공간이 그 옛날에 무엇으로 사용된 것인지 궁금하다. 어찌면 절이 들어서기 이전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세존사리탑

이 바위에서 오른쪽으로 능인전(能仁殿)과 사리각(舍利閣)이 있고, 그 뒤에 세존사리탑이 있다. 1362년 공민왕이 법주사에 왔을 때 통도사의 진신사리를 가져와 친견한 후 하나를 여기에 모셨다고 한 바로 그 사리이다. 세존사리탑은 그 후 조선시대에 조성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의 탑으로 기단부 위에 장식이 없는 둥근 모양의 탑신(塔身)을 얹고 그 위에 옥개석(屋蓋石)을 얹은 다음 보주(寶珠)로 상륜부를 장식하였다.

능인전은 법주사를 중건할 때 세운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16나한을 모신 나한전의 역할을 한다. 원래는 이것이 사리각이었는데, 뒤편의 세존사리탑을 모시고 있는 적멸보궁의 예배공간이었다. 능인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는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은 나한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사리각이라는 건물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 사리각은 과거에 노전(爐殿)이었다. 이름이 혼란스럽다.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법주사가 법상종의 도량이고 미륵신앙의 도량이라면 이 공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팔상전을 기준으로 수정봉을 바라보면, 수정봉을 주봉으로 하여 법상종의 주존인 미륵불을 봉안한 금당이 있었고, 그 앞에 미륵세계를 상징하는 봉발석상, 사천왕석등, 석련지가 장엄을 하고 있었으며, 그 옆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는 미륵여래의좌상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미륵하생신앙의 세계를 구현한 것이라고 보이고, 나중에 그 옆 혈처(穴處)에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신 세존사리탑을 조성하고 능인전을 조성한 것은 미륵상생신앙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이런 석물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고, 용화보전도 사라지고



사진 8. 법주사 세존사리탑

거대한 금색미륵여래입상이 서 있어 그러한 체계적인 공간 구성이 가지는 의미를 음미하기 어렵게 되어 버려 세존사리탑도 구석에 방치된 것처럼 되어 있다. 석물들도 원래 자리로 옮기고 이 공간을 법주사의 중심 공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법주사의 전체 모습이 다시 살아난다. 법상종의 주존인 미륵불을 모신 산호전(=용화보전)으로부터 현세의 석가모니불을 모신 팔상전과 그 앞 석등으로 이어지는 동서축은 미륵신앙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공간이 된다. 금강문에서부터 팔상전과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과 그 너머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연화장세계의

대웅보전(=대웅대광명전)으로 이어지는 남북축은 나중에 조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화엄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공간이 된다.

팔상전은 이 두 축이 서로 만나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주불전이 두 개가 되는데, 비로자나불의 대웅대광명전은 관음봉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미륵불의 용화보전은 법주사의 주산인 수정봉을 주 배경으로 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법주사의 역사에서 왜 수정봉이 가지는 의미가 가장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미륵도량의 주산이기 때문이다.

법주사는 법상종의 도량이라서 미륵불과 아미타불을 모시는 것이 기본이지만, 비로자나불이 봉안된 것은 법상종의 소의경전에 『유가사지론』, 『해심밀경』, 『십지경론』과 함께 『화엄경』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신라의 법상종은 중국과 달리 화엄적인 색깔이 혼유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도 보인다.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종래의 불교가 선교 양종으로 통합되어 불교의 모습이 왜곡(?)되고 사찰 역시 엄격한 가람배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찰을 보면, 그 가람배치가 시대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고, 교종과 선종에 따라 다르게 된 경우가 있다. 교종 사찰에서도 미륵 신앙이나 미타신앙에 따라 다르고 화엄도량이나 법화도량이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 당우들이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변형이 가해져 이제는 원래의 모습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卍

○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전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전 행정자치부 장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헌법학 원론』 등 논저 다수.

돈점 논쟁은 돈문頓門 안에서의 일이다



박태원_ 울산대 명예교수

돈頓과 점漸은 연속과 불연속의 문제

‘돈’과 ‘점’의 대비는 ‘연속과 불연속’의 문제다. 연속은 ‘어떤 전제가 유효할 수 있는 체제·계열·범주의 지속적 유지와 연장’이고, ‘어떤 전제를 토대로 구성된 체제·계열·범주 안에서 그 전제가 유효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지칭한다. 그리고 불연속은, ‘어떤 전제가 유효한 체제·계열·범주로부터의 탈출’이고, ‘어떤 전제를 토대로 구성되어 그 전제가 유효할 수 있는 인과관계와의 결별’이다.

‘시간의 시선’으로 본다면, 돈과 점은 ‘단번에’와 ‘점차’의 차이와 대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돈점 논쟁을 바라보는 시선의 다수는 돈점의 차이를 시간의 문제로 파악하곤 한다. 그러나 시간의 시선만으로는 돈오사상의 본의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돈오에 관한 수많은 혼란과 오해, 불필요한 논쟁, 겉도는 논란의 원인이 되곤 한다. 돈오 통찰의 핵심은 시간의 시선보다는 범주·계열의 시선으로 포착하는 것이 적절하다. 돈오의

맥락과 초점은 ‘시간적 노력의 종결’보다는 ‘범주·계열에서 한꺼번에 탈출함’에서 읽어내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야 돈오의 수행론적 생명력에 부응한다.

돈문頓門과 점문漸門

돈문은 ‘출발점부터 한꺼번에 바꾸는 측면’이고, 점문은 ‘출발점을 유지하면서 바꾸어 가는 측면’이다. 이러한 돈문과 점문의 구분은 불교 특유의 통찰에서 유래한다. 자아와 현상세계에 대한 관점과 이해를 그 출발점부터 해체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하는 통찰이 그것이다. <사실 그대로를 왜곡하는 관점 및 이해가 유효한 계열 및 범주 안에서 사유·욕망·행위를 바꾸며 수립해 가는 것>은 점문, <관점 및 이해를 그 출발점부터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것’으로 바꾸어 기존 사유·욕망·행위의 계열·범주에서 한꺼번에 빠져나온 후,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사유·욕구·행위의 계열·범주에서 삶을 재구성하는 것’>은 돈문이다.

자기에게 ‘불변의 순수한 영혼’이 있지만 오염물에 뒤덮여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갑돌이. 그는 본래의 그 ‘순수한 불변 영혼’을 참된 자아로 확신한다. 그러기에 그 자아를 가리고 있는 오염물의 제거를 인생의 과제로 삼는다. 육식이 오염의 원인이라 여기면 철저한 채식으로 바꾸고, 세속에 사는 것이 오염원이라 여길 때는 산중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산다. 사람과 만나는 것이 오염이라 보면 대인 관계를 끊는다.

욕구에 따르는 것이 영혼을 오염시킨다는 금욕주의 교리에 공감하면, 모든 욕구를 거부하려는 자학적 고행에 몰두한다. 비윤리적 행위를 그치면 순수 영혼이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는, 윤리 규범의 완벽한 준수

에 온 힘을 쏟는다. ‘순수·불변하는 영혼의 완벽한 행복과 영생’을 보장해 준다는 종교 교리에 따라 삶을 헌신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참 자아인 불변의 순수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을 전제로 전개되는 인과 계열 안에 있다. 그 인과 계열 범주 영역에서의 노력이며, 그에 따른 나름의 변화와 성취가 이어진다. 이 노력과 성취는 모두가 <불변의 순수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전제가 유효한 계열과 범주 내에서의 일이다. 점문 안의 행보에 속한다.

이런 갑돌이가 불교를 접했다. 기존의 자아관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불변·절대의 순수 영혼은 본래 없다. 자아를 비롯한 모든 현상은 변화와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특징적 양상이다>라는 관점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고 부정하고 싶었다. 철학, 과학, 심리학의 관련 성찰들을 찾아 심사숙고해 보았다. 결국은 수긍하게 되었다. 그 순간, <불변의 순수 영혼이 있고 그것이 참 자아다>라는 관점과 이해를 원인 조건으로 삼아 전개하던 기존의 노력은 모두 빛을 잃었다. 그러한 관점·이해를 조건 삼아 펼치던 일련의 판단·평가·감정·예측·선택 행위들에 더 이상 힘을 실을 수 없었다. 기존에 몸담았던 사유의 계열과 범주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관과 세계관에 입각한 새로운 삶의 계열과 범주에 진입했다. 돈문 안의 행보에 속한다.

돈점 논쟁은 돈문 頓門 안에서의 일

돈문 안에는 점문 안에서는 없던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리고 그 두 길은 서로 얽혀 있다. 마치 두 갈래 줄이 한 몸처럼 꼬여 짜여 있는 새끼줄처럼. 깨달음[悟]과 닦음[修]의 길이 그것이다. 깨달음의 길에서는 다시 돈



사진 1. 세상과 단절하고 금욕주의 삶을 지향하며 수행하는 요기(시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 2. 돈오돈수의 수행론을 담은 성철 스님의 책 『선문정로禪門正路』와 해설에 해당하는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장경각).

오의 내용 차이, 닦음의 길에서는 돈수와 점수의 차이가 엇갈리면서도 서로 얽혀 있다. '사실 그대로를 왜곡하는 관점 및 이해가 유효한 계열 및 범주' 안에서 통째로 탈출하는 '한꺼번에 깨달음[頓悟]', 그 깨달음을 내용으로 삼는 닦음[修]. - 이 두 길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의 충돌이 이른바 돈점 논쟁이다.

돈점 논쟁의 역사에서는 '한꺼번에[頓]'와 '점차[漸]'를 '깨달음[悟]' 및 '닦음[修]'과 결합하는 다양한 조합이 등장한다. 돈오돈수頓悟頓修, 돈오점수頓悟漸修, 점오돈수漸悟頓修, 점오점수漸悟漸修가 그것이다. 그러나 돈문의 핵심과 초점을 고려하면, 돈점 논쟁의 관점 차이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문제로 압축된다.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차이는 무엇이며, 수행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답하는 것이 돈점 논쟁 탐구의 핵심이다. 이 질문에 대해 선종의 용어나 이론을 그대로 채용하면서 재배열하여 대답하면 자칫 '개념·용어의 동어반복적 돌려막기'가 되고 만다. 수사적修辭的 순환 논리의 맴돌이 현상에 빠지게 된다. 한문 전적을 다루는 학인들이 유념해야 할 문제다. 한자는 여러 뜻을 담는 중의적重義의 문자이기 때문에, 용어

나 문장에 담긴 여러 의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은 용어와 문장을 대하는 사람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상적 의미가 담긴 용어나 문장은 특히 그러하다.

한자어나 한문 문장, 특히 불교 용어와 문장의 의미를 밝힐 때는, 자신이 선택한 관점과 이해를 ‘현재어 개념’에 담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한문 문헌에 대한 영어 번역이나 저술이 의미 전달력과 가독성이 높은 이유는, 한국어와 달리 한자 용어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한자어를 품고 있으면서도 관계사나 수식어가 고도로 발달해 있다.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탁월한 언어다. 다른 학인들도 그렇겠지만, 번역이나 연구 및 글쓰기에서 필자가 항상 유념하는 문제다. 돈오견성을 다루는 이하의 글들에도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갑돌이는 <참 자아인 불변·절대의 순수 영혼은 본래 없다>라는 관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참 자아인 불변·절대의 순수 영혼이 있다>라는 자아관을 원인 조건으로 삼아 전개하던 ‘사유와 행위의 인과 계열’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원인 조건으로 삼는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삶의 구성 계열과 범주’에 몸담게 되었다. 돈문 안의 행보가 시작되었다.

무아·연기의 가르침에서 보면, 점문에서의 수행은 <불변·절대의 자아가 있다는 관념을 토대로 삼는 사유·욕망·행위의 범주나 계열 안에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돈문에서의 수행은, <무아·연기의 관념을 토대로 삼는 사유·욕구·행위의 범주나 계열로 한꺼번에 자리를 바꾸어 향상해 가는 것>이다. 갑돌이의 경우는 구도적 노력의 장터를 점문으로부터 돈문으로 바꾼 사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돌이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섰다. 그는 분명, <불변·절대의 자아가 있다>라는 관념을 토대로 삼는 사유·욕망·행위의 범주와 계열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변의 순수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를 ‘한꺼번에’ 털어 버렸다. 자아에 대한 견해를 ‘무아·연기의 자아관’으로 ‘통째로’ 바꾸었다. 그는 이제, ‘자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토대로 삼는 사유·욕구·행위의 범주와 계열’에 몸담게 되었다. 적어도 관점과 이해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랬다.

그런데 자아에 대한 견해는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일상에서의 사유와 감정, 욕구와 행동은 여전히 예전 견해에 따르고 있지 않은가. 자아에 대한 관점은 한꺼번에[頓] 새로운 견해로 바뀌었지만, 삶의 대부분은 여전히 예전 견해가 이끌고 있지 않은가. 수행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유효한 수행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그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묻고 답하는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갑돌이가 봉착한 이 문제 상황은, 선종 선불교뿐 아니라 불교를 구도적 관심으로 탐구하는 모든 학인에게 유효하다. 그리고 구도 학인들을 다음과 같은 질문들 앞에 불러 세운다.

<삶의 두 계열(점문과 돈문)을 발생시키는 원초적 조건은 무엇인가? 단지 관점이나 이해의 문제인가?>, <돈문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해만으로 충분한가?>, <이해 수행의 효력과 한계는 무엇이고,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돈오견성은 삶의 어떤 변화를 전망하게 하는가? 돈오견성이 삶과 세상에 주는 구체적 이로움은 어떤 것인가?>, <돈오견성은 삶과 세계의 인과적 전개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인가?>, <니까야가 전하는 붓다의 범문은 돈오견성과 통하는 내용을 설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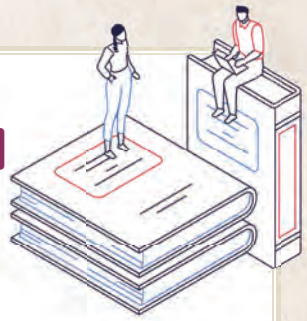
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붓다의 선禪과 선종의 돈오선頓悟禪은 현재 유행하는 명상(주의 집중)과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선종의 돈오선은 위빠사나(觀觀)와 사마타(止止) 수행을 어떻게 보는가?), <선종에서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변·절대의 궁극실재를 만나는 것인가? 아니라면 어떤 국면을 일깨워 주려는 것인가?), <선종은 왜 돈오 수행을 이론불교(敎宗)의 이해 수행을 뛰어넘는 최상승 수행이라고 평가하는가?), <지눌은 왜 이론불교(敎宗)의 ‘이해에 의한 깨달음[解悟]을 선종의 돈오에 연결하고자 하였고, 성철은 왜 그런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가?’¹⁾ 등등. - 선종의 선문 안에는 이런 질문들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답변들이 축적되어 있다. ‘지금 여기의 관심과 언어’로 읽어내어 활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내용이다.

돈문 안에는 다시 통과해야 할 여러 관문이 세워져 있다. 그 관문들의 열쇠 확보는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관문들을 열고 들어서야 ‘해탈·열반·깨달음 및 선禪 수행의 의미’가 눈앞의 풍경처럼 펼쳐진다. 남은 회차에서 다룰 수 있는 데까지 필자의 소견을 가감 없이 밝혀 보겠다. 卍

1) 이런 질문에 나름대로 답해 본 것이 『선 수행이란 무엇인가?』(장경자, 2024년)이다. 선 수행의 두 축을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으로 구분하면서 관련 통찰의 흐름과 그 의미를 붓다부터 선종 간화선까지 계보학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내용이 기존 시선과는 달라서 독백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간화선 참구에 전념해 오신 한 선승께서 책을 읽고 연락하시어 “선방에 돌려야겠습니다.” 하셨다. 독백은 아니구나 싶었다.

○ 박태원 고려대에서 불교철학으로 석·박사 취득. 울산대 철학과에서 불교, 노자, 장자 강의. 주요 저서로는 『원효전서 번역』, 『대승기신론사상연구』, 『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 『돈점 진리담론』, 『원효의 화쟁철학』, 『원효의 통섭철학』, 『선禪 수행이란 무엇인가?-이해수행과 마음수행』 등이 있다.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펴낸 불서



■ 성철스님이 가려 뽑은 한글 선어록

- 선을 묻는 이에게(산방야화) | 14,000원
 - 선에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동어서화) | 14,000원
 -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참선경어) | 14,000원
 - 선림의 수행과 리더쉽(선림보훈) | 15,000원
 - 마음 닦는 요긴한 편지글(원오심요) | 18,000원
 - 송나라 선사들의 수행이야기(임간록) | 25,000원
 - 어록의 왕, 임제록(임제록) | 18,000원
 - 가려뽑은 송나라 선종3부록 ①(나호야록, 운와기담, 총림성사) | 22,000원
 - 가려뽑은 송나라 선종3부록 ②(인천보감, 고애만록, 산암잡록) | 20,000원
- ※각 도서는 e-book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장경각의 불서

- | | |
|--------------------------------------|---|
| 명추회요(e-book)
회당조심 24,000원 | 밝은지혜 맑은마음
보광성주 10,000원 |
| 선 수행이란 무엇인가?
박태원 30,000원 | 나는 사람이 좋더라
연등국제선원 15,000원 |
| 불교와 유교의 대화
김도일 외 30,000원 | 역주 선림승보전(상, 하)
원철 역주 각 18,000원 |
| 조론연구·조론오가해(전6집)
조병활 역주 300,000원 |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
김용정 저, 윤용택 역음 30,000원 |
| 조론
조병활 역주 18,000원 | Echoes from Mt. Kaya
(자기를 바로 봅시다 영문판)
Edited by ven. Won-taek 25,000원 |

한·중·일 삼국의 선禪 이야기

김방룡의 한국선 이야기
원영상의 일본선 이야기

선
禪



천태종의 개창에 맞서 임제선을 수용한 선사들 ②

원응국사 학일과 청평거사 이자현



김방통_ 충남대학교 교수

고려 광종 대 법안종의 유입과 의천의 천태종 창종으로 인해 나말여초에 형성된 구산선문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의천 사후 지눌이 출현할 때까지 고려 중기 선종을 지탱한 대표적인 3대 고승으로 혜조국사慧照國師 담진曇眞(미상)과 대감국사大鑑國師 탄연坦然(1070~1159) 및 원응국사圓應國師 학일學一(1052~1144)을 들 수 있다. 담진과 탄연이 사굴산문의 대표적 선승이라면 학일은 가지산문의 대표적 선승이었다.

「원응국사 비문」의 찬자 윤언이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에는 윤언이尹彦頤(1099~1149)가 찬한 원응국사의 비문이 있다. 비문의 찬자 윤언이는 숙종과 예종 대에 여진족을 토벌하였던 윤관尹瓘의 아들이다. 1127년 남송이 세워지자 이듬해인 1128년(인종 6) 윤언이는 예부시랑이 되어 송나라로 들어가 국교 재계를 청하고 돌아왔다. 또한 1135년(인종 13) 묘청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중

군좌中軍佐로 임명되어 김부식과 더불어 묘청의 난을 토벌하기도 하였다.

『조선불교통사』에서 이능화는 윤언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149년(의종 3년) 9월 임오일에
정당문학政堂文學 윤언이尹彦
頤가 죽었다. 언이는 어려서
과거에 급제하였고 문장에
뛰어나 일찍이 『역해易解』를
저술하여 세상에 전했다. 만
년에는 불법에 심취하여, 늙
었다는 핑계로 파평坡平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스스로 금
강거사金剛居士라고 불렀다.
일찍이 승려 관승貫乘과 벗이
되었다. 관승이 겨우 한 사람

이 앞을 자리만 있는 초막 암자[蒲菴]를 짓고 먼저 죽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입적하자고 약속하였다. 하루는 언이가 소를 타고 관
승에게 찾아가 이별을 고하고 곧바로 돌아가니, 관승이 사람을 초
막 암자로 보냈다. 언이가 웃으며 말하기를, “스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구나.”라고 하며 드디어 초막 암자에 앉아 서거하였다.1)



사진 1.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비. 사진: 디지털 청도문화대전.

1) 『여주 조선불교통사 1』, 707쪽.

사진 2. 청도 운문사 설경. 사진: 청도군청(최관식).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윤언이의 마지막 삶의 순간은 생사를 초탈한 선사의 열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유학자이자 정치가로서 묘청의 난을 평정하였으며, 또한 요나라와 금나라 및 송나라 등과의 외교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윤언이가 만년에 불법에 심취하여 당대를 대표하는 거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가 학일의 비문을 찬한 것은 단순히 왕명을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학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응국사 학일과 가지산문

학일은 1052년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 지방인 서원西原 보안保安에서 출생했다. 속성은 이씨李氏이고, 법명은 학일學一이며, 자는 봉거逢渠이다. 아버지는 응첨應瞻으로 관직에 진출하지는 않았으며, 어머니 역시 이씨李氏로 용이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임신했다고 한다.

학일은 11세가 되던 1062년(문종 16) 진장眞藏 선사의 제자가 되어 13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향수사香水寺의 혜함惠含 선사를 찾아뵈었다. 어느 날 혜함은 학일에게 “어떤 승려가 장경長慶 선사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배우는 이가 출신할 길입니까?’라고 하니, 장경이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네가 출신할 길이다.’라고 했다.”라는 고적을 들어 보이니, 학일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한다. 이후 계속 정진하여 선지禪旨를 깨달았다 한다.

학일의 스승인 진장과 혜함에 대한 상세한 이력은 알 수 없지만, 가지산문 소속의 선사로 추정된다. 학일은 1082년(문종 36) 개성의 광명사에서 개최된 승과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그는 경·율·논 삼장은 물론 『대반야경』에 달통하여 반야삼매를 얻었다. 그리고 치병 능력이



사진 3. 원응국사 학일선사가 주석했던 가지산 보림사. 사진: 서재영.

있어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는데, 문종의 아들이자 의천의 아우인 원명국사 징엄澄儼이 9살 때 몸이 아파 거의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 대반야를 염송하여 낳게 하기도 하였다.

학일은 의천과 동시대를 살았는데, 담진이나 의천과 달리 해외에 나가지 않았으나 당시 승려들로부터 지극한 존경을 받았다. 의천이 송나라에 다녀와서 천태종을 창종할 때 여러 차례 학일에게 동참하기를 권했지만, 학일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언이는 비문에서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각국사가 원우 원년(1084)에 귀국하여 천태지자를 존승하여 별도로 천태종을 창립하였다. 이때 선종에 소속된 승려 가운데 천태종으로 치우쳐 속한 자가 10중 6~7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본 학일은 조도祖道가 조락하여짐을 슬퍼하면서 홀로 서겠다든 마음을 확고히 하였으며,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생명을 바쳐 호종護宗하

였다. 대각국사가 사람을 보내 여러 차례 권하였으나 끝내 그의 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²⁾

의천이 화엄종의 종주이면서도 천태종을 개창한 이유 중의 하나는 호족 세력과 결탁된 선사들을 왕권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천이 천태종을 선종의 종파에 소속시킨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때 천태종에 합류한 선사의 수가 1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기존의 구산선문에 속했던 승려가 7백여 명, 자발적으로 천태종에 합류한 승려가 3백여 명이었다. 이러한 의천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남종선의 종지를 지켰던 대표적인 선사가 사굴산문의 담진과 더불어 가지산문의 학일이었던 것이다.

천태종을 개창한 이후에도 의천은 천태종의 불사에 학일이 동참하기를 권유하였다. 예를 들면 1098년(숙종 3) 의천이 흥원사弘圓寺에서 『원각경圓覺經』 법회를 개최할 때 학일을 법회의 부강副講으로 삼고자 했으나, 학일은 이를 사양하고 단지 청강만 했다. 가지산문의 선사로서 자신이 갈 길을 학일은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1106년(예종 1) 학일은 삼중대사가 되었으며, 가지사·귀산사 등에 머물다가 1108년(예종 3) 선사禪師의 승계를 받았다. 여기에서 학일이 머물렀던 가지사迦智寺는 장흥의 가지산에 있었던 사찰로 보인다. 다만 체징이 가지산문을 연 보림사가 이때 가지사로 이름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보림사와 더불어 가지사가 병존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후 태고보우

2)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 비문」;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고려편 3), 277쪽.

가 가지사에 주석했다는 내용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까지 가지사는 가지산문의 중심 사찰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학일은 선사에 이어 대선사가 되었고 예종과 인종 대에 이르러 왕사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1129년(인종 7)에 청도 운문사로 내려와 입적할 때까지 머물렀다. 학일이 운문사에 주석함으로써 운문사가 크게 융성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운문사는 가지산문의 중심 도량으로서 사격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이후 가지산문 소속의 보각국사 일연이 이곳에 주석하였던 사실 또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학일의 선사상

담진과 달리 학일에게는 당시 송나라 임제종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나라의 세력이 약화하고 금나라의 세력이 부강하면서 중원에서는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 세워지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남송과 고려 사이에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의천의 활약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고려 불교계에 송나라 불교의 영향 또한 자연스럽게 미치게 된다.

윤언이는 이러한 학일의 선사상 속엔 당시 형성된 남종선 5가 7종의 종지들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나말여초 가지산문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도 5가 7종의 종지들을 모두 포용한 선사로서 학일의 위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비문의 「음기」에는 학일의 문도들의 성명이 명기되어 있는데, 대선사 2명, 선사 13명, 삼중대사 9명, 중대사 57명을 포함하여 모두 229명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타나 있다. 학일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청평거사 이자현

12~13세기 선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사居士이다. 이 시기 이자현·윤언이·이규보·이장용·이승휴 등 뛰어난 재가 거사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는 오대 북송 시기 문화의 주체로 떠오른 사대부들이 선사상에 심취하여 문자선·공안선의 선풍을 만들어 낸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자현李資玄(1061~1125)은 인주 이씨로 문하시중을 지낸 이자연의 손자이자 인예왕후, 인경현비, 인절현비의 조카이며, 이자점과는 사촌지간이다. 이자현은 24세에 진사가 된 뒤 줄곧 벼슬길에 머물렀지만, 갑자기 아내를 잃은 후 29세에 춘천의 청평산으로 들어가 문수원文殊院을 수리하고 거주했다. 이자현에 대하여 『고려사절요』에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청평산 사람 이자현이 졸하였다. 자현은 부귀한 가문에서 성장하여 나라의 외척이 되었으나, 화려한 것을 싫어하며 한적한 것을 좋아하여 벼슬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일생을 마쳤다. 그러나 성질이 인색하여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재물을 독점하며 양곡을 모아 들였기 때문에 그 지방의 농민이 매우 괴롭게 여겼었다. 병이 들자 왕이 내의를 보내어 문병하고 차와 약을 주었다.³⁾

이자현은 임진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면 다시는 서울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맹세하고 청평산에 들어가 평생을 수도 생활로 일관하였다. 당

3) 『고려사절요』, 인종 공효대왕 3년 4월 조.



사진 4. 춘천 청평사. 이자현은 청평산에서 37년간 참선에 매진하다 입적했다. 이후 그의 호를 따서 청평사로 불리고 있다.

대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30세를 전후하여 벼룩과 나물밥을 먹으며 선수행에 전념한 극적인 삶의 반전 이유가 아내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자현은 설봉의존雪峰義存(822~908)의 어록을 읽다가 “은 천지가 다 눈[眼]인데, 그대는 어디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가[盡乾坤 是箇眼 汝向什麼處蹲坐?]”라는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한다.

이자현은 『능엄경』에 심취하여 ‘능엄선’을 주창하였으며, 『능엄경』에서 수행 방법으로 제시한 25원통 가운데 관음보살이 수행한 이근원통耳根圓通을 강조하였다. 지눌의 『수심결』 가운데, “그대는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자현이 강조한 관음보살의 이근원통 수행법이다. 이자현의 영향이 지눌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古觀

○ 김방룡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북대 철학과 학부, 석사 졸업, 원광대 박사졸업. 중국 북경대, 절강대, 연변대 방문학자. 한국선학회장과 보조사상연구원장 역임. 『보조지눌의 사상과 영향』,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공저)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중·근세 순수선의 등불을 밝힌 슈호 묘초



원영상_원광대 교수

1325년 궁중에서는 고다이교 일왕의 참석 하에 대론이 행해졌다. 당시의 연호를 사용한 쇼추正中의 종론이다. 구불교의 대표로는 천태종의 겐에 호인玄慧法印을 필두로 9명이, 선종에서는 임제종의 츠오 교엔通翁鏡圓과 슈호 묘초宗峰妙超(1282~1337)가 나왔다. 중세 신불교의 교선教線 확대, 특히 선종의 활약으로 위기감에 휩싸인 구불교가 사활을 건 대론이었다. 그들이 논파할 핵심은 제불조사의 경전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였다.

구불교와 신불교의 사활을 건 대론

겐에가 먼저 물었다. “무엇인가, 이 교외별전의 선은?” 슈호가 응수했다. “팔각의 맷돌[磨盤]이 허공을 날아다닌다.” 교리에 집착해 있던 겐에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한 승려가 상자를 들고나왔다. 그러자 슈호가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 승려는 “이것은 건



사진 1. 슈호 묘초 초상. 사진: 위키피디아.

곤乾坤의 상자.”라고 대답했다. 슈호는 그것을 부숴 버리고 “건곤의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 승려는 “졌습니다.”라고 했다.

항복한 이 승려는 후에 슈호의 제자가 되었다. 겐에는 사랑분별을 끊은 경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벽암록』 제47칙을 알지 못한 것이다. 어떤 승이 운문에 게 “어떤 것이 법신인가?”라고 묻자 운문은 “여섯(육근)으로 파악할 수 없다[六不收].”고 했다. 원오는 이 대목의 착어에서 팔

각의 맺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육불수는 활구로써 오직 참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이는 다이토선大燈禪의 기품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다이토국사는 슈호를 말한다. 난포 조묘에서 슈호로, 슈호에서 간잔 에겐으로 3대에 걸친 오토칸應燈關의 계보야말로 일본 순수선의 보고다. 슈호는 젊은 시절 경률론 삼장을 공부했지만 한계를 느끼고 노숙들에게 참문했다. 20세 때 가마쿠라의 건장사에서 참선하고, 23세 때는 만수사의 고희 켄니치 문하에 정식으로 출가했다. 1307년 26세에 ‘운문의 관자關字’ 공안을 타파하여 난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슈호는 당시 난포에게 다음과 같은 투기投機의 계를 올렸다.

한 번에 운문의 관을 투과시키니 동서남북의 활로를 통과한다.
 저녁을 지나 아침에 노는 노상에는
 이미 빈주濱州도 없어 다리 둘 곳 모두가 청풍을 일으킨다.

운문의 관을 투과시켜 보니 이미 옛길이 없어져 버렸다.
 청천백일 모두가 나의 정원이다.
 기륜機輪은 자유 전변하여 사람이 어디에도 이를 수 없다.
 저 금색의 가섭존자도 팔짱을 끼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로써 난포는 그를 “운문이 다시 온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난포는 슈호에게 ‘20년의 성태장양’을 명한다. 깨달음 뒤의 수행인 오
 후수悟後修 외에도 당시 선종의 진면목을 대중에게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지금의 위치와는 다소 다르지만 교토 오조五條의 다리 아래에
 서 45세까지 풍찬노숙을 시작했다. 저자거리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온갖



사진 2. 하나조노 법왕(출가한 상왕). 묘심사 소장.

소란 속에서도 부동의 자신을 지켜
 보고 있었다. 훗날 대덕사가 배출한
 풍광風狂의 선사로 부르는 잇큐 소
 준一休宗純은 『광운집狂雲集』에서 “다
 이토 발분하여 온 천하에 빛난다.”며
 그의 높은 기상을 읊기도 했다.

대중들은 이구동성으로 “좌선
 을 한다면 사조 오조의 다리 위, 왕
 래하는 사람들을 심산의 나무로 보
 며.”라고 했다. 재색명리財色名利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잡사를 초월하여 동정 간 삼매에 들어가 진정한 수행자임을 보여준 것이다. 밀물과 썰물처럼 오가는 민중의 해조음을 들으며 중생 구제의 길을 더욱 깊고 넓게 확장했다.

성태장양의 시기인 35세에 슈호의 명성을 들은 하나조노 왕은 그를 불렀다. 왕은 “불법의 부사의不思議, 왕법과 대좌한다.”고 말했다. 슈호는 “왕법의 부사의, 불법과 대좌한다.”고 응수했다. 왕의 의도는 지혜로 가득 찼다는 불법이 감히 최고의 권력인 왕법과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선수를 친 것이다. 슈호는 백성을 살리는 왕법은 그 권력을 잘 사용해야 함에도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는 불법과 감히 마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문한 것이다.

왕은 그의 당당한 기개에 감복하여 제자가 되었다. 그는 후에 상당설법에서 “불법의 진리에서 보면, 이처럼 제군과 서로 마주 보고 섰을 때, 이미 수미산 5겹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물며 내가 무언가를 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세 번 태어나 60겁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도 헛된 일이다. 제군 가운데 이 일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청중과 함께 대결해 봄이 어떤가. 자 어떤가. 자, 어떤가.”(『다이토국사 어록』)라며 기엄을 토한다.

중생 구제의 대열에 선 선종

중·근세를 통해 임제의 선맥을 지킨 다이토선이야말로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는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순수선의 빛을 밝혔다. 그의 선풍은 오직 수선修禪에 전일한다는 점이다. 1326년 개창한 대덕사大徳寺는 존재들이 탄생하는 못자리관이 되었다. 당시의 일왕들은



사진 3. 대덕사 산문 금모각숯毛閣 전경. 사진: PR TIMES 웹페이지.

앞다투어 국가의 기원사로 지정했다.

고대이고 왕은 대덕사를 5산의 제1로 삼고자 했다. 단호히 거절했다. 슈호는 그가 머무는 사찰의 사격에는 관심이 없었다. 또한 당시 제1찰이었던 남선사 주지에 임명되었지만 즉시 사퇴했다. 구불교의 권승들은 고대의 국가 권력과 밀착하여 민중의 비참한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중세의 신불교들이 탄생한 배경에도 이러한 민중의 절규에 대한 불교의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종 또한 그러한 중생 구제의 대열에서 있었다.

슈호는 10개조의 엄격한 사규를 제정했다. 그 속에는 삼시의 근행 때 사용하는 경전과 다라니를 외지 못하는 자는 의발을 거두고 추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절문에 들어선 소승, 초기 단계에 들어선 사미, 수행 단계에 들어선 결승에 대한 조항에는 “삼시의 근행 외 시간에는 무용無用한 악행을 그치고, 학문을 한결같이 공부할 것.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아프도록 5대의 곤장에 처하고 하루의 공양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 본격적인 수행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행을 하더라도 그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지식도 없다면 자기 점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 4. 대덕사 방장. 사진: 교토 사이트 웹페이지.

엄격한 수행과 돈오견성의 강조

그는 일관되게 돈오頓悟를 주장했다. “나의 종宗은 오직 견성을 논하고 차제의 수행을 빌리지 않는다.”고 설했다. 그는 <유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제군은 수행을 위해 이 도량에 와 있다. 생활을 위해 수행하지 말라. 어깨가 있으면 옷은 따라오며, 입이 있으면 음식은 따라온다. 24시간 깨달음을 구하라. 세월은 화살과 같다. 잡념을 갖지 말라. 간취하라. 간취하라. 노승 사후에 얼마나 이 도량이 번성하여 문도가 몰려들고, 작법이 행해져 송경하고, 오전 중에 식사한 후 하루 종일 내내 수행을 하는 생활이 설사 이뤄진다고 해도 불조의 깨달음은 말이나 문자로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묘도妙道를 명심하지 않으면, 인과를 부정하고 진실은 땅에 떨어져 모두 마귀의 종족이 될 것이다. 노승이 세상을 떠나도 나의 제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골에서 혼자서 근근이 생활하며, 띠 지붕의 초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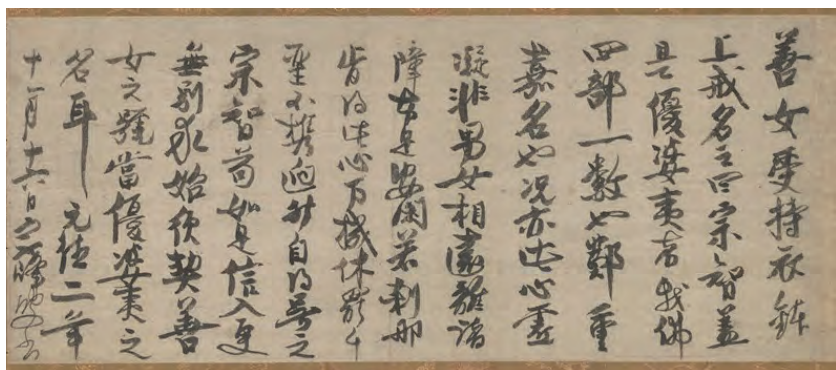


사진 5. 슈호 모초 법어. 사진: MIHO 미술관 소장.

에서 다리가 부러진 냄비에 야채를 끓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일심으로 자기의 일을 규명하는 자는 나를 매일 대면하고 보은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누가 감히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근행하라, 근행하라.

- 『다이토국사 연보』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오직 일관된 수행에 투신하여 깨침을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신에서 오고, 법신에서 가며, 법신에서 하나된 경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제자들에게는 주로 어떠한 공안을 주었을까. 참선에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 한 여성에게는 무자無字 공안을 주었다고도 한다. 그녀가 공부의 정도를 보이며 인가를 받고자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며 각하였다. 그러자 이 여성은 공안 투과를 위한 방안을 원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이것저것 머리를 굴리면, 세월을 더해도 무자 공안의 투과는 어렵다.”[『다이토국사 가나(假名) 법어』]며 깨우쳐 주었다. 오직 좌선과 공안만으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지도했다.

오로지 공안 탐구를 통해 견성하라

문하에는 하나조노 왕의 왕비도 있었다. 그녀에게 보낸 편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참선학도의 도리, 초심 때는 좌선 한길로 가야 한다. 좌선이라는 것은 걸가부좌 혹은 반가부좌 하고 눈을 반쯤 뜨고 부모미생전의 본래면목을 간하라. 부모도 아직 나오지 않고, 천지도 아직 분화되지 않고, 나도 아직 사람의 형체를 받기 이전을 보라는 것이다. 본래면목은 모양도 없는 물건이다. 마치 허공과도 같고, 허공에는 모양도 없다. 따라서 불설에는 불신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고 설하신다.” 그리고 일념을 강조하며 모든 선악이 일념을 따라 일어난다고 한다. 일념의 본체는 없다. 본래면목은 생사윤회도 없는 불생불멸이다. “단지 일심이 즉 부처다. 마음 외에 따로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도다.”라며 오




사진 6. 하쿠인 에가쿠白隱慧鶴(1686~1769). 사진: 위키피디아.

직 견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공안을 통한 일심의 경지에서 마침내 천지가 서로 맞부딪혀 깨지는 견성인 것이다.

17세기 초기 에도江戶 막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의 근세가 시작되었다. 중기에 이르러 임제종의 여러 파들은 거의 단절되었다. 하쿠인 에가쿠白隱慧鶴(1686~1769)가 나와 중흥을 이루게 된다. 난포, 슈호, 간잔의 오토칸 선맥이 하쿠인에게 계승되었다. 슈호야말로 시대의 파도를 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선풍은 묘심사의 개조가 된 간잔은 물론 대덕사의 2대인 뎃토 기코(徹翁義亨), 3대 하쿠오 소운(白翁宗雲), 4대 고케이 도진(虎溪道壬)으로 이어진다. 잇큐는 물론 그의 영향을 받아 와비차(侘び茶)를 창안한 무라타 주코(村田珠光), 와비차의 완성자인 센노 리큐(千利休), 작정가(作庭家)로 잘 알려진 고보리 엔슈(小堀遠州) 등의 예인들이 대덕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차와 관련해서는 다쿠양 소호(沢庵宗彭)도 빼놓을 수 없다. 대덕사와 관계된 수많은 역사와 전설 등은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없다.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국보를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 예술품들 또한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다. 현재의 대덕사는 24개의 탑두(塔頭)로 이뤄져 있다. 탑두는 조사나 개조의 탑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일종의 암자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덕사가 다방면의 임제종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다른 파 승려들의 입사를 허락하지 않는 일류상승(一流相承) 제도를 운영한 것도 크다고 할 수 있다. 5산의 관찰(官刹)은 널리 인재를 구하는 시방주지제(十方住持制)를 운영해야만 했다. 인재풀이 넓지 않은 일류상승제의 한계가 있음에도 깨달음에 입각한 철저한 사자상승을 함으로써 오히려 권력과의 관계를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7당가람, 개산당, 금은누각 조영은 슈호에게는 눈곱만큼도 의미가 없었다. 성태장양은 그의 깨달음을 더욱 넓고 깊게 확립했다. 화광동진하며 긴 호흡으로 선문의 세계를 내다보았다. 그는 위없는 비로(毘盧)의 정상을 밟고 간 주인공이었다. 

○ **원영상** 원불교 교무, 범명 익선, 일본 교토 불교대학 석사, 문학박사, 한국불교학회 전무회장, 일본불교문화학회 회장, 원광대학교 일본어교육과 조교수. 저서로 『아시아불교 전통의 계승과 전환』(공제), 『佛敎大學國際學術研究叢書: 仏敎と社會』(공제)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일본불교의 내서널리즘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 교훈」 등이 있다. 현재 일본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제7회 퇴옹학술 시상식 외

제7회 퇴옹학술상 시상식 개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최연주)는 지난 11월 30일 부산 고심정사에 서 제7회 퇴옹학술상 시상식 및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백련불교문화재단과 고심정사 신도회가 후원하는 제7회 퇴옹학술상 시상식에



사진 1. 퇴옹학술상 수상자들과 자리를 같이한 원택스님.

서 교리부분에 위덕대 연구원 법장 스님이, 응용부분에 한국교원대 신희정 강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스님은 “불교학자를 길러야 한다는 성철 종정 예하의 유지를 받들어 퇴용 학술상을 제정하여 신진 불교학자들의 육성에 힘을 보탠 지 벌써 7년째다.”며 “많은 학자들이 불교학계에 나와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또 ‘성철스님의 불교사상과 선’을 주제로 한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준비한 최연주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2. 축사를 하고 있는 원택스님.



사진 3. 학술대회에서 강경구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최연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장은 “퇴옹학술상은 한국 불교학계를 이끌어 갈 신진연구자에게 주어지는 매우 큰 상으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회는 앞으로 퇴옹학술상과 동계학술대회에서 성철스님의 불교사상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강형철 경희대 교수가 「퇴옹성철의 오매일여와 우파니샤드의 네 단계 의식」을, 김명우 동의대 교수가 「백일법문에 나타난 퇴옹성철의 아뢰야식 고찰」을, 강경구 동의대 명예교수가 「본지풍광 수시의 독해를 위한 시론적 고찰」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원택스님의 보물 1호 ‘성철스님의 법문’

현대사를 증언하는 대한민국 명사 60인의 보물 한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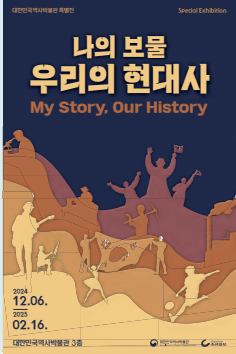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에서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헤쳐 온 명사 60인의 ‘나의 현대사’를 증언하는 보물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유물을 기증한 명사들은 “내 물건이 이렇게 역사를 증언하는 유물이 될 줄은 몰랐다.”며 감격해 했습니다.

오는 2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 특별전은 <조선일보> 문화면에 지난해 4월부터 1년 반 동안 65회에 걸쳐 연재된 기획기사 ‘나의 현대사 보물’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명사 60명의 실물 소장품과 독자 78명의 사진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되짚어 보는 자리입니다. 다채로운 전시



사진 4.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녹음한 테이프와 원택스님이 법문을 쓴 노트.

기법으로 문화사文化史를 다루는 2부 ‘나의 인생 문화를 엮다’에는 원택스님이 나의 보물 1호로 꼽은 ‘성철스님의 백일법문 릴레이프와 카세트테이프, 원택스님의 육필 녹취 원고’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원택스님의 인터뷰는 2024년 10월 17일 자 <조선일보>에 ‘나의 현대사 보물 24, 성철스님 제자 원택스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

나의 보물, 우리의 현대사

My Story, Our History

전시기간 : 2024.12.06.(금)~2025. 02.16.(일)

장 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www.much.go.kr)

사진 5. 나의 보물, 우리의 현대사 전시 포스터.

불필스님의 회고록 『영원에서 영원으로』 영역 출간

From Eternity to Eternity

- Memoirs of a Korean Buddhist Nun -

2012년 성철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금강굴 불필스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밝힌 성철스님과의 인연 이야기와 비구니로서의 철저한 수행담을 담은 책 『영원에서 영원으로』가 조은수 선생(전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영역으로 미국 SUNY PRESS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속가의 인연으로 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고, 안정사 천제굴에서 처음 뵈는 순간부터 불법佛法의 스승으로서 성철스님에게서 받은 가르침과 제자들을 뜨겁게 품은 은사 인홍스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 100년의 역사와 치열하게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모습을 최초로 담은 뜻깊은 영어 번역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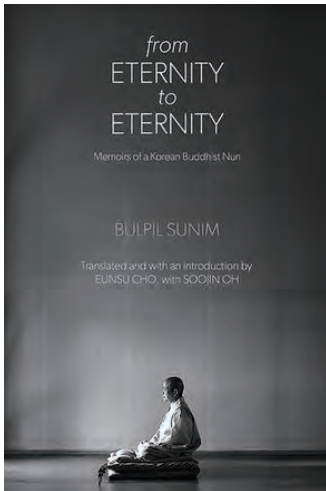


사진 6. By Bulpil Sunim, Translated by Eunsu Cho, Introduction by Eunsu Cho With Soojin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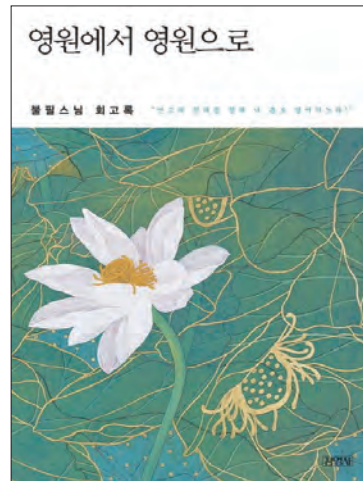


사진 7. 불필스님의 삶과 수행을 다룬 책 『영원에서 영원으로』 (2012년, 김영사).

【 11월 고경 후원 명단 】

● 1만원

강갑순	강길영	강나연	강은선	강칠례	고분자	고은영	권경연	권봉숙	권용근
김기봉	김명숙	김사청	김삼용	김상호	김상훈	김석호	김성동	김숙희	김순옥
김연기	김영숙	김용제	김정희	김지수	김창식	김청원	김태희	김현미	김현숙
나영규	남상태	남정숙	노영희	도순자	도은숙	박경희	박동실	박민숙	박은영
박정섭	박정숙	박춘화	박향순	백정윤	사공순옥	서만선	서임숙	서재영	서정일
서정한	석필순	선전이	손유정	신동규	신현장	심재형	심희정	안국스님	안승희
양복여	양영미	엄철순	연안성	오판석	우위숙	유복희	유숙희	유옥례	윤경자
윤성빈	윤재옥	이귀형	이명숙	이민준	이석락	이승옥	이윤기	이은서	이은숙
이인순	이재혁	이지수	이지훈	이한선	이화자	이효정	이희숙	임말순	장나희
장춘자	전경숙	전보영	정백기	정연지	정유진	정은숙	정중섭	정대선	정휘태
조기린	조난희	조미화	조성하	조증기	조한나	조형춘	차재욱	최남미	최병희
최재실	하홍준	함지애	허보금	홍세미	홍현주	황성자			

● 2만원 강차선 김인겸 석문숙 안순균 이우병 한창우

● 3만원 김태균 무주상 문기섭 박극제 박소은 불과선원 성덕혜 신장교
 안혜련 양윤정 이을순 이창우 이채윤 천경덕 청봉
 고심정사불교대학제6기 고심정사불교대학제11기

● 4만원 김종배

● 5만원 강귀석 김경희 김점순 박삼철 이수영 정경희 정두식

● 10만원 김영신 김재곤 김진호 도대현 명연 문선이 아비라카페 유희열
 이금수 임세기 정안사 채정열

● 25만원 장금선원

● 30만원 법륜사 삼정사 월륜사 청량사 최영자

● 50만원 겁외사 고심정사신도회 길상선사 백련거사림 정심사 정인사 정혜사

● 100만원 고심정사 해인사백련암

【 11월 성철스님 법어집 법보시 동참자 】

● 1만원 김중구 무주상 박현찬

● 5만원 박삼철

『고경』 구독 및 후원 안내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도록 『고경』을 후원해 주십시오.

◎ 본인 구독 또는 지정 기부

여러분의 후원금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고경』을 직접 구독하시거나 군부대 등 불교 관련단체를 지정하여 『고경』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후원 금액 및 방법

월납 : 매달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납 : 매년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방법 : 본 페이지 뒷면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www.songchol.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고경』 후원 및 보시 관련 계좌

국민은행 006001-04-265260 예금주: 해인사 백련암.

농협 301-0126-9946-11 예금주: 해인사 백련암.

문의 : 『고경』 편집부 02-2198-5375

성철 스님 법어집 법보시 안내

‘우리 곁에 왔던 붓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법어집과 『고경』을 군법당 등 포교 현장에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다립니다.

※ 법보시 동참 현황은 매월 『고경』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고경』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법보시 동참 계좌 농협 301-0191-0851-21 예금주 : 해인사 백련암



앞표지

새해를 여는 간절한 평화의 기도.
미얀마 양곤의 황금사원 쉐다곤 파고다.
하지권, 2010년 작.

뒤표지

일오구만월.
박경귀, 2024년 작.

KOKYUNG 141

古 지혜를 전하는 말씀
鏡 마음을 밝히는 수행



을사년乙巳年_ 불기佛紀 2569년_ 단기檀紀 4358년
Monthly Magazine_ January 2025_ Volume 141
www.sungchol.org
First published in May 2013_ First 2013
Buddhist Institute of Sungchol Thought (BIST)

